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로 출간된 책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물품 번호 36481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3555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35969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36315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36787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3574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35970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36786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36492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36907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35892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36500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08860 320)

이 책들을 구하시려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배부 센터에 가거나 stor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또한 LDS.org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복음 자료실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cur-development@ldschurch.org

보내실 때에는 여러분의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 명칭을 적으시고, 반드시 책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책의 장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 by Intellectual Reserve, Inc.

관련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3/11

번역 승인: 3/11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Ezra Taft Benson*의 번역

Korean

08860 320



목차

소개.....	v
역사적 사건 요약.....	ix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와 성역.....	1
1 가장 큰 계명—주님을 사랑하라.....	37
2 항상 기도하십시오.....	47
3 선택의 자유, 영원한 원리.....	59
4 환난의 시기에 기쁘게 생활하십시오.....	69
5 진정한 회개의 원리.....	77
6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	89
7 조셉 스미스, 주님의 손의 도구.....	103
8 말씀의 힘.....	115
9 물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125
10 물몬경으로 온 세상을 덮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137
11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147
12 매사에 영을 추구하십시오.....	157
13 주님의 집에서 얻는 귀한 축복.....	167
14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가족.....	179
15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성스러운 부름.....	191
16 교회의 연로한 사람들.....	203
17 순결의 법을 지킴.....	217
18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229
19 지도력.....	241
20 “내 양을 먹이라”.....	253
21 현세적 및 영적 복지의 원리.....	263
22 세상에 복음을 전함.....	275
23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287
24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297
시각 자료 목록.....	307
색인.....	309



John W. ...



소개

제 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를 마련했다. 이 총서에 포함되는 책들이 출간될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소장하는 복음 참고 서적들도 늘 것이다. 이 총서에 포함된 책들은 개인 학습과 일요일 공과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책들은 또한 여러분이 다른 공과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교리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1985년 11월 10일부터 1994년 5월 30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개인 학습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신의 영감을 구한다. 각 장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들은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제언들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 공부할 때 성신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생각과 느낌을 적는다.
- 기억하고 싶은 문구들에 밑줄을 긋는다. 그 문구들을 암기하거나 경전의 관련 성구 옆에 적어 둘 수도 있다.
-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각 장이나 문구를 두 번 이상 읽는다.
-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복음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실까?
- 배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눈다.
-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근심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문해 본다.

이 책으로 가르치기

이 책은 가정과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마련되었다. 다음 제언은 여러분이 이 책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칠 준비를 한다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지명된 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 그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 여러분은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1:21 참조)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에서 공과를 가르칠 때, 이 책을 제쳐 놓거나 다른 자료에서 공과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에서 선택한다. 어떤 장에는 공과 시간에 토론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참여자들이 공과가 있기 전에 해당 장을 공부하고 이 책을 가져오도록 권유한다. 그렇게 하면 토론에 참여하고 서로 교화되도록 더 잘 준비될 것이다.

가르칠 준비를 할 때 각 장 끝에 있는 “학습 및 교수 제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곳에서 질문들과 관련 성구, 학습을 위한 도움말, 또는 교사를 위한 도움말을 찾을 수 있다. 질문들과 관련 성구들은 그 내용이 실려 있는 각 장과 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학습을 위한 도움말과 교사를 위한 도움말은 여러분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고자 노력할 때, 또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다.

공과를 소개한다

공과를 소개할 때뿐만 아니라 공과 시간 내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에 영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반원들이 본문에 있는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다음 제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활용할 수도 있다.

- 각 장 첫머리에 나오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부분을 읽고 토론한다.
- 각 장에 나오는 사진이나 성구를 토론한다.
- 관련된 찬송가를 다 같이 부른다.
- 주제에 관련된 경험담을 짧막하게 나눈다.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토론하도록 격려한다

반원들이 생각을 나누고, 질문하고, 서로 가르치도록 격려하면서 이 책을 가르친다. 반원들은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더 잘 준비되고 배우며, 개인적인 계시를 받게 된다. 모든 가르침을 다루기보다는 바람직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게 한다.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각 장 끝에 있는 질문을 사용한다. 반원들을 위해 직접 질문을 만들어도 좋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음 제언을 고려해 본다.

- 반원들에게 그 장을 개인적으로 학습하면서 배운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주 중에 몇몇 반원에게 연락하여 배운 내용을 나눌 준비를 해 오도록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나누어) 반원들에게 각 장 끝에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읽으라고 한다. 본문에서 그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라고 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고 깨달은 점을 반원들과 나누도록 부탁한다.
- 그 장에서 벤슨 회장의 가르침 중 일부를 함께 읽는다. 반원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보여 주는 경전의 예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다.
- 반원들에게 원하는 편을 선택하여 마음속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같은 편을 선택한 사람 두세 명을 같은 조로 지명해 배운 내용을 토론해 보게 한다.

배운 것을 나누고 적용하도록 격려한다

반원들이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생활에 적용한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활용할 수도 있다.

- 반원들에게 가정과 교회에서 책임을 수행할 때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질문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반원들이 남편이나 아내, 부모, 아들, 딸, 또는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토론하도록 도울 수 있다.
- 반원들에게 벤슨 회장의 몇몇 가르침을 가족 및 친구들과 나누라고 격려한다.
- 반원들에게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다음 공과를 시작할 때 그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토론 마무리

공과를 짧게 요약하거나 반원 한두 명에게 공과를 요약해서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토론한 가르침에 대해 간증한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권유해도 좋다.

이 책에 실린 인용 자료 안내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의 설교, 글, 책, 일지에서 직접 인용했다. 인쇄 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은 독자가 읽기 편하도록 편집이나 인쇄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원문에 사용된 구두법, 철자법, 대문자 사용, 문단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는 미미하게나마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회를 지칭하는 대명사의 경우 어떤 인용문에는 소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다른 곳에는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벤슨 회장은 종종 남녀 모두를 지칭할 때 *men*(남자들), *man*(남자), 또는 *mankind*(인류)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he*(그), *his*(그의), *him*(그를) 같은 대명사를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벤슨 회장 당시에는 이런 어법이 통용되었다. 이런 언어 관습이 현행 어법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벤슨 회장의 가르침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역사적 사건 요약

다음 연대표는 이 책에 실린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벤슨 회장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1899년 8월 4일	아이다호 휘트니 인근에서 조지 태프트 벤슨 이세와 사라 덩클리 벤슨 사이에서 태어남.
1912년~1913년	아버지가 북미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집에서 여러 책임을 맡아 일함.
1914년~1919년	아이다호 프레스턴 소재의 오네이다 스테이크 학교에서 수학하고 졸업함.
1918년	휘트니 소재 와드에서 보이 스카우트 부대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음.
1920년	아내가 될 플로라 스미스 아무센을 만남.
1921년	유타 로건에 있는 유타 농업 대학(현재 유타 주립 대학교) 입학.
1921년 7월 13일	아버지를 통해 장로로 성임됨.
1921년 7월 15일~ 1923년 11월 2일	영국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함.
1924년 8월 25일~1926년 6월	플로라가 하와이 제도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함.
1924년 가을	형제인 오벌과 함께 휘트니에 있는 가족 농장을 구입함.
1926년 봄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
1926년 9월 10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플로라와 결혼함.
1926년 9월~1927년 6월	아이오와 주립 농산업 대학(현재 아이다호 주립 과학 기술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농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함.

역사적 사건 요약

1927년 6월	휘트니에 있는 가족 농장으로 돌아감.
1929년	아이다호 프랭클린 카운티의 카운티 농사 고문으로 취임. 농장을 떠나 가까이에 있는 아이다호 프레스턴으로 이사함.
1930년~1939년	아이다호 대학교 사회 교육원 분과 농업 경제학자 및 전문가로 고용됨.
1935년 1월~1938년 11월	보이시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함.
1938년 11월~1939년 3월	보이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함.
1939년~1943년	메릴랜드 베데스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워싱턴디시 소재 농민 협동조합 중앙회 사무국장으로 일함.
1940년 6월	워싱턴디시 소재 워싱턴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음.
1943년 7월 26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음.
1943년 10월 7일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에게서 사도로 성임받고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성별됨.
1946년 1월~1946년 12월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며 제2차 세계 대전의 참상을 겪은 후기 성도들에게 현세적 및 영적 지원을 하기 위해 봉사함.
1946년 7월 16일	복음 전파를 위해 핀란드를 헌납함.
1953년 1월~1961년 1월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각에서 미국 농무부 장관으로 재임함.
1964년 1월~1965년 9월	다시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함.
1966년 11월 10일	복음 전파를 위해 이탈리아를 재헌납함.
1969년 4월 14일	복음 전파를 위해 싱가포르를 헌납함.
1969년 10월 26일	복음 전파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헌납함.
1973년 12월 30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됨.
1985년 11월 10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성별됨.

- 1986년 10월 24일 콜로라도 덴버 성전을 헌납함.
- 1987년 8월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을 헌납함.(그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9개의 성전이 헌납되었다.)
- 1988년 10월 2일 마지막으로 연차 대회에서 직접 말씀을 전함. (1988년 10월 이후로는 신체적으로 쇠약해진 탓에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이 대신해서 말씀을 낭독하거나 이전 말씀에서 전한 메시지를 인용했다.)
- 1992년 8월 14일 아내인 플로라의 죽음을 애도함.
- 1994년 5월 30일 95번째 생일을 약 두 달 남겨 두고 유타 솔트레이크시티의 자택에서 서거함.



아기 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1900년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와 성역

유타 주 로건과 아이다호 주 휘트니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달리던 여행자들은 1994년 6월 4일, 평소와는 다른 광경을 보게 되었다. 쪽 뺨은 39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따라 수많은 인파가 도열해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은 장례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날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장례식을 마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시신이 그의 고향까지 운구되는 날이었던 것이다. 헤일즈 장로는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이다호 휘트니까지 가는 운구 행렬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바치는 가슴 뭉클한 헌사였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간선도로에 줄지어 서서 그곳을 지나는 운구 행렬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음에도 일요일에 입는 정장을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존경의 표시로 차를 잠시 세우고 경건하게 서서 선지자의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농부들도 들에 서서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슴뭉클한 것은 야구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며 경의를 표한 어린 소년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지나가자 깃발마저도 바람에 휘날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우리는 벤슨 회장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팻말도 보였고, ‘물론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적힌 팻말도 있었습니다.”¹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애정의 표시는 참으로 고인에게 바치는 조의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한 선지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였다. 간선도로를 따라 모인 인파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었다. 휘트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묻힐 때까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봉사하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도왔다.

가족 농장에서 배운 교훈

1899년 8월 4일, 사라 덩클리 벤슨과 조지 태프트 벤슨 이세는 첫 자녀를 기쁘게 맞이했다.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아기의 증조부이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기도 했던 에즈라 티 벤슨의 이름을 따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으로 지었다.

에즈라는 자신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버지가 직접 지은 방 두 칸짜리 농가에서 태어났다. 출산 과정이 워낙 길고 난산이었기에, 의사는 5.3킬로그램인 이 아기가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아기의 할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은 납작한 냄비 두 개를 가져다가 한쪽에는 미지근한 물을, 다른 한쪽에는 찬 물을 채워서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갓 태어난 손자를 양쪽 냄비에 번갈아가며 담갔다 뺐다를 반복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티(T)”라고 불렸던 어린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자기가 태어난 집을 둘러싼 농장에서 충실하면서도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벤슨 회장과 함께 거의 33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던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어린 에즈라가 배웠던 교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험령한 작업복 차림을 하고, 어린 나이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는 수확의 법칙을 배웠으며, 햇볕에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말 그대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흉작 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무성한 잡초만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확을 하려면 실재 없이 계속 일해야만 했습니다. 가을에도 봄에도 쟁기질을 했고, 튼튼한 말들 뒤에서 온종일 고랑 사이를 걸어다니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손 쟁기를 사용했는데, 날카로운 쟁기 끝이 땅을 간 뒤에 흙이 그 위를 뒤덮으면 손잡이가 비틀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손잡이를 계속 굳게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소년은 기진맥진해서 그대로 툴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또 금세 밝아 왔습니다.

말을 이끌고 나가 씨레로 밭을 고르고 흙덩어리를 부수고 못자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파종은 몹시 힘든 일이었고 등이 빠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물을 대야 했습니다. 벤슨 농장은 땅이 건조해서 관개수로를 통해 물을 댔습니다.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계속 물이 잘 흐르는지 지켜야 했습니다. 전등이나 가스등도 없었습니다. 약하고 희미한 노란 불빛을 내는 등유 등뿐이었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이랑 끝까지 물이 충분히 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소년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린 소년이 어깨에 삼을 메고 도랑과 밭을 걸으며 바깥 마른 흙에 생명을 불어넣을 물을 끌어다 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그 넓은 밭에 김을 매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여러 마리의 소에 풀 베는 기계를 달아 소년이 낡은 철 좌석에 올라앉으면, 소들은 풀을 베는 기계를 끌고, 기계는 앞뒤로 움직이며, 1.5미터 정도 되는 구획들을 하나씩 풀을 베어 나갑니다. 파리와 모기에 시달리면서, 먼지와 뜨거운 열기를 뒤집어쓰며 일하는 것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건초를 갈퀴로 긁어 모으고, 손 갈퀴로 펼쳐 말려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조절이 중요했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건초 작업대로 쓰는 널따란 마차에 건초를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야적장에서 말이 끌어 올리는 기중기 같은 것으로 마차에서 건초를 들어 올려 엄청난 높이까지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발을 만들거나 적재하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근육과 쇠스랑뿐이었습니다.

…… 당연히 소년은 골격이 커지고 신체가 강건해졌습니다. 훗날 그분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분의 손목 굽기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기초를 튼튼히 다져 놓은 건강 상태는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제외하고는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래로 내내 그분은 대통령과 왕들과 걸을 때에도 농장에서 보낸 소년 시절에 얻었던 것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일하는 능력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의지를 결코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시절에,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해내는 습관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집에서 배웠습니다. 흙에는 분명히 어떤 힘이 존재했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이브가 받은 좌우명을 그분은 늘 기억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세기 3:19) 흙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립의 정신이 몸에 뱉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농업 프로그램도 없었고, 어떤 종류의 보조금도 없었습니다. 계절의 번덕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된서리와 때아닌 폭풍우, 바람, 가뭄 같은 것을 모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황해질 시기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야 했습니다. 생명이 위협할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도, 즉 영원하고 사랑 충만하신 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다호 휘트니에 있는 그 작은 집에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분은 아침과 저녁에 가족 기도를 드리면서 어려움과 기회가 공존하는 생활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간구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했으며, 가족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어머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할 음식을 마차에 싣고 마차를 모는 일을 장남에게 부탁했습니다. 결코 잊히지 않을 가르침들이었습니다.”²

충실한 부모님에게서 배운 교훈

근면과 가족의 단합, 봉사, 복음 생활 등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에즈라가 열두 살 때, 부모님이 교회 모임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고 돌아오신 그날부터 더욱더 확장되기 시작했다. 벤슨 회장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마차를 모는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는 우편물을 열어 보셨는데, 그것은 솔트레이크시티의 박스 비(Box B)에서 온 선교사 부름장이었습니다. 두 분은 무척 놀라셨습니다. 아버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꺼이 갈 용의가 있는지, 갈 수 있는지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독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조지 티 벤슨 감독님은 바로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당으로 마차를 몰고 들어오시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형제자매는 일곱 명이었는데, 저희 모두는 마차 주위로 모여들어 무슨 일인지 여쭙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데 왜 우세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너라, 설명을 해 주마.’

우리는 거실의 낮은 소파 주변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선교사 부름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선교사로 나가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기쁘단다. 우리가 조금 울었던 건 선교 사업 2년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너희도 알겠지만, 아버지와 나는 결혼한 이후로 이틀 밤 이상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단다. 이틀 밤을 떨어져서 보낸 것은 아버지가 통나무와 기둥, 장작을 구하려고 계곡에 가셨을 때뿐이었지.’”³

부친이 선교 사업을 나가자 가족 농장을 이끌기 위해 에즈라가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른이 하는 일을 했[는데]”, 여동생인 마가렛은 훗날 “오빠는 거의 2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해 주었어요.”⁴ 하고 말했다. 어머니의 인도 아래 에즈라와 그의 형제자매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읽었다. 75년 뒤에 벤슨 회장은 부친이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가족이 받게 된 축복을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 부친이 그런 부름을 받아들인 것만 두고 이는 진실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곱 자녀와 임신 중인 아내를 집에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어떻게 참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더 심오한 관점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28)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 몇 년 동안 아버지가 몹시 그리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에게 많은 시련이 닥쳐 왔지만, 그 부름을 받아들인 것은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일곱 자녀와 함께 집에 두고 선교 사업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임지에 도착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여덟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는 선교 사업의 영이 깃들었고, 그 영은 결코 저희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선교사 기금을 대기 위해 우리의 오래되고 건조한 농장을 파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부부에게 저희 집에 머물면서 농작물 일부를 돌보게 해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여러 아들과 아내에게 건조밭과 목축지, 몇 마리 안 되는 소들을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정말로 저희 가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어린 저희들은 그 편지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것만 같았지만, 사실 편지는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와 시카고 및 아이오아 주 시다래피즈와 마살타운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선교 사업을 하신 결과 저희 집에는 선교 사업의 영이 들어왔으며, 그 영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희 가족은 7남 4녀로, 즉 아이가 열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일곱 아들은 모두 선교 사업을 완수했으며, 그중 몇 사람은 선교 사업을 두 번 또는 세 번을 했습니다. 나중에 두 딸은 남편과 함께 전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다

른 두 딸은 모두 남편을 여의었으며, 각각 자녀가 여덟 명, 열 명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동반자가 되어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삼사 대에 걸쳐 벤슨 가족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⁵

교회에서 봉사하던 청년 시절

부모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았기에, 또한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도우려는 본인의 뜻에 따라 에즈라 테프트 벤슨은 봉사 부름을 의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열아홉 살이 되자, 감독이었던 그의 조부는 와드에 있는 24명의 청남을 위한 성인 지도자로 봉사할 것을 그에게 요청했다. 그 청남들은 미국 보이 스카우트에 참여했고, 에즈라는 스카우트 단장 보조로 봉사했다.

이 부름에서 에즈라가 맡은 많은 책임 가운데 하나는 청남들이 합창단에서 노래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의 지도 아래 청남들은 스테이크 내의 다른 와드 합창단들과 경합한 합창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지역 경연대회에까지 나가게 되었다. 청남들이 연습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에즈라는 청남들이 지역 경연대회에서 이기면 산맥 너머 호수까지 56킬로미터가 넘는 하이킹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휘트니에서 온 그 청남들은 결국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 계획은 실행되었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하이킹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열두 살 소년이 손을 들더니 아주 그럴싸하게 ‘……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어떤 거죠?’ 하고 묻자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번 여행에 귀찮게 머리 빗이나 브러시를 갖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청남이 하이킹을 가기 전에 머리를 짧게 자르는 데 동의했다. 한 청남이 스카우트 단장들도 같이 머리를 자르자고 제안하자 청남들은 더 환호했다. 벤슨 회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이발사는 이발기를 들고서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은 스카우트 단장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아주 기분 좋게 잘랐습니다. 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발사가 ‘두 분이 머리를 완전히 미신다면, 공짜로 해 드리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짧게 깎은 소년 24명과 완전히 머리를 민 스카우트 단장 두 명은 하이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와드에서 청남들과 했던 경험을 뒤돌아보면서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소년들과 함께 일할 때 느끼는 기쁨 중 하나는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매일 지도력을 행사한 결과가 어떠한지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강건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도전과 책임을 어떻게 열심히 받아들이는지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족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것으로, 오로지 봉사 와 헌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들이 어른으로, 진정한 어른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일에서 작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⁶

벤슨 회장은 그 청남들을 언제까지나 기억했으며, 계속 연락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56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이킹을 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되어 휘트니 와드를 방문했고, 그 청남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24명의 소년 중 22명이 교회에 충실하게 남아 있었다. 나머지 두 사람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벤슨 회장은 결국 그 두 사람을 찾아냈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 활동화되도록 도와주었으며, 그들의 성전 인봉을 집행했다.⁷

플로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

1920년 가을, 에즈라는 휘트니에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유타 로건으로 가서 유타 농과 대학(지금의 유타 주립 대학교)에 입학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숙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낙농장 근처에 있을 때, 작은 차를 몰고 우유를 사러 낙농장으로 가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남자들이 손을 흔들자 그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저 아가씨는 누구지?’ 하고 묻자, 친구들은 ‘플로라 아무센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야, 저 여자와 결혼할 거라는 느낌을 방금 받았어.’”

친구들은 그 말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플로라는 시골 소년을 만나기엔 인기가 너무 많아.” 그러나 그는 단념하지 않고 “그렇다면 더 기대되는걸.” 하고 대답했다.



플로라 아무센, 에즈라 테프트 벤슨과 결혼하기 전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플로라와 에즈라는 휘트니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된다. 플로라는 에즈라의 사촌 중 한 사람의 초대로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곧이어 에즈라는 그녀를 댄스 파티에 초대했다. 그녀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데이트를 더 하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멋진 연애 시절”이라 이름 붙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에즈라가 영국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으면서 그들의 구애는 중단되었는데,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끈끈하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에즈라가 선교 사업을 준비할 때, 두 사람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우정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에즈라가 헌신적인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떠나기 전에 플로라와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편지에 격려와 자신감, 소식만 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⁸

두 선교사

영국 선교부는 초기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많은 결실을 얻은 텃밭이 되어 주었으나 벤스 장로와 그의 동반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목사들을 비롯하여 영국 전역에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후기 성도들을 향해 광범위한 증오심을 부추기며 물문에 반대하는 기사와 소설을 쓰고, 연극, 영화를 만들었다. 회복된 복음을 향한 이런 신랄한 감정들에 벤스 장로는 분명히 슬펐겠지만, 그런 시련으로 신앙이 약해지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는 일지에 자신과 동반자들에게 “물문들아!” 하고 소리치며 악을 올리는 그곳 청소년에 관해 기록했는데, 그럴 때 그는 소리 없이 이렇게 답했다. “주님, 제가 물문이어서 감사합니다.”⁹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 외에도 벤스 장로는 영국의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신권 지도자와 서기로 봉사했다. 이런 다양한 봉사는 그가 자주 부딪혀야 했던 어려움과는 확연하게 대조되는 행복한 경험으로 이어졌다. 벤스 장로는 몇몇 사람에게 침례와 확인 의식을 베풀었으며, 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도와주었다. 그 예로, 벤스 장로는 충실한 회원들이 준비한 특별 모임에서 영의 인도에 따라 말씀을 전함으로써 회원의 친구들이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간증을 얻도록 도왔다.¹⁰ 또한 동반자와 함께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성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는데, 약 10분 뒤에 그 여성이 회복되었다고도 기록했다.¹¹ 서기로 봉사했던 그는 교회 기록에 이름은 있지만 현지 지도자들이 찾지 못했던 성도들을 찾았을 때, 기쁨을 느꼈다.¹² 그는 선교부 회장이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와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의 지도 아래 봉사하면서 귀중한 지도력 훈련을 받았다.

벤스 장로는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해했다. 어느 날 밤, 난폭한 남자들이 그와 동반자를 에워싸며 강물에 던져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도움을 간구했다. 그때, “한 우람한 낯선 사람이 폭도 사이를 뚫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우렁차고 분명한 목소리로 ‘젊은 양반, 나는 당신이 오늘 밤에 한 말을 믿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저를 둘러쌌던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제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 뒤에 영국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¹³

사람들을 위한 활동적인 봉사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물문경을, 특히 모사 이야 아들들의 선교사 경험을 몰입해서 계속 공부해 나갔다.”¹⁴ 또한 집에서 오는 편지를 통해 위안과 격려를 받았으며,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고 그는 말했다. 선교 사업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주셨고, 청년이었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플로라의 [편지도] 격려와 영적인 내용으로 가득했고, 감상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그녀에 대한 제 사랑과 고마움을 키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¹⁵

벤슨 장로는 1923년 11월 2일에 전임 선교사 봉사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는 영국에 있는 “사랑하는 훌륭한 성도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은 “[그의] 선교 사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 떠나고 싶지 않았다.¹⁶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행복했고, 또 플로라가 보고 싶었다.

플로라 역시 에즈라가 그리웠다. 그러나 그녀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긴 안목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앞날을, 즉 그의 미래와 잠재력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십 대 시절부터 “농부와 결혼하고”¹⁷ 싶다는 소망을 간직해 왔으며, 에즈라가 아이다호 휘트니에 있는 가족 농장에 정착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에 행복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학업을 먼저 마쳐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이 이웃에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감독님이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선교사로 부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에즈라는 교회를 우선시하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¹⁸

에즈라와 플로라의 연애가 다시 시작된 뒤에, 그녀가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수락했다고 말하자 에즈라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1924년 8월 25일에 성별을 받고 다음 날 떠났다. 그녀가 떠난 직후에 에즈라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두 사람은 우리 앞에 많은 미래가 남아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나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희망이 깨지는 것을 보는 것은 힘들다. 그 문제로 우리는 울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은 더 큰 것을 위한 것이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도 받았다.”¹⁹

그것은 정말 모두가 잘 되는 길이었다. 플로라의 선교부 회장은 그녀가 “아주 훌륭하고 열정이 넘치는 선교사[였으며]”²⁰ “주님의 사업을 위해 마음과 영

혼, 시간과 재능을”²¹을 다 바쳤다고 말했다. 플로라는 임시에서 초등학교 조직을 이끌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성전에서 봉사하고, 현지의 후기 성도들을 강화하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또한 그녀의 어머니 바바라 아무센이 남편과 사별하고 단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어머니와 동반자가 되어 봉사하기도 했다. 함께 동반자가 된 두 사람은 플로라의 아버지인 칼 아무센의 노력으로 미국에서 오래 전에 교회에 들어왔던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이 개종자는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플로라와 어머니는 그와 우정을 나누며 그를 도와주었고, 결국 그는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²²

플로라가 선교 사업을 간 뒤에 에즈라는 계속 바쁘게 지냈다. 그와 동생인 오벌은 가족 농장을 구매했고 두 사람 다 학업을 계속했다. 에즈라가 유타 프로보의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닐 동안 오벌은 휘트니에 남아 농장을 돌봤다. 에즈라가 학업을 끝내면 농장으로 돌아오고, 오벌은 선교 사업을 나간 후 귀환하여 학업을 마치는 계획이었다.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조기 졸업하기로 마음 먹은 에즈라는 야심에 찬 수강 일정을 추진했다. 또 그러면서도 대학교에서 춤과 파티, 연극 활동 같은 사교 활동에도 빠지지 않았다.

4학년 때 에즈라는 “브리검 영 대학교 최고 인기 남학생”으로 뽑히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플로라에게 준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플로라가 1926년 6월에 선교 사업을 마쳤을 때, 에즈라는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훗날 고백했다.²³ 그는 플로라가 귀환하기 몇 달 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다.

함께 삶을 시작하며

플로라가 귀환하고 한 달 뒤에 두 사람은 약혼을 발표했다. 어떤 사람들은 플로라의 판단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다. 재능이 많고 부유한데다 인기도 많은 그녀가 왜 농촌 총각에 만족해하는지를 다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늘 농부와 결혼하고 싶었다”²⁴고 답했다. 그녀는 에즈라를 “현실적이고 현명하며 건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또 “에즈라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인데,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한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해 줄 것”²⁵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에즈라가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며 “이 작은 고장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그가 좋은 사람임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²⁶고 말했다.

플로라와 에즈라는 1926년 9월 1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를 통해 인봉되었다. 결혼 후에 있었던 축하연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든 것이 전부였다. 아침 식사 후에 신혼 부부는 곧바로 포드사에서 만든 티형 소형 트럭을 타고 아이오와 주 에임즈를 향해 떠났다. 그곳에서 에즈라는 아이오와 농업 및 기계 주립대학(현 아이오와 과학기술 주립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 공부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행 대부분은 울퉁불퉁한 흙길을 헤치며, 인적이 드문 시골 지역을 지나야 했다. 여행 중에 두 사람은 구멍이 난 천막에서 8일 밤을 보냈다. 에임즈에 도착한 후, 대학 교정에서 한 구역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빌렸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은 우글거리는 바퀴벌레들과 함께 살았지만, 에즈라는 그 집이 “금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아늑한 작은 별장같이 보이기 시작했다.”²⁷고 말했다. 에즈라는 다시 교육을 받는 데 전념했다.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논문을 쓰면서 많은 시간을 학업에 전념한 결과, 그는 1년도 안 되어 석사 학위를 획득하고 졸업할 수 있었다. 첫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무렵에 이 부부는 휘트니에 있는 벤슨 농장으로 돌아왔다.

일과 교회 부름 사이에서의 균형 잡힌 생활

휘트니로 돌아온 다음부터 에즈라는 우유를 짜고, 돼지와 닭을 키우고, 사탕무와 곡식, 알팔파와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장 운영에 하루하루를 다 바쳤다. 오벌은 덴마크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지방 정부 지도자들은 에즈라에게 카운티 농업 지도원 자리를 제안했다. 농장을 떠나 인근의 프레스턴으로 이사해야 했지만, 에즈라는 플로라의 격려 속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오벌이 돌아올 때까지 농장을 맡아 줄 인근의 농부를 고용했다.

벤슨 회장의 새로운 책임에는 현지 농부들에게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농부들에게 더 나은 마케팅 기법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것은 대공황이 시작된 이후로 점차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던 부분으로, 그는 농업경제학을 공부한데다 그런 정보를 제공할 만한 직책에 있기도 했다. 벤슨 회장은 농부들에게 생산 비용을 낮추고 노동력 투자 대비 높은 수입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 참여를 장려했다.²⁸



에즈라 태프트 벤슨, 1926년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 당시

그가 농업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이자 그에게 다른 직책들이 제안되기 시작했다. 1930년부터 1939년까지 그는 아이다호 주의 주도인 보이시의 아이다호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농업 경제학자이자 전문가로 재직했다. 하지만 1936년 8월부터 1937년 6월까지의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하면서 그 직책을 잠시 그만두었다.

직장과 가정에서 밀려드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에즈라와 플로라는 시간을 내어 교회에서 봉사했다. 휘트니와 프레스턴 보이시에서 두 사람은 청소년을 가르치고 이끌도록 부름받았다.²⁹ 그들은 “청소년이 곧 우리의 미래”³⁰라는 믿음으로 그 부름을 열정적으로 수행했다. 에즈라는 또한 현지의 선교 사업을 도왔다.³¹ 보이시에서 에즈라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부름을 받았으며, 가족과 캘리포니아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그 직책을 유지했다. 보이시 스테이크는 급성장을 했고, 1938년 11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스테이크를 세 곳으로 분리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그중 한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1939년 1월, 에즈라는 워싱턴디시에 있는 농업 협동조합 전국 협의회와 사무국장 직책을 제의받게 된다. 그는 이 문제를 플로라와 상의했다. 두 달 전에 스테이크 회장으로 성별되었기에 그는 제일회장단에게도 연락해서 조언을 구했다. 제일회장단은 직책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고, 1939년 3월, 그는 보이시에 있는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가족과 함께 워싱턴디시에서 가까운 메릴랜드 베데스다로 이사했다. 1940년 6월에 그는 다시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워싱턴디시에 새로 조직된 워싱턴 스테이크였다.

사랑으로 단합된 가족

에즈라와 플로라 벤슨은 배우자로서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 연로한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맺는 관계의 영원한 중요성을 늘 기억했다. 가족의 단합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의무감 이상의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이생과 영원한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싶었다.

교회 부름과 직장에서 맡은 많은 책임으로 에즈라는 자주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종종 어린 자녀들은 그러한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어느 일요일에 그가 교회 모임 때문에 집을 나서려 할 때 딸 바바라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안녕히 가세요, 아빠. 다음에 또 오세요.”³²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 플로라는 혼자 여섯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고, “외롭고 또 조금은 낙담할” 때도 가끔 있었다.³³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뎌 냈고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남편이 주님과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뻐했다. 에즈라에게 보낸 편지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늘 그렇듯 당신이 떠난 뒤에 보낸 그 며칠은 마치 몇 달 같았어요. ……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종교를 사랑하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슬픔과 고통은 거의 없을 거예요. …… 당신은 언제나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³⁴

에즈라는 집에 있을 때 언제나 그런 헌신을 보여 주었다. 그는 시간을 내어 여섯 자녀들과 웃고, 함께 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고, 집안에서 가사일을 돕고, 각 자녀와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단합된 사랑 속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에게는 가족이 매우 중요했기에 본 교재는 가족에 대한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두 장에 걸쳐 다루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가족”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성스러운 부름”이라는 부분에는 벤슨 부부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다정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사도로 부름받다

1943년 여름, 에즈라는 아들 리드를 데리고 메릴랜드를 떠나 농업 협동조합 전국 협의회에서 맡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여러 농업 협동조합 순방에 나섰다. 또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아아다호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할 계획도 세웠다.

출장 업무를 다 마친 7월 26일, 그들은 고향으로 가기 전에 솔트레이크시티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을 만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았지만, 맥케이 회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에즈라는 맥케이 회장에게 전화했고, 맥케이 회장은 당시 교회 회장인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에즈라와 리드는 솔트레이크시티 시내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그랜트 회장의 여름 주택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에즈라는 즉시 그랜트 회장의 침실로 찾아갔다. 연로한 선지자는 그곳에서 쉬고 있었다. 회장의 지시로 에즈라는 문을 닫고 그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랜트 회장은 그의 두 손으로 에즈라의 오른손을 잡고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벤슨 형제님, 온 마음을 다해 나는 형제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형제님과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형제님은 십이사도 평의회에 최연소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³⁵

일지에 에즈라는 그 경험을 이렇게 적었다.

“회장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나는 완전히 당황했다. …… 몇 분 동안 [나는] 이 말만 되풀이했다. ‘아, 그랜트 회장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깨달을 만큼 마음이 차분해지기까지 나는 그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분은 내 손을 잡고 계셨다. …… 한 시간 정도 우리는 둘만 있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따뜻하게 손을 맞잡고 있었다. [비록 그분은] 연약하셨으나 정신은 맑고 분명했으며, 나는 그분이 내 영혼을 꿰뚫는 것처럼 바라보실 때 그 따뜻하고 친절하며 겸손한 영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합당하지 않았기에 그분의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 정말 감사했다. 그분이 하신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힘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지도자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하기는 하지만 교회를 사랑해 왔다고 말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을 원하십니다.’”³⁶

이렇게 접견을 끝내고 에즈라와 리드는 맥케이 회장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 가는 길에 에즈라는 그랜트 회장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리드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맥케이 회장 집에 도착하자 맥케이 회장은 직접 리드에게 이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설명이 끝난 후, 에즈라와 리드는 서로를 껴안았다.

에즈라와 리드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고, 에즈라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플로라에게 전화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무척 기뻐하면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하니 안심이 조금 되었습니다. 아내는 늘 저 자신보다도 저에 대해 더 많은 믿음을 보여 주는 사람이었습니다.”³⁷

그 후 몇 주에 걸쳐서 에즈라와 플로라는 유타 주로 이사할 준비를 했고, 에즈라는 농업 협동조합 전국 협의회 업무를 후임자에게 원만하게 인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943년 10월 1일, 그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과 더불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를 받았으며, 10월 7일에는 사도에 성임되었는데, 김볼 장로가 먼저 성임되었다.

이렇게 하여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의 한 사람으로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성역이 시작되었다.

전후 유럽에 식품과 의류, 희망을 전하다

1945년 12월 22일, 당시 교회 회장인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특별 합동 모임을 소집했다. 스미스 회장은 제일회장단이 한 사도를 보내 유럽 선교부를 감리하고 그곳의 교회 활동을 감독하게 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쟁으로 입은 엄청난 파괴에 대해 복구 작업을 막 시작한 때였다. 제일회장단은 그 일을 할 책임자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라고 느꼈다.

이 소식은 이제 갓 정원회에 들어온데다 최연소 회원이기까지 한 벤슨 장로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34년 전, 아버지의 선교사 부름처럼 이 임무를 맡으면, 아직 자녀들이 어린데도 가정을 떠나 있어야 했다. 제일회장단은 기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1950년 10월부터 1951년 4월 사이의 어느 시점). 뒷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헨리 디 모일, 매튜 카울리, 마크 이 피터슨, 해롤드 비리, 에즈라 태프트 벤슨, 스펜서 더블유 김볼. 앞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존 에이 윗소, 스티븐 엘 리차즈, 데이비드 오 맥케이(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조셉 필딩 스미스(회장 대리), 조셉 에프 메릴, 앨버트 이 보웬.

을 확정해 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흔쾌히 봉사하겠다고 대답했다.³⁸ 그는 그 임무를 받아들였던 상황을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부담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분들(제일회장단)은 네 가지 목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유럽에서 교회의 영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가용 식품, 의류, 침구를 유럽 각지에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유럽의 여러 선교부를 다시 조직하는 일을 지휘하는 것이었고, 넷째는 각국에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³⁹ 스미스 회장은 그에게 위로가 될 약속을 주었다. “형제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이 스스로를 잘 보살피면,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도 안전하게 지낼 것이며,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⁴⁰

벤슨 장로는 아내와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내와 행복하고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눈물로 정화된 플로라는 애정 어린 감사를 표하면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지지를 보내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깜짝 놀라고 흥미로워하면서 완전한 지지를 보여 주었습니다.”⁴¹

유럽에 도착한 벤슨 장로와 그의 동반자 프레데릭 더블유 바벨은 도처에 널린 질병과 빈곤, 폐허에 슬픔을 느꼈다. 그 예로, 벤슨 장로는 플로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누와 바늘, 실, 오렌지를 선물로 받고 고마워하는 어머니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그런 물건을 구경도 못해 온 터였다. 벤슨 장로는 그들이 그때까지 배급받은 형편없는 비상 식량으로 “아사 지경에서도 진정한 모성애로 자녀를 더 먹이려 하는 것”⁴²을 보았다. 그는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로” 진행된 교회 모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⁴³ 또한 “가난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영혼들, …… 예전의 행복했던 집을 잃고 정처없이 쫓겨난” 난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⁴⁴ 그리고 그는 전쟁의 참혹한 결과 속에서 피어난 기적에 대해 말했다.

그 기적은 유럽 전역의 후기 성도들의 생활로 입증되었다. 유럽으로 가는 길에 벤슨 장로는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비통함으로 가득할까? 증오하지는 않을까?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을까?” 하지만 그가 본 광경은 오히려 그에게 힘을 주었다.

“성도들의 얼굴은 야위고, 창백하고, 말랐으며, 많은 사람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위대한 후기의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하고, 주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할 때, 저는 그들의 눈에서 신앙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우리는 성도들이 기적적으로 생활을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강했고, 헌신이 더 커졌고, 충실성은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설령 괴로움이나 절망이 있다 해도 아주 작았습니다. 한 선교부에서 다른 선교부로 동료애와 형제애가 확대되었고, 길을 떠나는 저희에게 성도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비록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교전을 벌이던 나라였음에도 말입니다.” 난민들마저도

“열렬하게 시온의 노래를 불렀으며” 아침저녁으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복음의 축복에 대해 …… 간증했습니다.”⁴⁵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힘을 통해서도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났다. 10년 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많은 후기 성도들의 목숨을 구했다. 복지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도들은 축복을 받았다. 그들은 식품과 의류와 다른 필요한 것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돕고,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 뜰에서 작물을 키우기도 했다. 또한 세상의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약 2,000톤이나 되는 구호물자를 기증하면서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 벤슨 장로는 현지 회원들에게 나눠 줄 기초 식품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옷을 입은 사람이 80퍼센트에 달했던 어느 회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⁴⁶ 집으로 돌아온 후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것이 영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영감받은 프로그램입니다!”⁴⁷

벤슨 장로와 바벨 형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들을 다닐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던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다. 벤슨 장로는 군 관계자들에게 특정 지역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직접 만나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관계자들에게서 “여기가 전장이었다는 것을 모릅니까? 민간인 출입은 불가합니다.”라는 한결같은 대답만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몇 번이고 계속해서 군 관계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 일의 목적을 설명한 결과, 벤슨 장로와 바벨 형제는 출입 허가를 받아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명하신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⁴⁸

약 11개월 후에 벤슨 장로는 십이사도 보조인 엘마 손 장로와 임무를 교대했으며, 손 장로는 아내 레오나와 함께 유럽에서 봉사했다. 바벨 형제는 계속 남아 손 장로 부부를 도왔다. 1946년 1월 29일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나 1946년 12월 13일에 돌아올 때까지 벤슨 장로는 총 98,550킬로미터를 여행했다. 벤슨 장로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느꼈지만, 이런 말도 잊지 않았다. “우리가 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을 저는 압니다. 전능하신 이의 인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와 동료들은 한시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⁴⁹ 이 임무의 성공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교회의 힘이 새롭게 조직되고 확대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여러 해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복지 물자를 살피보는 벤슨 장로(오른쪽)

뒤에 독일 츠비카우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찾아온 한 남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성공은 또한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몬슨 회장을 찾아가 자신의 안부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그분이 저를 살렸어요. 저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셨지요. 희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⁵⁰

미국 정부에서 보여 준 애국심, 정치력, 헌신

집과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벤슨 장로는 청소년 시절부터 소중히 간직해 온 것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것은 미국의 시민정신이였다. 아버지인 조지 태프트 벤슨 이세에게서 그는 조국과 국가의 토대가 되는 원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미국 법률을 규정하는 문서, 즉 미 헌법은 영감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배웠다. 그는 투표권을 소중히 여겼으며, 선거가 끝난 후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늘 기억했다. 조지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는데, 그는 가족 기도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그 후보가 선거에서 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에즈라는 아버지가 당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에즈라는 지지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위해 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여쭙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들아, 내가 지지한 후보보다도 당선된 그 사람에게 내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⁵¹

1948년 4월, 벤슨 장로는 미국에 주어진 “예언적 사명” 및 자유의 중요성을 주제로 여러 차례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이 처음으로 그 주제를 다룬 날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자유 의 요람으로서” 미국을 준비하셨기에 그곳에서 복음이 회복될 수 있었음을 간증했다.⁵² 말씀 말미에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평강의 왕을 따르는 우리는 진리와 의로움을 전파하고 자유를 보존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시 헌납해야 합니다.”⁵³ 그 뒤 여러 설교를 통해 그는 “이 후기에” 미국이 “주님의 운영 기지”⁵⁴로 쓰인다고 말했다.

벤슨 장로는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했다. “영원한 원리와는 반대로” 운영되는 “인간이 만든 강압적인 [정부] 체제”⁵⁵에 대해 자주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부도덕한 오락과 안식일에 대한 존중심 부족, 현실 안주, 그릇된 가르침을 비롯하여 자유를 위협하는 기타 영향력에 대해 경고했다.⁵⁶ 그는 세계 곳곳의 후기 성도에게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지혜롭고 좋은 사람들이 공직에 선출되도록 힘쓸 것을 장려했다.⁵⁷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자유의 분위기 안에서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자유를 말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⁵⁸

1952년 11월 24일, 벤슨 장로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제의를 받게 되면서 그 동안 애국과 관련해서 전했던 그의 강력한 발언들을 증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 선출된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의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는 벤슨 장로를 그의 내각에서 전국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지명하여 자신의 최측근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벤슨 장로는 그런 관심을 기쁘게 여겼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 직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제 생각에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런 시기에 농무부 장관 자리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 자리가 서로 인신 공격을 퍼붓고, 엄청난 압력과 복잡한 문제들이 따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제가 염려한 것은 그런 문제와 압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미국인처럼 저도 정치에 깊이 관여하기가 싫었습니다. 저 역시 이상이 높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선출되고 임명되어 정부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제가 전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저는 십이사도 평의회 의 일원으로서 이미 하고 있는 일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 어떤 변화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⁵⁹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벤슨 장로는 당시 교회 회장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답했다. “벤슨 형제님, 이 일에 대한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올바른 의도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형제님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⁶⁰ 이런 직접적인 조언은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 효과적으로 싸우고” 싶다는 벤슨 장로의 근본적인 소망과 합쳐져 그가 “내적인 갈등”이라 이름 붙인 상황을 야기했다.⁶¹

벤슨 장로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농무부 장관 직책을 제의했다. 벤슨 장로가 자신이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들을 즉시 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통령 후보로 추대될 때, 저도 대통령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 팀에서 일하기를 바라며, 당신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⁶²

벤슨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이 조언했던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정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예를 이미 교회에서 받은 상태였고, 그런 의견을 당선자에게 말하기는 했으나, 적어도 2년간은, 대통령이 그렇게 오래 저를 돌지는 모르겠지만, 농무부 장관으로서 봉사할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⁶³

직책을 받아들인 즉시 벤슨 장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갔고, 그의 임명 소식이 전국에 알려졌다. 회견이 끝나자마자 그는 호텔로 돌아와 플로라에게 전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함께 일할 것을 제의했으며, 이를 받아들였다고 알렸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제의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수락할 것도 알았죠.”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건 정말 막중한 책임이요. 우리 두 사람에게 큰 문제가 많이 생길 것어요.”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⁶⁴

벤슨 장로가 예상했듯이, 농무부 장관의 업무는 그와 그 가족에게는 떠들썩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인기 경연 대회에서 이기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저 “농업을 위해, 또 미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으며]”⁶⁵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소신대로 행했다. “좋은 전략이란, 인기가 없더라도 옳은 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인기가 없는 때일수록 나는 그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⁶⁶ 그가 인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가 자신의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는 동안 정치인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그의 지지도는 위아래로 크게 요동쳤다. 사람들이 그가 농무부 장관직에서 쫓겨나길 바랄 때도 있었고⁶⁷ 그를 미국 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올 때도 있었다.⁶⁸

정부 지도자로 일하면서도 벤슨 장로는 자신의 기독교적인 이상과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농무부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했다.⁶⁹ 그는 미국의 운명에 대해 물문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절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훗날 대통령은 “큰 관심을 갖고” 그 구절을 읽어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⁷⁰ 그는 물문경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⁷¹ 1954년,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뉴스 기자인 에드워드 알 머로우는 벤슨 장로에게 “퍼슨 투 퍼슨(Person to Person)”이라는 금요일 저녁 프로그램에 가족과 함께 출연할 것을 제의했다. 벤슨 장로와 자매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것이 좋은 선교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아들 리드의 의견에 따라 출연에 동의했다. 1954년 9월 24일, 온 국민이 벤슨 가정에서 예행 연습 없이 진행된 가정의 밤을 생방송으로 시청했다. 그 방송 이후, 머로우 기자는 시청자들로부터 다른 때보다 더 많은 팬 레터를 받게 되었다. 전국에서 종교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벤슨 가족의 빛나는 모범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⁷²

벤슨 장로는 8년간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 집권 기간 내내 농무부 장관으로서 봉사했다. 맥케이 회장은 벤슨 장로의 업적이 “교회와 국가에 미친 공적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⁷³ 벤슨 장로는 국가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위대한 땅을 사랑합니다.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⁷⁴ 또 이렇게 언급했다. “다시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같은 길을 따를 것입니다.”⁷⁵ 사도로서 앞으로 펼쳐질 성역을 내다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농업보다 제가 유일하게 더 좋아하는 일에 제 여생을 바치겠습니다.”⁷⁶

비록 정부에서 봉사한 기간은 1961년에 끝이 났지만, 나라와 자유의 원리에 대한 그의 사랑은 계속 이어졌다. 연차 대회에서 여러 차례 연단에 서서 그는 이런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미국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땅”⁷⁷이라고 칭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모든 곳에서 애국심과 나라 사랑을 소중히 여깁니다.”⁷⁸ 그는 모든 후기 성도에게 조국을 사랑하도록 권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 “애국심은 국기를 흔들고 용감한 발언을 하는 것이상을 뜻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정말 참된 의미의 애국자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합니다.”⁷⁹ “정치적 기회주의자와 달리 참된 정치인은 인기보다 원리를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고 의로운 정치 원리가 인기를 끌도록 일합니다.”⁸⁰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는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문을 열[라]”(교리와 성약 107:35)는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선교부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는 후기 성도들과 만나는 특권을 소중히 여겼다. 연차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테이크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종종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저는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와 와드, 선교부의 지도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즐거움과 기쁨 만한 것을 그곳에서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⁸¹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는 형제애와 동료애의 참된 정신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것은 형제가 있지는 않지만, 진실로 실재합니다. 저의 동료들이 그렇듯, 우리는 세계 곳곳에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와 와드, 선교부를 두루 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 언제나 그런 동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바라보는 가운데 프레드 엠 빈슨
대법원장 앞에서 미국 농무부 장관으로서 선서하는 벤슨 장로

료애와 형제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회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⁸²

벤슨 장로는 또한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기회를 사랑했다. 예를 들어, 1959년에 그는 벤슨 자매와 미국 농무부 직원 네 사람을 대동하고서 소련을 비롯한 7개국을 순방했다. 농무부 장관 자격으로 간 것이었지만, 사도로서 그가 가진 간증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모스크바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 안내자에게 러시아에서 교회를 둘러볼 기회가 없어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운전 기사에게 몇 마디 했고, 운전 기사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돌려 붉은 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어둡고 좁은 거리에 있는, 조약돌이 깔려 있고 회반죽으로 칠한 낮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중앙 침례 교회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쌀쌀한 10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들어가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와 입구, 심지어는 거리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 정도의 군중이 교회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년 내지 그 이상이었지만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섯 명 중 네 명 정도는 여성이었는데, 대부분이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단 옆자리로 안내되었습니다. ……

목사님이 몇 마디 말을 한 다음에 오르간이 한두 음절을 연주하더니 온 회중이 하나가 되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 명 또는 천오백 명 정도가 소리 높여 찬송을 했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들은 언어의 차이, 정부와 역사의 차이를 뛰어넘는 환영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감동에 휩싸인 가운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을 무렵, 목사님이 그 옆에 있던 통역자를 통해 저에게 잠시 한 말씀 해 달라며 부탁해 왔습니다.

그러겠다고 하는데, 추스르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폭발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 곳곳의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잘 알려진 가장 성스러운 진리를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시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면,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회중을 위해 제 말 한 문장 한 문장이 통역되는 동안, 저는 손수건을 들고 흐드는 부인들을 보았는데, 일행 중 한 명은 그 부인들이 ‘외아들을 아주 떠나보내며 작별 인사를 하는 어머니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부인들은 야, 야, 야!(ja, ja, ja!-‘예, 예, 예’라는 뜻) 하고 소리를 내며 고개를 힘껏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자리가 딱 차서 많은 사람이 벽에 기대 서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저는 제 앞쪽에서 머리에 평범한 낡은 스카프를 쓰고, 어깨에 손을 걸치고 있는, 깊은 주름이 있지만 신앙심이 엿보이는 기품있는 얼굴을 한 연로한 여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직접 말했습니다.

‘이 생은 영원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이 생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굳게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때에 힘이 되고 강력한 닻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를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에 그녀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이 지고 늙고 연약했지만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전한 제 말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제 이야기에 몰두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 벅찼던 느낌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정말 흔들림 없이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로 끝냈습니다. ‘오랜 세월 봉사해 온 교회의 종으로서 저는 진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임을 증거합니다. 시간은 진리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생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저는 전할 말이 없었기에, 저는 예기치 않았던 그 자리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온 회중이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찬송가인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복도 쪽으로 걸어가갈 때, 사람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는데, 1,500명 모두가 떠나는 우리에게 손수건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곳에서 많은 교회에 들러 말씀하는 특권이 있었지만, 그 경험이 남긴 영향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저는 그날 저녁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느낌과, 자유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인간의 갈망을 그처럼 예리하게 느껴 본 순간은 결코 없었습니다. ……

자유 의 정신, 형제애, 종교 정신을 파괴하려는 온갖 시도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이 이야기를 저는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줘야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⁸³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1973년 12월 26일, 벤슨 장로는 교회 회장인 해롤드 비 리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예기치 않은 소식을 듣게 된다. 리 회장의 서거에 따라 제일회장단 보좌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나흘 뒤, 스펜서 더블유 김볼이 교회 회장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이 책임을 맡게 되면서 벤슨 회장은 관리 임무들이 더 추가되었다. 그는 정원회 주례 모임과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고, 선교부를 방문하며, 스테이크 축복사를 부르는 임무 지명을 포함한 사도들의 일을 협의 조정했다. 또한 다른 총관리 역원들을 감독하는 몇몇 책임들도 맡게 되었다. 그와 다른 사도들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 업무는 행정 담당 직원이 맡게 되었다.⁸⁴

십이사도 정원회 모임에서 벤슨 회장은 회장으로 봉사하는 것과 관련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 커다란 책임에 대해 아주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 이 사업에서 실패란 있을 수 없기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을 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인 여러분과 같은 형제들을 이끄는 지도자 직분에 부름받는 것은 제게 큰 걱정을 안겨 줍니다.”⁸⁵

벤슨 회장은 이런 겸손한 마음에 특유의 담대함과 꾸준하게 열심히 일하는 기질을 잘 조합시켰다. 그는 종종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었다. 그는 자신에게서도 그러하듯, 그가 이끄는 사람들에게서도 최선의 것을 기대했다. 또한 그는 바쁜 와중에서도 친절함을 보였다. 다른 사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정원회 모임에서 열린 토론을 장려했다. 벤슨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던 시절에 정원회에서 후임 사도로서 봉사했던 보이드 케이 팩커,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등은 그들이 생각이 다를 때에도 의견을 개진할 것을 늘 장려받았다고 말했다.⁸⁶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벤슨 회장의 지도력이 불변하는 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어, 그는 “형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⁸⁷라고 말했다. 그는 정원회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 “왕국을 위해 무엇이 최선입니까?” 그와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애 내내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겪었던 모든 중요한 문제에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⁸⁸

교회 회장

1985년 11월 5일, 오랜 투병 끝에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교회의 지도력은 이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회장이자 선임 회원으로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로 넘어왔다. 닷새 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열린 엄숙하고 경건한 모임에서 벤슨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그는 영감에 따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게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에게 제2보좌로 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볼 회장의 건강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던 벤슨 회장은 친구의 건강이 쾌차하기만을 바랐었다. 벤슨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성별된 직후에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날이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내 플로라와 저는 김볼 회장님이 이 세상에서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따라 지상에서 이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⁸⁹

교회 회장으로서 처음 맞은 연차 대회에서 벤슨 회장은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안점을 둘 부분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오늘날 주님께서서는 계시를 통해 몰몬경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셨습니다.”⁹⁰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을 때 벤슨 회장은 몰몬경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가르쳤다.⁹¹ 교회 회장으로서 그는 이 주제에 더욱더 주목했다. 그는 후기 성도들이 몰몬경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거나 그 가르침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 교회가 정죄”받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몰몬경은 우리 개인 학습, 가정에서의 가르침, 복음 전파, 선교 사업에서 중심이 되지 못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⁹² 그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선언을 자주 인용했으며⁹³ 그 약속을 이렇게 풀어 설명했다.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힘이 있습니다.”⁹⁴ 그는 후기 성도들에게 “몰몬경으로 온 세상을 덮고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자고]”⁹⁵ 촉구했다.

세계 곳곳에서 후기 성도들은 선지자의 이런 권고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후기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⁹⁶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하여, 어떤 세대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이끌었던 시기를 돌아볼 때, 어

찌 곧바로 몰몬경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래로, 벤슨 회장님만큼 몰몬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의 전 회원이 매일 몰몬경을 공부하게 하고, 몰몬경으로 '세상이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한 회장은 없을 것입니다."⁹⁷

몰몬경에 대한 벤슨 회장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사람이 "구주의 신성을" 거부했을 때 그는 "거룩하게 영감받은 이 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종석입니다."⁹⁸라고 확인했다. 1943년에 사도 직분에 성임된 이후로 벤슨 회장은 구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진실의 증인으로서 부지런히 봉사했다. 교회 회장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더욱더 활력있게, 또한 절박하게 간증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통솔을 받[고] …… 그리스도 안에서 불타게 [되고]"⁹⁹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¹⁰⁰ 할 것을 권고했다. 구주에 대해 말씀할 때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¹⁰¹

벤슨 회장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긴박하고 힘 있는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교만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가족의 영원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증했다. 그는 신앙과 회개의 원리를 가르쳤고 헌신적인 선교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성역 초기만큼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8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미국 헌법 서명 200주년을 맞아 그 주제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또한 세계 도처의 자유와 참된 애국심에 대한 사랑도 지속되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들 정부가 종교 예배에 더 많은 자유를 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¹⁰²

벤슨 회장은 교회의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연달아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1986년 4월부터 시작해서 그는 청남, 청녀, 어머니, 가정 복음 교사, 아버지, 독신 성인 형제, 독신 성인 자매, 어린이, 연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할 설교를 차례로 준비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염려했습니다. 교회 자매와 형제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로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독신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말씀했고,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말씀하는 것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교회 회원의 개인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그들 모두에게 훌륭하고 특화된 권고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설교들을 앞으로 계속 상고해 본다면, 계속해서 힘과 인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¹⁰³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함께 한 벤슨 회장: 고든 비 힝클리
회장(왼쪽)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오른쪽)

벤슨 회장은 그런 말씀으로 영향을 받은 한 가족에게서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젊은 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으로 연차 대회를 시청하고 있었다. 세 살배기 아들은 대회 말씀이 나오는 라디오를 틀어 놓고 가까운 방에서 놀고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벤슨 회장의 말씀을 들은 후, 이 부모는 아들이 놀고 있는 방으로 갔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어린 사내아이는 “흥분해서 ‘라디오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간단한 말씀이 저희 어린 아들에게 지속적인 의미 있는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벤슨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똑같은 힘찬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하늘에 친절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지식에서 위로를 얻습니다.”¹⁰⁴

1988년 10월 연차 대회 직후에 벤슨 회장은 뇌졸중을 겪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공개 연설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한동안은 연차 대회와 다른 공개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1989년 연차 대회에서는 그가 준비한 설교를 보좌들이 읽었다. 1990년부터는 보좌들이 성도들을 향한 벤슨 회장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의 과거 설교를 인용했다. 1991년 4월 대회는 그가 참석한 마지막

막 대회였다. 그 후로는 텔레비전을 통해 대회 진행을 시청하는 것 이상으로는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¹⁰⁵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분의 몸은 노환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걸었던 것처럼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전처럼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쇠약해졌지만 살아 있는 한 그분은 여전히 주님의 택함받은 선지자였습니다.”¹⁰⁶ 벤슨 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힝클리 회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교회를 이끌었지만, 교회는 벤슨 회장이 알고 승인하지 않는 한 새로운 계획들을 결코 추진하지 않았다.¹⁰⁷

벤슨 회장이 쇠약해지면서 플로라도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1992년 8월 14일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4년 5월 30일에 벤슨 회장도 아내의 뒤를 따랐으며, 사랑하는 휘트니에서 아내 곁에 묻혔다. 벤슨 회장의 장례식에서 몬슨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전에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형제님,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아이다호 휘트니에 묻히고 싶습니다.’ 벤슨 회장님, 우리는 오늘 당신의 소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몸은 이제 고향 휘트니로 가지만, 그분의 영원한 영은 본향에 계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가족과 친구들, 사랑하는 플로라도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시골 청년이 본향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추억을 축복해 주십니다.”¹⁰⁸

주

1. Robert D. Hales, “A Testimony of Prophets,” June 5, 1994. ; 또한 Twila Van Leer, “Church Leader Buried beside Wife, Cache Pays Tribute as Cortège Passes,” *Deseret News*, June 5, 1994 참조.
2. Gordon B. Hinckley, “Farewell to a Prophet,” *Ensign*, July 1994, 37-38.
3. 에즈라 태프트 벤슨,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9~60쪽.
4. Margaret Benson Keller,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34.
5. 에즈라 태프트 벤슨,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 62~63쪽.
6. Ezra Taft Benson, “Scouting Builds Men,” *New Era*, Feb. 1975, 15-16.
7.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4 참조.
8. “After 60 Years ‘Still in Love,’” *Church News*, Sept. 14, 1986, 4, 10 참조.
9.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58.
10.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55 참조; 또한 본 교재 제7장 참조.
11.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59 참조.
12.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59 참조.
13.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62.
14.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59.
15.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53.
16.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63.

17.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75.
18.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79.
19.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79.
20. Eugene J. Neff,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84.
21. Eugene J. Neff,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87.
22.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87 참조.
23.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87 참조.
24.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96.
25.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88.
26.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89.
27.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92.
28. Francis M. Gibbons, *Ezra Taft Benson: Statesman, Patriot, Prophet of God* (1996), 85-89.
29.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99-100, 101, 115 참조.
30.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15.
31.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00 참조.
32. Barbara Benson Walker,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30.
33.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21.
34.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21.
35.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74; Ezra Taft Benson, personal journal, July 26, 1943에 있는 인용 포함.
36. Ezra Taft Benson, personal journal, July 26, 1943;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74-75에서 인용함; 철자법은 표준에 맞춤.
37.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76.
38. Ezra Taft Benson, *A Labor of Love: The 1946 European Mission of Ezra Taft Benson* (1989), 7 참조.
39.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47, 152-53.
40. George Albert Smith, *A Labor of Love*, 7.
41. Ezra Taft Benson, *A Labor of Love*, 7-8.
42. Ezra Taft Benson, *A Labor of Love*, 120.
43.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47, 154.
44.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47, 155.
45.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47, 153-55.
46.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47, 155-56 참조.
47.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47, 156.
48. Frederick W. Babbel, *On Wings of Faith* (1972), 28-33, 46-47, 106-8, 111-12, 122, 131-34, 136, 154 참조.
49.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47, 152.
50. Thomas S. Monson, "President Ezra Taft Benson—A Giant among Men," *Ensign*, July 1994, 36.
51.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37 참조.
52.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48, 83 참조.
53.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48, 86.
54.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62, 104.
55.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48, 85 참조.
56.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62, 104-5 참조.
57.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Oct. 1954, 121 참조.
58.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Oct. 1962, 19.

59. Ezra Taft Benson, *Cross Fire: The Eight Years with Eisenhower* (1962), 3-4.
60. David O. McKay, *Cross Fire*, 5.
61. Ezra Taft Benson, *Cross Fire*, 10.
62. Dwight D. Eisenhower, *Cross Fire*, 12.
63. Ezra Taft Benson, *Cross Fire*, 12.
64. Ezra Taft Benson, *Cross Fire*, 13.
65.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355.
66. Ezra Taft Benson, Sheri Dew, "President Ezra Taft Benson: Confidence in the Lord," *New Era*, Aug. 1989, 36.
67.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313, 345 참조.
68.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331 참조.
69. 본 교재 제2장 참조.
70. Dwight D. Eisenhower,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292.
71.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292 참조.
72.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297-99 참조.
73. David O. McKay, *Cross Fire*, 519.
74.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61, 113.
75.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358.
76.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355.
77. Ezra Taft Benson, "A Witness and a Warning," *Ensign*, Nov. 1979, 31.
78. Ezra Taft Benson, "The Constitution—A Glorious Standard," *Ensign*, May 1976, 91.
79.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60, 99.
80.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Oct. 1968, 17.
81.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Oct. 1948, 98.
82.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Oct. 1950, 143-44.
83. Ezra Taft Benson, *Cross Fire*, 485-88.
84. Francis M. Gibbons, *Statesman, Patriot, Prophet of God*, 270-71 참조.
85. Ezra Taft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30-31.
86.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29-30 참조.
87. 에즈라 태프트 벤슨, 토마스 에스 몬슨, "선견지명이 있는 계획—귀중한 약속",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66쪽.
88. Mark E. Petersen, "President Ezra Taft Benson," *Ensign*, Jan. 1986, 2-3.
89. Ezra Taft Benson, *Church News*, Nov. 17, 1985, 3.
90. 에즈라 태프트 벤슨, "기록한 책임",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6쪽.
91.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 물문경", *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40~42쪽; "그리스도의 새 증인",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6~8쪽 참조. 또한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91-93 참조.
92. 에즈라 태프트 벤슨,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5쪽.
93. 조셉 스미스, 물문경 소개에서 인용.
94. 에즈라 태프트 벤슨, "물문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95. 에즈라 태프트 벤슨,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4쪽.
96. 본 교재 제10장 참조.
97. Howard W. Hunter, "A Strong and Mighty Man," *Ensign*, July 1994, 42.
98. 에즈라 태프트 벤슨, "물문경—우리 종교의 종석", 5쪽.
99.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나님께서 태어남", *성도의 빛*, 1989년 10월호, 6쪽.
100. 에즈라 태프트 벤슨,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92쪽.
101. 에즈라 태프트 벤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 *성도의 빛*, 1990년 12월호, 8쪽.

102. 리셀 엠 넬슨, “유럽 무대에 올려진 드라마”, *성도의 벗*, 1992년 5월호, 22쪽 참조.
103. Howard W. Hunter, “A Strong and Mighty Man,” 42.
104. 토마스 에스 몬슨,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102쪽.
105. Francis M. Gibbons, *Statesman, Patriot, Prophet of God*, 315 참조.
106. Gordon B. Hinckley, “Farewell to a Prophet,” 40.
107. Francis M. Gibbons, *Statesman, Patriot, Prophet of God*, 317-18 참조.
108. Thomas S. Monson, “President Ezra Taft Benson—A Giant among Men,” *Ensign*, July 1994, 36.



구주께서 부자인 청년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마태복음 19:16~21 참조)



가장 큰 계명—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앞세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삶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따라 살려는 굳은 결의가 반영되어 있다. 그의 확대 가족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과 그 가족에게 종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삶 그 자체이자 매주 7일 동안 따라야 할 규범을 뜻합니다. 그분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언제나 종교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¹

주님에 대한 벤슨 회장의 사랑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1939년, 당시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벤슨 회장은 워싱턴디시로 초대받아 전국 농민 협동 조합 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위원회는 그를 살펴보고 필요한 질문을 한 후 그에게 그 조직의 사무국장 자리를 제안했다. …… 뜻하지 않은 제안을 받은 벤슨 회장은 기뻐지만 받아들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그 직위에는 카테일파티를 열어 로비 활동을 하는 임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종교와는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위원회 수장이었던 존 디 밀러 판사는 이렇게 답변했다. ‘벤슨 씨,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택한 것입니다. 그 표준을 우리도 알거든요.’ 위원회로부터 농업에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카테일 잔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야 벤슨 회장은 기쁘게 그 자리를 수락했다. 하지만 이도 먼저 제일회장단, 그리고 아내와 협의를 한 후에 내린 결정이었다.”²

벤슨 회장은 주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고 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쌌었다. “저는 모든 후기 성도들이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대답하리. 하라신 대로 말하리. 원하신 대로 되오리.’[찬송가, 146장 참조]라고 말할 때, 실제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

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누릴 것입니다.”³

벤슨 회장은 본 장의 기초가 된 198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집중했다. 칠십인이었던 프랜시스 엠 깁슨 장로는 그 설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이 자신과 가족, 교회를 위해 이루려 하신 모든 것, 그분이 세우려 하셨던 모든 대의, 그분이 염원하는 모든 소망이 그 말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⁴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생의 큰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아브라함서 3:25)

인생의 큰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런 다음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마지막 간증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모로나이서 10:32)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가복음 12:30; 또한 마태복음 22:37; 신명기 6:5; 누가복음 10:27; 모로나이서 10:32; 교리와 성약 59:5 참조).

물문경에서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하다고 증거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즉 자애는 결코 시들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며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성품으로서, 자애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모로나이서 7:44~47; 니파이후서 26:30 참조)

모로나이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

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모로나이사 7:48).

모로나이는 야렛인과 니파이인의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순수한 사랑인 자애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에 준비하신 그 자리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기록했습니다.(이더서 12:34; 모로나이사 10:21 참조)

리하이가 시현에서 취한, 매우 큰 기쁨으로 그의 영혼을 채워 주고 어느 것보다도 더 먹음직스러웠던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⁵

사랑[자애]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제 아버지와 그분께서 선교사로 부름받으신 날[본서의 4~6쪽 참조]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 아버지께서 그런 부름을 받아들이신 것을 두고 이는 진실로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곱 자녀와 임신 중인 아내를 집에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어떻게 참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더 심오한 관점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로마서 8:28)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을 아셨습니다.⁶

온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모든 정신과 기력을 쏟아야 합니다. 미온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존재 자체를, 즉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사랑의 폭과 깊이, 높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것이든 현세적인 것이든 우리의 소망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랑의 중심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네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네 마음의 사랑을 영원히 주께 두도록 하라.”(엘마서 37:36)⁷

2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왜 이 첫 번째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다른 모든 계명도 지키고자 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요한1서 5:3; 또한 요한2서 1:6 참조)



애굽의 요셉은 하나님을 저버리기보다는 기꺼이 감옥에 갔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분이 십계명 첫 부분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출애굽기 20:3)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애정과 시간을 바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관심사와 우선 순위 등 모든 것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애굽의 요셉은 하나님과 자신의 일, 또는 보디발의 아내 중 어느 것을 가장 우선에 두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 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세기 39:9).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기에 요셉은 투옥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의 충심은 어디를 향할까요? 안전이나 평안, 열정, 부, 인간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선택 앞에서 주인의 아내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더 열망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상사나 교사, 이웃, 데이트 상대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 드리고자 열망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마태복음 10:37). 모든 시험 중 가장 힘든 시험은 여러분이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이들과 하나님 중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그들이 가족일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선한 아버지가 잠시 주님에 대해 불평했을 때 그러한 시험을 겪었지만, 잘 대처했습니다.(니파이전서 16:18~25 참조) 욥은 아내가 자신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때에도 자신의 고결성을 지켰습니다.(욥기 2:9~10 참조)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12; 또한 모사이야서 13:20 참조). 그러나 때로는 필멸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공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삶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분은 부모로서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먼저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과 또는 앞으로 우리를 묶어 줄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맏형이자 구속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간증을 전해 주는 성신은 완벽하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며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멸의 친척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교회에 가입하는 충실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니라.]”(요한복음 8:29)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시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합니까?

아버지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가족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까? 매주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정기적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

고 잠시 잘못된 길을 걷는 자녀를 위해 여러분이 계속 모범적인 삶을 살고 꾸준히 기도하고, 자주 그 자녀를 위해 금식하며, 그 아들 또는 딸의 이름을 성전 기도 명부에 계속 올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존중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특히 여러분은 시온의 젊은이들을 의롭게 양육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 신성한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중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어머니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고귀한 일들에 여러분의 손길을 더하십니까? 여러분처럼 부모님도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그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수행해야 할 신성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에 존귀를 더하고 그분들이 연로해지실 때 위로하고 힘을 실어 주시겠습니까?

만약 성전 밖에서 여러분과 결혼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필멸의 인간입니까? 성전 결혼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며, 또한 결혼 상대자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전에 가기 위해 합당해질 것이며, 당연히 그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이 또한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누구도 불공평하게 명예를 함께 메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고린도 후서 6:14 참조)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 밖에서 여러분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갖추실 것입니다.⁸

3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할 때 축복이 풍성히 임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생활을 하는 남성과 여성은 혼자서 살아갈 때보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기쁨을 배가해 주시고 시야를 넓혀 주시며, 마음을 깨우치고 근육을 강화해 주시며, 영혼을 고취하고 축복을 몇 배로 늘려 주시며, 기회의 문을 넓혀 주시고 영혼을 위로하시며, 친

구들을 세워 주시고 평안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며 자신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⁹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면 그 요구에 응할 수 있었을까요? 주께서 교리와 성약에서 밝히셨듯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신으로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2:37 참조) 그들은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기꺼이 바칠, 그리고 바쳐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기에 서로에 대해서도 깊은 사랑과 존중심을 보였습니다.

물론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니파이후서 2:11) 그래서 반대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반대되는 것이 있기에 선택이 존재하고 그러한 선택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경에는 사람이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니파이후서 2:27)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악마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 역시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악마는 우리가 자기처럼 비참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계명을 주십니다. 악마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그러한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합니다.

매일, 그리고 꾸준히 우리는 소망과 생각, 행동으로, 축복 아니면 저주를, 행복 아니면 비참함을 선택합니다. 삶에서 겪는 시련 중 하나는 의로운 것에 대해 곧바로 충만한 축복을 받지도 않으며 사악함에 대해서도 곧바로 완전한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찾아올 것은 확실하지만, 종종 읊과 조셉이 그랬듯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악한 이들은 잘못을 범하고도 이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악한 이들은 “잠시 자기의 일에 기쁨을 누리나, 차차 마지막이 이르매, 찍혀 불에 던져지나니, 그곳에서는 다시 돌아오음이 없느니라.”(제3니파이 27:11)

이 시험의 시간 동안 의로운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어느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확신해야 합니다. ……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최고의 보상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인생의 큰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가복음 12:30)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첫째 되는 계명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삶에서는 평안을,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존재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¹⁰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1편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마태복음 22:38)에 대해 가르친다. 왜 이 계명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애를 이 계명과 연관시킨 벤슨 회장의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일부 예로 2편을 참조한다.)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여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 “하나님께로 돌이킨 생활을 하는”(3편) 이들에게 벤슨 회장이 준 약속을 생각해 본다. 하나님을 향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부터 어떤 모범을 보았는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혼자의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가?

관련 성구

여호수아 24:14~15; 마태복음 6:33; 7:21; 요한복음 14:15, 21~24; 17:3; 고린도전서 2:9; 니파이전서 3:7; 모로나이서 10:32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참된 교사’라고 믿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 성신의 영향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교사의 중요

한 역할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데 있습니다.”(진 알 쿡,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1쪽에서 인용)

주

1. *Descendants of the George T. Benson Jr. Family* (1968), n.p.
2. Merlo J. Pusey, “Ezra Taft Benson: A Living Witness for Christ,” *Improvement Era*, Apr. 1956, 269.
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344.
4. Francis M. Gibbons, *Ezra Taft Benson: Statesman, Patriot, Prophet of God* (1996), 313.
5. Conference Report, Apr. 1988, 3; 또한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4쪽.
6.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2~63쪽.
7. Conference Report, Apr. 1988, 3; 또한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4쪽 참조.
8. Conference Report, Apr. 1988, 3-5; 또한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4~6쪽 참조.
9. “예수 그리스도—은사와 기대”, *성도의 벗*, 1987년 12월호, 4쪽.
10. Conference Report, Apr. 1988, 5-6; 또한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6쪽 참조; line from poem by Denis A. McCarthy as quoted in Ralph S. Cushman, *The Message of Stewardship* (1922), 191.



“우리가 더 거룩하게 발전하고자 한다면, 즉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 그 어느 것도 기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저는 [모든 분들에게] …… 기도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밀접한 유대를 맺도록 겸손히 촉구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평생 제가 받은 권고 중 기도에 대한 내용만큼 값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좌우명과 닮아 되었으며, 영원한 힘의 원천이 되고, 신성한 것에 대한 지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친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권고가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보이지 않는 능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¹

벤슨 회장은 삶의 모든 면에서 이 권고를 따랐다. 미합중국 농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별했으며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주시도록 간구했다.”² 그는 첫 번째 모임에서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가 재직 8년 동안 지속되었던 관례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각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부탁했다.”³ 동료들은 처음에는 불편해 하기도 했지만 점차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 직원은 그들 중 일부가 어린 시절 이후로 소리내어 기도를 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말도 얼버무리고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상사[벤슨 회장]였던 그분은 그런 걸 알아차리시고도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몇 번의 시행착오 후에 모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모임을 그렇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결론에 아주 빨리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⁴

벤슨 회장의 기도하는 본성은 함께 봉사했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들에게도 유익이 되었다. 제일회장단에서 벤슨 회장의 제1보좌로 봉사했던 고든 비 퉁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그분과 함께 무릎을 꿇었고, 그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언제나 흥미로웠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기도의 대부분은 늘 감사의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간구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그분은 삶, 가족, 복음, 신앙, 햇빛과 비, 풍성한 자연,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 등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친구와 동료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구주에 대한 사랑을 표하고 또한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⁵

벤슨 회장과 아내 플로라는 온 가족이 각자, 그리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 가정을 세웠다. 아들 마크는 이렇게 회상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실 때 아버지는 성급하게 말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기도에는 모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하면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⁶ 벤슨 회장 내외는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인도와 힘을 얻기 위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벤슨 가족과 함께 연차 대회 중 한 모임에 참석한 한 친구는 그 가르침이 미친 영향력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어느 4월에 …… 저는 총관리 역원이 어디서 힘을 얻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님의 여섯 자녀와 함께 참석했는데, 그중 한 명은 대학 친구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 다음 연사가 벤슨 장로님이라고 알렸을 때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만난 적이 없던 벤슨 장로님이 연단으로 걸어 나오시는 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은 180센티미터가 넘는, 체격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미합중국의 농무부 장관으로, 주님의 특별한 증인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차분하며 확신에 찬 사람으로서, 전 세계의 청중에게 연설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벤슨 장로님의 어린 딸 하나가 제게 기대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소 놀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계속 옆으로 전달되고 있고, 나도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데 나는 “벤슨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세요.”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얼른 행

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옆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 속삭였습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속삭임이 줄을 따라 벤슨 자매님이 앉아 있는 곳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벤슨 자매님은 이미 머리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

여러 해가 지나면서 연차 대회가 오고 가지만 매년 벤슨 회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성장하여 여러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 순간에는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겠지.’”⁷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태복음 6:9~13).

예수님은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누가복음 18:1)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마태복음 26:41).

이 경륜의 시대에 예수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저 사악한 자가 네 안에 힘을 가져 네 자리에서 너를 옮겨가지 못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93:49)

구주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21)

서반구에 있던 니파이인에게 성역을 베푸시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악마의 유혹을 받고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

너희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사탄이 너희를 밀같이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제3니파이 18:15, 18~20)⁸

거룩함에서 발전하려 한다면, 즉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 그 어느 것도 기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즉 매일 드리는 기도, 긴밀히 드리는 기도를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도록 권고합니다. 그 어떤 날도 기도하지 않고 보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과 교통하는 일은 각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었던 전 세계의 남성과 여성에게 힘과 영감, 깨달음의 원천이 되었습니다.⁹

2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더 강한 사랑의 유대와 천상에서 느끼는 평안을 축복으로 받는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임을 밝히셨습니다.[교리와 성약 68:28 참조] 이것이 단지 혼자 드리는 기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가족 기도를 하면서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즉 가족 기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결하게 하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¹⁰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과 밤에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몇몇 곳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어 가고 있는, 음식 축복을 할 때 단지 몇 마디를 더해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¹¹

기도는 우리 가족 활동에 힘을 더하는 영속적인 닳이자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는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침대맡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나중에는 좀 더 큰 아이들이 어린 동생들을 도와주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아침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그러한 기회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기도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 가족 기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결하게 하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임무를 맡은 자녀의 이름을 가족 기도에서 언급했습니다. ……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될 아이가 있으면 도움을 구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이름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 가족 기도에서 특별히 언급했을 때 어려운 문제와 임무를 맡은 가족들은 확신과 안정, 힘을 얻었습니다.¹²

가족들이 하늘의 권좌로 함께 다가갈 때 그날의 의견 차이와 짜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강하게 단합했습니다. 사랑으로 다져진 결속과 애정이 더 커졌고 하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아침저녁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한 후에는 더 큰 자신감으로 개인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에 접근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런 영적 경험을 하는 젊은이들은 저녁에 놀러 나가서도 사악한 의도를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그럴 듯해 보이는 유혹이 찾아올 때, 이를 자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미치

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 영적 경험을 통해 자녀들의 주위를 정결하게 하는 영향력으로 채워 주는 부모들은 ……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¹³

3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 잘 교통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우리는 자주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적어도 두세 번은 경전에 나오는 대로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엘마서 34:21)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니파이후서 32:9; 교리와 성약 88:126 참조)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엘마서 34:27 참조)

2.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골방과 [우리의] 은밀한 장소에서”(엘마서 34:26) 기도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곧 은밀한 중에 기도함으로써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제3니파이 13:5~6 참조)

3. 기도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기도하고자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12:10 참조) 우리는 용서와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엘마서 34:17~18 참조) 나쁜 감정이 느껴지는 사람을 모두 용서해야 합니다.(마가복음 11:25 참조) 뿐만 아니라 경전에서는 우리가 “궁핍한 자와, 혈벗은 자를 물리치며,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엘마서 34:28) 우리의 기도가 헛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4. 기도는 의미 있고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에게 매일 똑같은 말을 하고, 대화를 귀찮게 생각하며, 텔레비전을 켜기 위해 말이 끝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돌아와서 우리를 기억도 하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감정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의 죄과 악마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의 복지와 우리 주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활동에 관해 주님과 상의해야 하며(엘마서 37:36~37 참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

다.(교리와 성약 59:21 참조) 또한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배은망덕은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지리니, 백 배 참으로 그 이상 더하여지리라.”(교리와 성약 78:19)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며, 해가 될 것을 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야고보서 4:3 참조)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점을 감당해 낼 힘을 간구해야 합니다.(엘마서 31:31~33 참조) 교회 회장과 총관리 역원, 스테이크 회장, 감독, 정원회 회장, 가정 복음 교사, 가족, 사회 지도자들이 영감받고 안녕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것들도 제안할 수 있겠지만, 성신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로마서 8:26~27 참조)

5. 기도를 통해 간구한 후에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을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¹⁴

4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마음에 두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로운 것을 행할 때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써 가능해집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하늘이 열린 것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열네 살 소년이 성스러운 숲에서 드린 기도로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열렸고,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된 존재로서 그 소년, 즉 조셉에게 나타나시어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1~17]¹⁵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을 주신다는 제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그 진리를 절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무릎을 꿇으신 어머니 옆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때에도 그랬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청남 때에도, 외국에서 선교사일 때에도, 아버지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정부 관리로서 저는 사람이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며 앞으로 나아가 보이지 않는 권능을 끌어내릴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는 진리를 의심의 여지 없이 알았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가 문을 열어 줄 것이며 장애물을 제거하고 압력을 완화해 줄 것입니다. 기도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와 어려운 시기에 평안과 위안을 전해 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¹⁶

시련과 근심의 시기에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영향력과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분의 힘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러한 간증을 얻고 또한 확신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¹⁷

저는 직접 경험했기에 기도의 효력과 그 힘을 압니다. ……

1946년에 저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으로부터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유럽으로 건너가 노르웨이부터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교부들을 다시 세우고 복지 물자를 분배할 프로그램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런던에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에 주둔한 군대의 지휘관과 먼저 회담을 했습니다. 제가 맨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당시 유럽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고 저와 동반자는 장군과 약속을 잡으려 했습니다. 장군의 일정을 담당하는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적어도 3일 이내에는 장군님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대단히 바쁘시고, 일정표는 약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야 하고,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베를린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안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나와 차를 다시 탔고, 거기에서 모자를 벗은 뒤 다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정을 관리하던 곳에는 다른 장교가 있었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는 장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기관에서 기증된 구호 물자든 군대를 통해 배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았기에, 우리는 그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장군에게 물자를 우리의 경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분배하고, 또한 일반 어린이용 식품을 기증하고 싶다는 우리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과 그 운영 방식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물자를 모으십시오. 여러분이 물자를 모두 모았을 때에는 정책이 변경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우리의 물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지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제일회장단에 전보를 보내면 24시간 내로 여러 화차분의 물자가 독일로 수송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필수품이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물자를 우리의 경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항상 잊지 않고 계시며 그분에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언제나 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다. 전능자에게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고자 자신을 낮추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박해가 따르고 역경이 닥칠지라도 기도로 화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 화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화평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였던 소년 시절, 저는 기도에 관한 이 짧은 시를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시를 기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고.
 기도는 언젠가 응답된다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린다.
 나의 기도가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긴다.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니.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신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참임을 압니다. 저는 [모든 분에게] …… 기도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밀접한 유대를 맺도록 겸손히 촉구합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기도가 지금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과 더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¹⁸



에зра 태프트 벤슨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유럽에서 구호 물자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인도를 얻기 위해 기도했다.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그 어떤 날도” 개인 기도를 하지 않고 “보내지 마십시오.”(1편) 라고 말씀했다. 여러분은 개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 2편에서 벤슨 회장은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드리는 가족이 받는 몇 가지 축복에 대해 언급했다. 언제 가족 기도가 그러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는가? 가족 기도를 우선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3편에 나오는 벤슨 회장의 다섯 가지 제안을 생각해 본다. 이 제안들은 각각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을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권고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 4편에 나오는 벤슨 회장의 말씀은 기도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벤슨 회장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덧붙일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야고보서 1:5~6; 이노스서 1:1~8; 제3니파이 14:7~8; 교리와 성약 10:5; 19:38; 88:63

학습을 위한 도움말

원리는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는 진리이다. “경전을 읽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본다.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전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17쪽)

주

1. “기도”,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33쪽.
2. *Cross Fire: The Eight Years with Eisenhower* (1962), 31.
3.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268.
4.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268에서 인용.
5. Gordon B. Hinckley, “Farewell to a Prophet,” *Ensign*, July 1994, 40.
6.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40에서 인용.
7. 일레인 에스 맥케이,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 *성도의 벗*, 1988년 11월호, 23~24쪽.
8.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0년 6월호, 3쪽.
9. Conference Report, Apr. 1966, 131.
10. Conference Report, Oct. 1947, 24.
11. Conference Report, Oct. 1950, 147.
12. “Family Joys,” *New Era*, Jan. 1973, 4.
13. Conference Report, Apr. 1949, 197-98.
14. “항상 기도하십시오”, 4, 5쪽.
15. Conference Report, Oct. 1956, 108.
16. Conference Report, Oct. 1956, 104.
17. Conference Report, Apr. 1953, 39.
18. “기도”, 34~35쪽; poem titled “Prayer” by Eliza M. Hickok, as quoted from *Best Loved Religious Poems*, ed. James Gilchrist Lawson (1933), 160.



예수 그리스도는 전세에서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고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랐다.



선택의 자유, 영원한 원리

“우리는 모두 선택의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 결정들은 영원토록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농장에서의 삶과 일을 통해 올바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배웠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농장 일이 잘되려면,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일하는 능력과 같은 기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믿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총명하게 일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¹ 어린 시절, 에즈라는 텃밭을 가꾸는 것을 선택하면, 더 풍성한 먹거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가족의 낙농업이 잘되려면, 자신이 매일 이른 시간에 침대에서 나와 소젖을 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²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했을 때, 사탕무 숙아 내기와 건초 쌓기 일을 하도록 부근의 농부들에게 고용되는 경험 또한 했다.³ 그는 충실한 이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족이 시련에 맞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행복을 얻고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⁴

어린 에즈라 태프트 벤슨에게 우유로 가득 찬 양동이, 건초가 가득 쌓인 트럭, 열심히 하루를 일해 받은 후한 일당 등은 훌륭한 결정을 통해 얻게 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더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에즈라는 부모님을 지켜 보면서 가족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충실할 때 어떤 기쁨과 평화, 힘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⁵ 그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는 수확의 법칙이 육체적인 일뿐 아니라 영적인 추구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후기 성도와 다른 이들에게 선택의지, 즉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⁶ 자유가 중요

함을 자주 상기시켰다. 선택의지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옳고 그른 것 사이에서 선택”⁷하는 것 그 이상을 다룬다. 그는 선택의지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행복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⁸ 그는 후기 성도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일이든 명령을 기다리기보다는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스스로 행하도록” 권유했다.⁹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한 선택의지의 원리는 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¹⁰라고 말씀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

선택의지, 즉 선택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원리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즉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임을 간증드립니다.(사도행전 17:29; 니파이전서 17:36 참조) 하나님은 자신과 같이 자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며, 자신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듯 것처럼 자녀들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줄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니파이전서 10:18; 니파이후서 2:25; 앨마서 24:14; 34:9; 제3니파이 12:48; 28:10 참조)

전세에서 영으로 존재했던 우리의 만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구주로 예임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모사이야서 4:6~7; 앨마서 34:9 참조)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며,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수단이십니다.(히브리서 2:10; 모사이야서 3:17; 앨마서 38:9 참조)

루시퍼도 천국 회의에 있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인간의 선택의지를 멸하려 했으며 모반했습니다.(모세서 4:3 참조)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천군 중 삼분의 일이 지상으로 내던져졌으며, 육체를 입지 못했습니다.(요한계시록 12:7~9; 교리와 성약 29:36~37 참조) 루시퍼는 모든 의의 적으로서, 온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려 합니다.(니파이후서 2:18, 27; 모사이야서 4:14 참조)¹¹

전세에서 열린 평의회의 주된 논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하든 악하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제한받지 않는 선택의지를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순종하도록 강제로 강압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영은 전자, 즉 선택의 자유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후자, 즉 강제와 강압 편에 섰습니다.¹²

경전에는 하늘에서 자유의 원리인 선택의 권리를 놓고 빚어진 충돌, 즉 커다란 전쟁이 있었음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모세서 4:1~4; 교리와 성약 29:36~38; 76:25~27; 요한계시록 12:7~9 참조)¹³

그렇게 하늘에서 시작된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립은 필멸의 전쟁터로 장소를 옮겨 계속되고 있습니다.¹⁴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원리입니다. 위대한 자유의 계획이 곧 복음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강압이나 위협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에 따라 살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충실히 살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도록 강제로 힘을 행사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 설득하는 방법을 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시며 설득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응답하면 축복을 주시겠지만, 절대 인간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찬송가, 1985, 175장 참조)¹⁵

2

이 삶은 시험의 시간으로,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 지상에 오기 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지구의 창조를 보았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아브라함서 3:25) 그 신성한 말씀에도 자유라는 권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¹⁶

이 삶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근성을 증명할 시험의 시간인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시험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모든 세대에게 주어졌던 바와 같이 우리의 의무를 배우고 이를 행할 시간이자 기간입니다.¹⁷

주님께서 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악이 생기질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이 악을 반대하는 이들을 도우시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곳 필멸의 삶에 거하는 그분의 자녀 사이에 악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증거이며, 그분은 그것을 마지막 심판 때 고려할 근거로 삼으실 것입니다.¹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지하지 못하실 악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구는 그분의 합법적인 통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악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¹⁹

인생은 영원한 삶에서 시험을 겪는 시간이며 그 기간에 인간은 …… 옳고 그른 것 사이에서 선택할 권리를 얻습니다. …… 그러한 선택으로 위대한 결과가 결정되는데, 이는 이 삶뿐 아니라 더 중요한, 앞으로 올 세상에서 얻게 될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경계 내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원리에 반하는 불의한 선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여 다음 세상에서 거하게 될 처소를 결정하게 됩니다.²⁰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현재와 영원을 통틀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소망과 목적과 영광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 면전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만큼 합당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순결하고 흠 없이 주님께 되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늘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단련하기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다 행하는지를”(아브라함서 3:25) 보기 위해 선택의지, 즉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지상에 훌륭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지도자는 헌신적으로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늘 사랑하고, 염려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 역시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파멸하려 합니다. 계명으로 여러분을 단련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를 줍니다. …… 사탄의 계획은 “우선 놀고 대가는 나중에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비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니파이후서 2:27 참조] 주님의 계획은 현재의 행복과 더불어 복음 생활을 통해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²¹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까지 자유롭게 변경하지는 못합니다.²²

우리가 한 선한 행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곧바로 받는다면, 모든 죄에 대한 응징을 곧바로 받는다면, 신앙의 시련을 거의 겪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각 행위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²³

인간이 죄악 가운데 일순간 쾌락을 맛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불행합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앨마서 41:10)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를 초래하며 영을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모든 율법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율법은 그에 따르는 축복을 안겨 줍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절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 짐을 벗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11:28~30 참조)²⁴

어떤 삶에서든 삶의 가장 큰 과제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는 …… 선택하는 권리지만, 그분은 이와 함께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주셨습니다. …… 삶의 방향을 성공이나 실패로 이끄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목적에 이를 수단을 직접 결정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면히 노력하는가 여부에 따라 이를 성취하는 속도가 정해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힘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거기에는 반대나 충돌이 뒤따를 것입니다.²⁵

인류와 모든 문화의 운명은 인간이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선택의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영원한 율법을 무시하여 그 결과를 치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진정한 문제는 경제나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율법에 순응하기를 인간이 배울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²⁶

우리는 모두 선택의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 결정들은 영원토록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²⁷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바로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앞으로 내릴 결정들로 그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²⁸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무엇보다도 그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손을 뻗어 보이지 않는 권능, 가장 훌륭한 결심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권능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하나 꼽으라면, 소년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의 권고를 따르려 결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5~6)

그 결정으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구원이 좌우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소중하다는 것과, 각자가 내리는 결정들이 타인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²⁹

주님은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제3니파이 14:7; 마태복음 7: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우리 몫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³⁰

현명한 결정은 대개 연구하고 분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얻어집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에서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8)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지하게 찾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신앙을 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시작하기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 주님은 마른 우물에서 물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때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에는 상당한 힘과 연구, 긴 괴로움이 필요합니다.³¹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며 금식한다면 크나큰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³²



주님은 우리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교리와 성약 58:27)하기를 원하신다.

5

우리는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한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의사로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신다.

1831년, 주님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이니, 그런즉 그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로써 그들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는 만큼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게을리 지키는 자, 그는 정죄를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58:26~29)

주님의 목적, 즉 위대한 목표는 언제나 같은데, 그것은 바로 그분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입니다.

보통 주님은 성취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따라야 할 지침은 주시지만, 대부분의 세세한 사항과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보통 연구와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여 영의 속삭임을 얻고 따를 때 마련됩니다. 영성이 약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 일에서 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목표를 보고, 주님과 선지자로부터 오는 지침을 확인한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이 신성을 얻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때로 주님은 희망을 품고 자녀들이 스스로 행동하도록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그들은 큰 상을 잃게 되며, 주님은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그들이 그에 따르는 결과로 고통을 겪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규정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운데, 보통 그분이 더 개입하여 규정하실수록 우리가 받는 보상은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³³

우리는 훌륭한 대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 살면서 이곳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³⁴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늘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끼는가?(1편 참조) 선택의지의 원리를 계속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께서 왜 악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는지 궁금해한다. 2편에 나오는 벤슨 회장의 가르침은 그 질문에 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3편에 실린 진리를 자녀와 청소년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녀와 청소년들이 자신이 내린 결정의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그리스도와 같은 올바른 결정”(4편)을 내리는 것에 관한 벤슨 회장의 권고를 생각해 본다. 결정을 할 때 기도와 부지런한 노력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웠는가?

-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명을 받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의] 자유의사로”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5편 참조)

관련 성구

신명기 11:26~28; 여호수아 24:15; 니파이후서 2:14~16; 엘마서 42:2~4; 힐라맨서 14:30~31; 교리와 성약 29:39~45; 101:78

교사를 위한 도움말

소단위 그룹 토론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준다.] 일반적으로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도 큰 집단 앞에서의 발표가 아닌 소단위 그룹에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166쪽)

주

1. Gene Allred Sessions, *Latter-day Patriots* (1975), 77-78에서 인용.
2.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18-19, 34 참조.
3.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0-41 참조.
4.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20 참조.
5.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7, 22, 25-26, 29-31, 34-37 참조.
6. “The Constitution—A Glorious Standard,” *Ensign*, Sept. 1987, 6.
7. *God, Family, Country: Our Three Great Loyalties* (1975), 402.
8.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24.
9. Conference Report, Apr. 1965, 122 참조.
10. Conference Report, Oct. 1966, 121.
11. “나는 간증드립니다”,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96쪽.
12. “The Constitution—A Glorious Standard,” 6.
13. Conference Report, Oct. 1966, 121.
14. “The Constitution—A Glorious Standard,” 6.
1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82.
16. *So Shall Ye Reap* (1960), 221.
17. Conference Report, Apr. 1967, 59.
18. *Strength for the Battle: An Address Given by Ezra Taft Benson at the New England Rally for God, Family and Country* (1966), 14-15.
19. *Come unto Christ* (1983), 132.
20. *God, Family, Country*, 402.
21.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43~44쪽.
22. *Come unto Christ*, 40.
23. *God, Family, Country*, 326.
24.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빛*, 1987년 3월호, 2쪽.
25. *God, Family, Country*, 145.
26.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83-84.
2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4.
28. *God, Family, Country*, 143.
29. *God, Family, Country*, 144.
3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51.
31. *God, Family, Country*, 149.
32. *God, Family, Country*, 152.
33. Conference Report, Apr. 1965, 121-22.
3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676-77.



벤슨 회장은 기쁘게 사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환난의 시기에 기쁘게 생활하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흔쾌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모든 면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사도로서 맡았던 초기 임무 중 하나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유럽 성도들에게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일이었다. 그는 독일 여행길에서 황폐해진 환경을 딛고 일어난 충실한 사람들을 만났다. 벤슨 회장은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가장 참혹한 파괴 현장을 오늘 목격했다. …… 차를 타고 [베를린] 거리를 지나다가 차로는 갈 수 없는 곳이 나타나 차에서 내려 걷게 되었을 때 나는 …… 아사 지경에 이른 한 여성이 터무니 없는 가격임에도 기꺼이 감자 껍질을 사려 하는 것을 보았다. ……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작은 손도끼로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 주변을 열심히 파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딸감을 구해 작은 바퀴가 두 개 달린 유모차든 짐승이 끄는 달구지든 굴러갈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실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가져 가려 했다.

나중에 대회 모임에 참석한 나는, 폭격으로 초토화된 거리에 있는, 절반이 붕괴된 차디찬 강당 3층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의 아사지경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충실한 480명의 후기 성도들을 만났다. 그 신앙의 빛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 통한의 느낌이나 노여움은 없었으며, 다만 다정한 호응과 복음을 믿는 신앙만이 표출되고 있었다.”¹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일부 회원들은 거의 아사지경에 이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 우리의 성도들은 …… 희망과 용기와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과, 복음에 대한 깊고 깊은 신앙을 어디서든 드러내며, 기꺼이 앞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삶에서 결실을 맺은 복음의 실제 열매를 가장 분명하게 본 사례였다.”²

벤슨 회장은 또한 고향 근처에서 희망과 낙관주의를 경험했는데, 그곳의 동료 농부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늘 쾌활함을 잃지 않았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이다호 밴크로프트 근처에서 열렸던 어느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 우리는 훌륭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이 끝난 후,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한 농부 몇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요스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스트 형제님, 농장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요스트 형제는 ‘벤슨 형제님, 좋습니다만 3년 전보다는 약 2만 달러 정도를 손해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요, 또 서리 때문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아직 밀 이삭이 익기도 전에 서리가 몰아쳤지요. 그러니 상황이 어떠할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풀 베는 기계로 밀을 밀어 버릴 작정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창고에 적어도 1년간 먹을 양식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거두어들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와 작별하면서 저는 아내에게 ‘이 얼마나 훌륭한 정신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건[밴크로프트에서 13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유타의 도시]으로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데리고 갔으므로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 주려고 메인스트리트에 차를 세우고 식료품점에 들렀습니다. 그때 보도에서 요스트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형제님, 어디에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스트 형제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벤슨 형제님, 오늘은 우리 가족이 성전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을 겪으시고도 형제님은 끄떡없으시군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벤슨 형제님, 역경이 닥쳐오면 우리는 오히려 성전에 더 가야 합니다.’”³

성도들의 모범이 벤슨 회장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역경에 대처하는 그의 모습 역시 그를 아는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켜 주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벤슨 회장을 “사건을 신중히 관찰하는 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쾌활함과 명랑함을 유지하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한 쾌활함은 주위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을 무시해서 오

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시하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약속, 즉 왕국이 결국에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⁴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일에 대해 낙관하면서,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실망과 좌절을 겪는데, 그것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닌다면 우리의 장애물은 순간에 그칠 것이며, 겉으로 보기에 실패할 것만 같던 일에서도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자를 통해 기적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⁵

분쟁과 갈등의 시기에, 그리고 슬픔과 좌절의 시기에 내면의 평안과 확신을 얻으며 평정심과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것과,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확신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안겨 줍니다.⁶

기도, 특히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평안과 권고의 가장 위대한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교리와 성약 10:5) “하나님을 부르고자 내 온 힘을 다[한]”다는 구절은 어린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 들어가서 파멸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며 주님께 드린 기도의 방식을 묘사합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6)⁷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는 비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며, 현재 일에 대해 낙관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으면, 이 사업이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⁸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도 후기 성도인 우리는 염세적이 아니라 가장 낙천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지고 악마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릴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또한 “주도 자기 성도를 다스릴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교리와 성약 1:35~36)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험난한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이 교회는 순수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교회와 그 가르침에 충실히 머

무는 것이 우리 각자가 이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굳건히 견디며 지지 아니하는 자, 그 같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조셉 스미스—마태 1:11)⁹

2

**행복은 하루하루 그날에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에 따라 살며 계명을 지키십시오. 가정에서 아침과 밤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교회 표준을 지키십시오. 평온하게, 쾌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 행복은 하루하루 그날에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¹⁰

조지 에이 스미스 형제가 심하게 아팠을 때, 그의 사촌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찾아왔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던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노바스코샤의 탄광 갱속에 갇히거나 로키산에 깔린다 해도 낙담하지 말고 계속 신앙을 행사하고 훌륭한 용기를 보이면, 결국은 정상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

절망의 영이 떠나갈 때까지 그냥 의롭게 버티며 악마를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교리와 성약 121:7~8)

수많은 낙담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고귀한 일에 노력을 기울이며 전진한다면, 결국은 빛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동안 홀로 남겨지는 가장 큰 시련을 겪으시면서도 인간의 자녀들을 위해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후에 영화롭게 되시고 충만한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 지난날의 승리를 회상해 보고, 충실히 남을 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갖고서 자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을 잊게 해 주실 것임을,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린도전서 2:9)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¹¹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완벽을 향한 여정에서 영적인 힘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유쾌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침울함이나 우울함이 아닌 빛과 사랑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정적으로 사십시오.¹²

3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5)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표준을 낮출 때 행복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살지 않을 때 행복은 사라집니다. 어떤 일들을 건성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기는 매우 쉽습니다. 결점을 찾거나 비방하거나 마음속으로 교회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습관을 들이기도 매우 쉽습니다. 고통을 느끼다 거기에 계속 집착하게 되어 결국 슬픔에 잠기고

올상이 되어 버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슬픈 표정으로는 전쟁이나 사랑에서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¹³

바로 지금,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흔쾌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모든 면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완벽을 향한 여정에서 영적인 힘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러한 성장을 이룩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삶을 분할하지 마시다. 우리 삶을 통합하고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시는 허황된 명예와 영광에 눈을 돌리지 마시다. 우리의 힘과 행복의 진정한 원천은 인간과 환경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¹⁴

위대한 스승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 때에만,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만 우리를 옹아매는 무지와 의심의 속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영으로부터 오는 행복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간단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그분을 삶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받는 축복도 배가될 것입니다.¹⁵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뿔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3~14).

주님과 같이 되겠다는 목표로 온 마음을 가득 채워 보십시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나갈 때, 비관적인 온갖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립보서 2:5)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교리와 성약 6:36)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따라오겠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이사야 26:3).¹⁶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대로 산다면, 결코 홀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세운 선한 목표를 성취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행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¹⁷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니면 왜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일에 대해 낙관하면서” 살 수 있는가? 내적인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1편에 있는 권고 중 한 부분을 나누다면 어떤 내용을 나누겠는가? 왜 그 말씀을 선택하겠는가?
- 2편을 다시 살펴보면서 역경의 시기 동안 “의롭게 버[터야]” 했던 때를 떠올려 본다. 그 경험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본다. 주님은 충실하게 시련을 이겨 내려고 기꺼이 노력하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가?
-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성공을 거두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지금,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 [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가?]”(3편 참조)

관련 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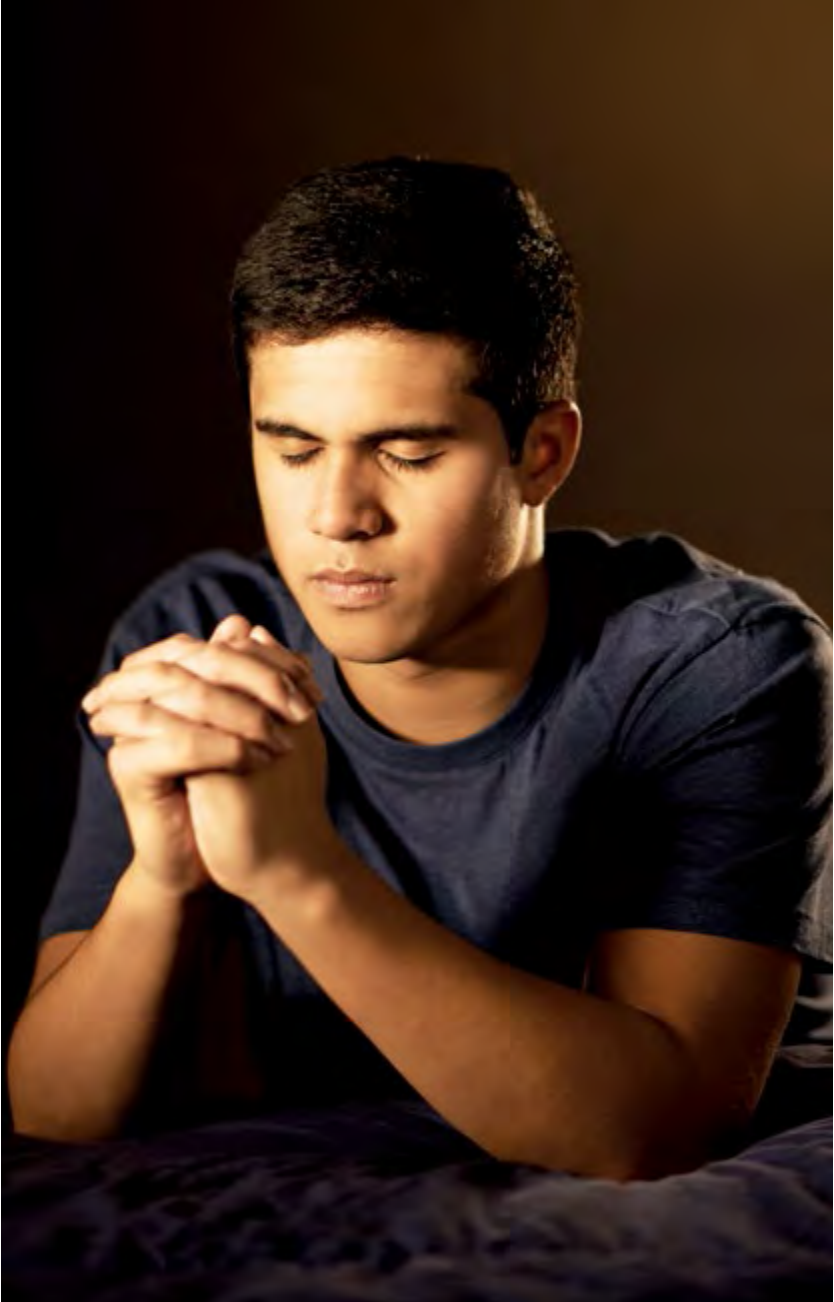
마태복음 11:28~30; 요한복음 14:27; 16:33; 갈라디아서 5:22; 모사이야서 2:41; 모로나이서 9:25~26; 교리와 성약 101:11~16

학습을 위한 도움말

“책, 장, 혹은 구절을 빨리 읽거나 머리글을 살펴봄으로써 개요를 파악한다. 전후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23쪽)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이나 구문을 한 번 이상 읽어 보도록 한다. 그렇게 할 때 심오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주

1. *A Labor of Love: The 1946 European Mission of Ezra Taft Benson* (1989), 64, 65.
2. *A Labor of Love*, 65.
3. “복숭아보다는 훌륭한 인간을”, *성도의 벗*, 1978년 9월호, 32쪽.
4. Neal A. Maxwell, *Wherefore, Ye Must Press Forward* (1977), 69.
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68.
6.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68.
7.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벗*, 1987년 3월호, 2쪽.
8.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67.
9. “절망하지 마십시오”, 2쪽.
1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42.
11. “절망하지 마십시오”, 5~6쪽; 조셉 스미스의 말씀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35쪽에 나옴.
1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39.
1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61.
1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39.
1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60.
16. “절망하지 마십시오”, 7쪽.
1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85.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이디서 12:27)



진정한 회개의 원리

“참된 회개에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절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용서의 감미로운 화평이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서는 첫 번째로 참석한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마음속으로 ‘이 세대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6:9; 11:9)라는 주님의 선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 모든 후기 선지자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¹

벤슨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기 전부터도 회개를 자신의 성역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그는 당시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권고를 따라 그렇게 했다. 벤슨 회장은 사도 직분에 부름을 받고 오래지 않아서 스미스 회장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 “지금부터 장로님의 사명은 진리를 전파하고, 장로님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친절한 방법으로 회개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경고하는 것입니다.”²

벤슨 회장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가르칠 때 이 권고에 충신했다. 그는 “고치고 뉘우치기보다는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³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또한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⁴라고 말씀했다. 그는 회개와 관련된, 마음의 “크나큰 변화”(앨마서 5:12 참조)를 강조했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구주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주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빈민가를 없애서서 그들이 스스로 빈민가를 빠져

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을 잡으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서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품행을 형성하지만,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⁵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계획이 곧 행복의 계획임을 깨달아야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 회원이란 교회 회원 기록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 왕국에 속한 회원을 정의하시는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1828년, 주님께서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 -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게로 오는 자, 그는 나의 교회니라.”(교리와 성약 10:67; 강조체 추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회원은 기록상의 회원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속임수의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자유를 억제하고 행복을 제한한다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표준은 때때로 인생에서 큰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적인 활동을 차단시키는 울타리와 사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복음의 계획은 인간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 주는 계획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복음 원리는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들이자 지침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 주의 계명들이 ……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편 119:97~98, 105, 111)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영원한 진리, 즉 복음의 계획이란 곧 행복의 계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악함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앨마서 41:10 참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오직 비참과 속박, 어둠에 처하게 될 뿐입니다.⁶

2

참된 회개를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회개가 신앙의 원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두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참된 회개에 선행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속죄 희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리하이는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니파이후서 2:8)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공덕만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로마서 3:23)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구주의 완전하고 죄 없는 생애가 아니었다면 죄 사유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단순히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습관과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탁월한 의지력과 자제심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공공연히 그분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행동의 변화는 그것이 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진실되며 의미 있는 회개를 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참으로 죄를 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구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⁷

회개는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수반한다.

우리가 교회의 참된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이해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회개를 통해 행동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이 제이라해플라 땅에서 훌륭한 설교를 마쳤을 때 백성들은 모두 그의 말을 믿는다고 한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로 볼 때 이 백성들은 그가 약속한 구속이 참되다는 확신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영 …… 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다음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모사이야서 5:2)⁸

인간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위대한 선교 사업을 통해 매일 발생합니다. 그것은 가장 널리 퍼진 그리스도의 현대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 보지 못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 ……

엘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든 인류, 참으로 남자와 여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니,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모사이야서 27:25~26) ……

엘마서 4장은 니파이인의 역사에서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어 갔[던]” (엘마서 4:10) 시기를 보여 줍니다. 엘마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자 행정부의 재판사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이 맡고 있던 책임인 “대신권직에 …… 전적으로 헌신”(엘마서 4:20)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순수한 간증으로”(엘마서 4:19) 말씀을 전한 그는 엘마서 5장에서 40가지가 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



엘마 이세는 회개를 통해 기적과 같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

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
(엘마서 5:14)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엘마서 5:26)

오늘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이 교회도 극적인 발전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거듭나고 몰몬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선교사들이 점점 증가하여 그들의 손에 들린 몰몬경의 수도 점점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가십니까? 선교사로서 것처럼 큰 능력을 갖추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거듭나도록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엘마였습니다.(엘마서 36:23~26 참조)⁹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의 영향을 통해서만 오게 되는 이 큰 변화를 겪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변화는 새로운 탄생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변화를 경

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깨끗지 못한, 죄 가운데서 살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입니다.¹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된 회개로 이어진다.

네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개념은 경전 용어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잘못 행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을 찾기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비참함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의 슬픔은 그들의 잘못이 밝혀지고 형벌을 받는 것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 니파이 국가가 종말을 맞이했을 때 몰몬은 그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슬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그보다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중에서 행복을 취함을 항상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심으로 인한 정죄 받은 자들의 슬퍼함이었음이라.

또 그들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랐느니라.”(몰몬서 2:13~14)

동반구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 일했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포함하여(고린도전서 5:1 참조) 성도들 간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보고를 들은 뒤 바울은 날카롭게 꾸짖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꾸짖음을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보낸 두 번째 서한을 볼 때, 그들이 그 문제를 바로잡았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린도후서 7:9~10)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슬픔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주, 즉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인 주님이 고뇌와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는 온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제3니파이 9:20; 모로나이서 6:2; 교리와 성약 20:37; 59:8; 시편 34:18; 51:17; 57:15 참조)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참된 회개의 절대적인 선행 요소입니다.¹¹

5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기를 염원하시며,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음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주의 강력하고 심오한 권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3:20)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네가 두드리기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으셨음을 유의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손짓하시며, 우리가 그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앙에 관한 모로나이의 위대한 설교는 이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든, 혹은 우리의 어떤 부분이 불충분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사와 권세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합니다.

모로나이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7)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의 근원이 변화되고 재형성되어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다른 많은 경전 구절에서도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이사야 40:29)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린도후서 12:9)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권능 아래 떠는 자는 강하게 될 것이요, …… 찬양과 지혜의 열매를 맺으리라.”(교리와 성약 52:17; 또한 니파이전서 17:3; 니파이후서 3:13; 교리와 성약 1:28; 133:58~59 참조)¹²

사탄이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한 가지는 사람들의 귀에 대고 그들은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며, 사탄은 그런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특히 심각한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자신의 힘보다 더 큰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큼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자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에게 가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수치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힘이 있으십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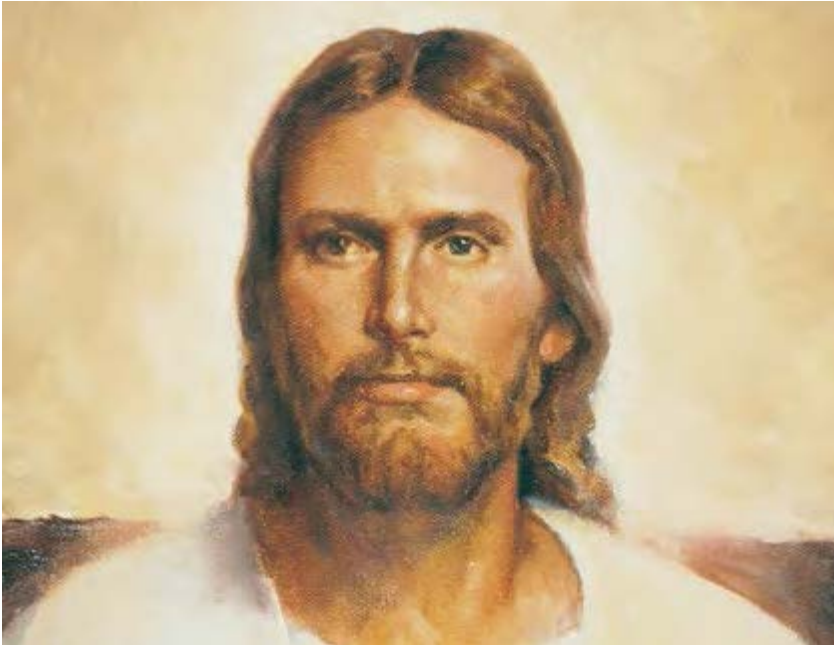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죄를 이겨 낼 힘을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¹⁴

6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회개 절차와 관련해서 전해 드리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평생의 과업으로서, 여기에는 거의 깨닫지 못할 정도의 느린 성장과 변화가 포함됩니다. 경전에는 극적으로 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노스, 라모나이 왕 등이 있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이와 같은 놀라운 예를 통해 속죄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 관해 토론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변화가 실제적이고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이 아닌 특별한, 예외의 경우였습니다. 바울이나 이노스, 라모나이 왕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회개 과정이 훨씬 더 미묘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것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



“참된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니다. 매일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선을 행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제3니파이 9:20)고 한 레이맨인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영혼의 닳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닳을 던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망과 낙담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매일 기울이는 노력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먼 길처럼 느껴지더라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¹⁵

참된 회개에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서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절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용서의 감미로운 화평이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이사야 1:18)

또 이 정륜의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똑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¹⁶

저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어 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과거에 얽매어 사는 사람에게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에 대해, 또는 우리가 내린 결정 중 되돌아보니 잘못된 것이었던 결정들에 대해 슬퍼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처한 환경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 상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이나 이미 저질렀던 실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도록 합시다. 현재와 미래를 살도록 합시다.¹⁷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여 그분께 나아와 그분이 정의하신 의미의 교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려 한다면 여섯 가지 원리를 기억합시다. 첫째, 복음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이며,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참된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셋째, 참된 회개에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포함됩니다. 넷째, 이 큰 변화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서서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면 모든 죄와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충분한 은사를 내려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회개가 놀랍고도 극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처럼 되는 길로 움직여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여 날마다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된 회원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교회에 속하여 나의 교회에서 끝까지 견디면, 그를 내가 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리니, 그리하면 지옥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10:69)

저는 우리가 모두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¹⁸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진실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계획이란 곧 행복의 계획”이고 사악함은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1편)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회개 과정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동이 변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2편 참조) 참으로 회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방법으로 3편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은,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경험해 보았는가? 다른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일부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느끼는 후회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4편 참조) 회개가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모나 감독은 4편의 가르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 5편을 검토하면서 어떤 가르침이 특별히 위안을 주었는가? 왜 그 가르침이 위안이 되는가?
- 벤슨 회장은 구주의 속죄 권능에 대한 간증을 전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6편)라고 말씀했다. 6편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속죄에 관한 어떤 진리에서 희망을 찾았는가?

관련 성구

누가복음 15:11~32; 모사이야서 4:10~12; 26:30~31; 엘마서 34:17~18; 제3 니파이 27:19~20; 교리와 성약 18:10~16; 19:15~19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의 주요한 관심사는 감명 깊은 공과를 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공부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것은 반원들이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4쪽)

주

1.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4쪽.
2.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184.
3. “순결의 법”, *성도의 벗*, 1988년 10월호, 38쪽.
4. Conference Report, Apr. 1955, 47.
5. “하나님께서로 태어남”, *성도의 벗*, 1989년 10월호, 5쪽.
6. “마음의 큰 변화”, *성도의 벗*, 1990년 3월호, 2, 4쪽.
7. “마음의 큰 변화”, 4쪽.
8. “마음의 큰 변화”, 4쪽.
9. “하나님께서로 태어남”, 2, 5쪽.
10. “마음의 큰 변화”, 4쪽.
11. “마음의 큰 변화”, 4~5쪽.
12. “마음의 큰 변화”, 5쪽.
13. “순결의 법”, 40쪽.
14. “마음의 큰 변화”, 7쪽.
15. “마음의 큰 변화”, 7쪽.
16. “순결의 법”, 40쪽.
1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387.
18. “마음의 큰 변화”, 7쪽.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실 유일한 근원으로 바라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어느 한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때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실체가 늘 저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에 대한 간증이 있는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¹

벤슨 회장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간증에 기초를 두었다. 벤슨 회장의 우선순위는 그 간증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 간증은 그의 선택을 이끌었으며, 시련의 시기에는 힘이 되었다. 그 간증을 통해 그는 필멸의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얻고, 영생에 대한 약속 및 축복을 확신할 수 있었다.

벤슨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인 사도로서 성역을 베푸는 동안 자주 구주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그는 “‘물문은 기독교인입니까?’라는 질문을 가끔씩은 받는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증을 전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실 유일한 근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그분이 이 지상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모사이야서 3:17)”²



“각 개인과 국가들에 주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벤슨 회장의 선언들은 물론경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³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물론경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증거를 우리 시대를 위해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⁴ 그는 물론경의 “주요 사명”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쳤다.⁵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했다. “물론경에 실려 있는 모든 성구의 절반 이상이 우리의 주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경에서는 백 개 이상의 다른 이름으로 그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들은 그분의 신성을 묘사해 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⁶

구주에 대한 벤슨 회장의 간증에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깝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랑이 가득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종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시며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 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님, 구주, 구속주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겸손히 기도드립니다.”⁷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에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지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도, 예배도 없이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혼란과 암흑의 굴레와 공포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목표에 우리가 다다르자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목표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완전을 향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이 그분의 가르침과 생애, 그분의 사망과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일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다음의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실 것을 미리 알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의 구주이며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셨기에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사명을 기꺼이 성취하려 하셨습니다.

그 어떤 필멸의 인간도 다른 사람을 길을 잃거나 타락한 상황에서 구속시킬 권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스스로 생명을 내어 줌으로써 다른 모든 인간을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구속의 사랑을 기꺼이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⁹

예수 그리스도는 …… 미리 약속된 때에 신성을 지니고 고귀한 출생을 통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인간의 속성을 물려받으셨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의 속성과 권능을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출생을 통해 육신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영광된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과거나 미래의 어느 인간도 갖지 못할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실 그대로 임마누엘로서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사야 7:14; 마태복음 1:23 참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지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필멸의 육신이 겪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험과 …… 주립, 갈증과 피로를”(모사이야서 3:7) 겪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기에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시[었으며]”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93:13, 17)¹⁰

예수님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다른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구주께서 그 짐을 기꺼이 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지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4~5).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진해서 짊어지신 그 성스럽고도 비이გი적인 행동이 바로 속죄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필멸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 18)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쓴 잔을 들어 마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박해자들의 굴욕과 모욕을 아무 불평이나 보복없이 견디셨고 채찍질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혹한 처형의 치욕도 참으셨습니다.¹¹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에서 무한하면서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속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후 그분의 죽음과 속죄가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육체적인 사망에서 구속하셨으며, 그분의 율법과 복음 의식을 따르는 이들을 영적인 사망에서 구속하셨습니다.¹²

우리는 필멸의 삶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내셨는지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업적은 모두 우리에게 대한 이타적이며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¹³

2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나오셨으며, 현재도
부활한 존재로서 살아 계신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던 이 일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각 개인과 국가들에 주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분명히 부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대비해서 착실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모든 이에게 일어날 것이기에 사람들은 영화로운 부활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부활처럼 전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고린도전서 15:22) 것이기에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 밀려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 중 가장 충실했던 몇몇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보니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3~6)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인류 역사상 이 극적인 말씀만큼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신뢰할 만한 수많은 증인들의 간증에 기초를 둡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몇몇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

자와 베드로와 그 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록했던 것처럼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 맨 나중에 ……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고린도전서 15:6, 8) ……

주님을 증거하는 후기의 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의 구주이고 주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화로우신 주님으로서 재림하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요한복음 14:19)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¹⁴

오직 그분에게만 부활에 이를 권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덤에 안치되지 지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 저 역시 오늘날 [그분의] 특별한 증인이라 불리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문자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진리보다 더 크게 확신하는 진리나 사실은 제게 없습니다.¹⁵

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서 담대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회원이 받게 되는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간증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내고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유물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것을 성신을 통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신성한 본질, 즉 실제로 그분이 육체를 입은 유일한 독생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동안 많은 위대한 기적을 이루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 교리로 규정하신 율법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러한 율법과 의식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스스로 원하여 깃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육과 영으로 고통을 받으시며 모든

땀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9:16, 18 참조)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 실제로 부활한 육신을 입고 무덤에서 당당히 일어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기에 모든 인류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이 만방에 전파되도록 복음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 절정의 때에 세우신 교회가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에 회복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닌 간증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사명과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과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조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계승한 이들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국에는 해의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 속에 매장됨으로써 그의 매장된 방식을 좇아 침례를 받은 자들이니, 이는 그가 주신 계명에 따른 것이라”(교리와 성약 76:51)

이들은 주께서 “신앙으로써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내려 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교리와 성약 76:53)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한 자들입니다.¹⁶

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완전히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구성된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확신, 희망, 신뢰를 오직 그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은 왜 당연한 일일까요? 또

한 이 세상에서 마음의 화평을 얻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따라 우리가 미래를 용기와 희망과 낙관으로 볼 것인가, 혹은 불안과 걱정과 비관으로 볼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저의 생각과 간증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극복하고 인간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데 필요한 희망과 확신, 힘을 가지신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분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 이상이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분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한한 권능, 지혜, 사랑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 보셨기에(교리와 성약 122:8 참조) 우리가 일상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란 우리는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슨 생각을 하든지 ……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아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6:36)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란 예수님이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못할 악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구는 예수님의 정당한 통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사회의 악에 대한 완전한 처방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우리의 생활에 적용될 때에만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니파이 후서 32:3)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마가복음 1:17)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39)

“오늘날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문제와 역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이 행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간단한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함을 믿으라. ……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함을 믿으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이제,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이를 행하도록 하라.”(모사이야서 4:9~10; 강조체 추가)¹⁷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할 때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을 얻게 된다.

이 생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명하시는 것이면 “다 행하는지”(아브라함서 3:25) 보이기 위해 시험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고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관한 핵심 화두는 바울이 제기한 이 질문과 같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시나이까”(사도행전 9:6[개역 개정판 경전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음-옮긴이]) ……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킬 그리스도의 남성과 여성이 더 필요합니다.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는 매순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얼마나 가까이에서 걸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¹⁸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꺼이 죽을 용의는 있으나 그 신앙대로 살려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살고,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또한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즉 위대한 영존자이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삶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제3니파이 27:27)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에 가장 근접한 생활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하며 축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부나 권력, 특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함과 축복, 기쁨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시험은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비슷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자체가 옳은 길이자 충만한 진리이며, 풍성한 삶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바라시나이까”(사도행전 9:6[개역 개정판 경전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음-옮긴이]) 그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또한 하고 계신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보답으로 무엇을 그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희생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선물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생명과 희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¹⁹

그리스도의 통솔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뜻은 주님의 뜻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요한복음 5:30 참조) 그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요한복음 8:29 참조) 그들은 주님을 위해 죽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 보면, 벽에 걸린 그림, 책장에 꽂힌 책, 잔잔히 흐르는 음악,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모사이야서 18:9 참조)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봅니다.(교리와 성약 6:36 참조)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서 마음속의 사랑을 영원토록 그분께 돌립니다.(엘마서 37:36 참조)

거의 매주 성찬을 취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영원하신 아버지께 다시 한 번 증거합니다.(모로나이서 4:3 참조)

물문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니파이후서 32:3)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니파이후서 25:26)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니파이후서 25:26)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니파이후서 25:25) “[그들의] 예수를 자랑”(니파이후서 33:6)한다고 나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버리고 영생을 찾습니다.(누가복음 17:33 참조)²⁰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구주께서 어떻게 속죄를 치르셨는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왜 하셨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1편 참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2편을 공부할 때 구주의 부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가장 귀한 축복”인 이유는 무엇일까?(3편 참조) 구주에 대한 간증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벤슨 회장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4편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표현한 이 글은 어떤 면에서 “그분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 이상이라는 점을 나타내는가?
- 벤슨 회장은 “그리스도의 통솔을 받는” 사람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5편 참조)고 말씀했다. 구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관련 성구

요한복음 10:17~18; 니파이후서 9:20~24; 31:20~21; 모사이야서 16:6~11; 제3니파이 27:20~22; 모로나이서 7:33; 교리와 성약 19:1~3, 16~19; 76:22~24; 신앙개조 제3조

학습을 위한 도움말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낄 때, 여러분은 배우는 것을 적용하고 싶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 지식 및 간증은 강화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19쪽)

주

1. “부활절의 의의”, 성도의 빛, 1993년 4월호, 3쪽.
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10.
3.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89쪽 참조; “나는 간증드립니다”,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97~98쪽.
4. “나는 간증드립니다”, 97쪽.
5.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89쪽; 또한 “하나님께서 태어남”, 성도의 빛, 1989년 10월호, 2쪽 참조.
6.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89쪽.
7.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 성도의 빛, 1990년 12월호, 8쪽.
8. “인생은 영원함”, 성도의 빛, 1992년 4월호, 4쪽.
9.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 4~5쪽.
10.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 4쪽.
11.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성도의 빛, 1991년 12월호, 4쪽.
12. “Keeping Christ in Christmas,” *Ensign*, Dec. 1993, 4.
13.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 5쪽.
14. “부활절의 의의”, 4, 5쪽.
15.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4쪽.
16.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답대한 자”, 성도의 빛, 1987년 6월호, 2쪽.
17.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 2, 4, 6, 8쪽.
18. “주님의 발자취 따라”, 성도의 빛, 1989년 2월호, 6, 7쪽.
19. “예수 그리스도—은사와 기대”, 성도의 빛, 1987년 12월호, 3, 4쪽.
20. “하나님께서 태어남”, 5~6쪽.



첫번째 시현의 메시지는 “이 지상에서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위한 …… 메시지입니다.”



조셉 스미스, 주님의 손의 도구

“복음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 즉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
중 가장 위대한 이 마지막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후기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1920년 초반,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교회에 가해진 거대한 반대”라고 그와 동반자가 칭했던 일들을 경험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신문, 잡지뿐 아니라 물문을 반대하는 활동 사진[영화들]까지 영국 전역에 난무했습니다.” 반대가 극심했기에 거리 전도 모임이나 전단지 나눠 주기와 같은 형태의 선교 활동은 중단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봉사하던 영국 북부 지역의 사우스 쉴즈 지부에는 매우 신앙심이 깊고 헌신적이며 충실한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으로 와서 성찬식 말씀을 해달라고 저와 제 동반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인쇄되고 있는 거짓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가 예배당을 사람들로 가득 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주제였고, 그들에게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며 연구했고 그 주제로 15분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예배당으로 갔을 때,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개회 순서 후에 제 동반자가 말씀을 전했고 그 후에 제가 아주 자유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유로운 기분을 제 삶에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끝내고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았더니,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니다. 배도를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니다. 저는 그저 조셉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며 제가 그 진리를 안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경전인 몰몬경의 출현에 대해 이야기하고 간증했습니다. 직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깨닫자마자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조셉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감사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조셉 스미스와 관련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던 이웃 중 일부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¹

벤슨 회장은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조셉 스미스의 부름에 대한 간증을 나눌 기회를 찾았다. 예를 들면, 미합중국 농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그를 초대 한 한 라디오 방송국은 방송에서 낭송하기 위해 벤슨 회장에게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하나 선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값진 진주의 조셉 스미스—역사에 있는 구절을 선택했다.²

무엇보다도, 그는 정기적으로 성도들에게 강력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간증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조셉 스미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복음의 경륜의 시대, 즉 가장 위대한 시대이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습니다.”³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세상에서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조셉 스미스는 진리를 추구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기존 교회들 간의 혼란은 그가 하나님께 어느 교회가 옳은지를 여쭙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밝은 빛 기둥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 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7)

조셉은 그 두 분 중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 어느 기독교 종파가 옳은지 여쭙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것도 옳지 않으니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⁴

1820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그분들이 지상에 오실 때에는 단지 소수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위한 메시지이자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 이래로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 중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사건의 의의와 중요성, 중대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⁵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이 교회의 기반이 되는 신학적 기초입니다.⁶

1820년에 선지자가 겪었던 일에서 드러난 가장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분들이 영광을 입은, 독립되고 개별적인 인격체인 것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⁷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존재로서 다시금 우리 시대에 이 지상에 오셨다는 지식, 즉 그분들이 실제로 소년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나타나신 기록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⁸

2

신약전서에 있는 예언대로, 조셉 스미스는 새로운 계시와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의 신앙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1823년부터 1827년까지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결과로 몰몬경이 출현하게 되었음을 그가 선언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알게 된 사람 중에는 현대에 천사가 지상에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 반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 4천 년 동안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 일을 계시로, 필요하다면, 천사의 성역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날들의 상황을 묘사할 때, 신약전서에서 요한은 구주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경고가 전해지리라 예언했습니다. 그 경고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통해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요한계시록 14:6~7)

계시자 요한의 이러한 간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계시가 임하고 하늘의 사자가 지상에 다시 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19세기 초에 이 천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왔음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 시대에 선지자에게 나타났다는 발표는 신약의 예언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⁹

1823년 9월 21일 밤에 한 천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모로나이였습니다. 그는 수세기 전 미대륙에 있었던 위대한 두 문명 국가의 …… 수많은 고대 선지자 중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¹⁰

3

몰몬경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가장 독보적인 증거이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조셉 스미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몰몬경이라는 경전이 발행된 것입니다.

몰몬경은 고대 미대륙 주민들의 기록이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뒤에 미대륙 백성들을 방문하여 성역을 베푸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주요 목적은 후대의 세대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라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몬경은 성경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또 다른 기록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요한이 예언한 대로, 하늘의 천사로부터 고대 기록을 받았습니 다. 이 천사는 조셉에게 나타나 금판에 새겨져 돌 상자에 담겨 있는, 고대 기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온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록이 묻힌 장소를 알려 주었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흐른 후, 이 젊은 선지자는 그 판과 그것을 번역할 도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경전으로 세상에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요한이 간증한 대로, 그 책에는 “영원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몰몬경의 기원과 관련된 우리의 증거가 정당한지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속드리건대, 진실한 마음으로 알고자 한다면 성신께서 그 진리를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엄숙하고 진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¹¹

만일 몰몬경이 참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조셉 스미스는 그분의 선지자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참되며, 계시를 받는 선지자를 통해 오늘날 인도되고 있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¹²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다시 세우셨다.

은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세기를 두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마태복음 6:10 참조]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고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그날은 바로 지금입니다!¹³

성스러운 숲에서 열네 살 소년이 드린 기도로,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¹⁴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

…… 조셉 스미스는 그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사업의 기초를 놓았고, 이 사업을 성취했다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 아래 시작한 이 후기의 위대한 사업을 교회가 계속해 나가도록 열쇠와 능력을 교회에 주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¹⁵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다른 사자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그를 성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역사 1:68~72; 교리와 성약 27:5~13 참조)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이 후기에 회복되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은사, 권리, 권능, 교리, 역원, 축복과 함께 회복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65; 115:3~4 참조)¹⁶

선지자 조셉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앞으로 나아가 교회를 조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인, 성스러운 기록에서 취한 물문경을 세상에 출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

빛과 진리를 다시 가져온 이 회복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사들은 겸허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진리에 대한 배도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늘이 다시 열렸고, 복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인간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¹⁷

조셉 스미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실하고 참되었다.

초기에 교회가 발전할 때, 교회에 대한 반대와 박해의 분위기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심어지기만 하면 어김없이 그 성장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¹⁸

열네 살 소년은 세상에 대항해서 진실하게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아셨기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셉이 죽음에 이르더라도 충실하고 참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¹⁹

몇몇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심히 경멸하며 그에 대해 그릇된 이야기를 하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사도 바울과 같이 젊은 선지자는 자신의 간증을 부인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주장을 지켜 나갔습니다.

“나는 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과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셉 스미스—역사 1:72)²⁰

조셉 스미스는 기꺼이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로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그 운명의 날 카테지 감옥으로 가며 순교의 길로 향할 때, 조셉은 그 도시와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하늘 아래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며 그들은 최고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History of the Church*, 6:554]

나중에 선지자는 감정에 겨워, 하지만 평온하고도 용감하게 말합니다.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나는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다. 그들이 내 삶을 취해 간다면 나는 죄 없이 죽으려니와 내 피가 복수를 위해 땅에서 외치리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여지리라. ‘그는 냉혹하게 죽임을 당하였다.’”[*History of the Church*, 6:555]²¹

그리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지상 삶에서 절정에 이르러 신성하게 부여된 자신의 사명 중 필멸의 부분을 성취했습니다. 그 필멸의 사명은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끝이 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요한계시록 13:8]이셨던 구주의 사명과 같이 조셉은 진정으로 그 위대한 사명에 예임되었습니다.²²

6

조셉 스미스는 오늘날 복음의 모든 경륜의 시대 중 가장 위대한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머리가 된다.

조셉 스미스는 비록 진리의 순교자로서 살해되었으나 아직도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 경륜의 시대의 머리가 되는 분으로서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임을 저는 압니다.²³

조셉 스미스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메시지, 물몬주의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계속 이 지상에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²⁴

선지자의 지상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원한 빛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묘사했던 “고귀하고 위대한 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고, 이들 모두 가운데에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신즉, 그들이 좋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서 계시더니, 그가 이르시되, 이들을 나는 나의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그가 영인 그들 가운데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시매, 그들이 좋았더라.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너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아브라함서 3:22~23)

조셉 스미스도 그러했습니다. 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과 함께 평의회에 있었습니다. 존귀하고 특별하며 중요한 지위를 받은 그는 분명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구원, 즉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참조] 주님의 위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정된 대로, 지상에 왔었던 모든 이와 당시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민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이전에 대천국 회의에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성임되었습니다. 저도 그 천국 회의에서 바로 이 직분에 성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며, 이 백성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간증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64 참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운명의 인간인 조셉 스미스의 과업 및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일은 바로 인간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지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부름받았으며, 하늘의 사자들이 보내졌습니다. 또한 성스럽고 중요한 경우에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 “고귀하고 위대한 자” 중 한 명이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저 위 세상에서 이곳 지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시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눈에는 이것은 모두 하나의 영원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영원한 신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²⁵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지금도 그러하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진정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며, 운명의 인간, 고결한 사람, 용감하고 깊은 영성을 지닌 인간이자 주님의 신성한 선지자이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진정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²⁶

그렇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 즉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 중 가장 위대한 이 마지막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후기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습니다.²⁷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1편 참조)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건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계시자 요한이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할 것을 예언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가?(2편 참조)
- 벤슨 회장은 몰몬경이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독보적인 증거”라고 말했다.(3편 참조) 몰몬경 연구는 조셉 스미스의 사명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4편에 있는 벤슨 회장의 간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복음 회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한 축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박해를 헤쳐 나가는 것에 대해 5편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에 위협을 가할 때 조셉 스미스의 모범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벤슨 회장은 조셉 스미스의 예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명은 예정된 대로, 지상에 왔었던 모든 이와 당시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6편)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이에게 조셉 스미스의 사명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관련 성구

이사야 29:13~14; 니파이후서 3:3~15; 제3니파이 21:9~11; 교리와 성약 5:9~10; 135편; 조셉 스미스—역사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개인 학습을 하며 배운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주 중에 반원 두세 명에게 연락하여 배운 내용을 나눌 준비를 해 오도록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본 교재의 vii쪽)

주

1. <i>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i> (1988), 206, 207.	7. <i>Come unto Christ</i> (1983), 74.
2. Sheri L. Dew, <i>Ezra Taft Benson: A Biography</i> (1987), 292 참조.	8. Conference Report, Apr. 1958, 60.
3. Conference Report, Apr. 1961, 114.	9. “조셉 스미스: 우리 세대의 선지자”, 86쪽.
4. “조셉 스미스: 우리 세대의 선지자”, <i>성도의 벗</i> , 1982년 4월호, 87쪽.	10. <i>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i> , 46.
5. <i>God, Family, Country: Our Three Great Loyalties</i> (1974), 57.	11. “조셉 스미스: 우리 세대의 선지자”, 86~87쪽.
6. <i>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i> , 101.	12.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 <i>성도의 벗</i> , 1988년 5월호, 6쪽.
	13.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i>성도의 벗</i> , 1978년 10월호, 50쪽.

14. Conference Report, Oct. 1956, 108.
15. “전 세계에 고하는 경고의 말씀”, *성도의 빛*, 1976년 2월호, 29쪽.
16. “나는 간증드립니다”,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97쪽.
17. Conference Report, Oct. 1949, 27, 28.
18. *Come unto Christ*, 81.
19. *God, Family, Country*, 38.
20. “조셉 스미스: 우리 세대의 선지자”, 87쪽.
21. *God, Family, Country*, 37-38.
22. *God, Family, Country*, 29.
23. “전 세계에 고하는 경고의 말씀”, 29쪽.
24. *God, Family, Country*, 40-41.
25. *God, Family, Country*, 30-31.
26. *God, Family, Country*, 37.
27. *God, Family, Country*, 39.



하나님 말씀의 힘에 대해 자주 간증을 전했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말씀의 힘

“경전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개인적인 계시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강화하고 영으로 무장시켜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계속 굳게 붙들게 하며, 이생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제일회장단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제2보좌로 봉사하면서 본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벤슨 회장님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들을 재빨리 파악하셨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님의 영감을 찾기 위해 해당 사안을 긴 시간 동안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교회가 매우 커진 것과 제일회장단 앞에 놓이는 많은 사안을 고려해 볼 때,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그러한 능력은 교회의 행정일을 수행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¹

1986년 4월 4일, 벤슨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서 처음 맞는 연차 대회와 연계해서 신권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 모임을 감리했다. 그 모임에 참석한 형제들은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그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 벤슨 회장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유혹, 가정에서의 어려움, 계명을 지키고 교회 의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같은 후기 성도들이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언급했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다루었다.

벤슨 회장은 그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준비해 온 말씀 중 일부분만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말씀 전문을 교회 잡지 연차 대회 특집호에 신도록 요청했다. 본 장에는 그 말씀 전문이 실려 있다. 이 지시는 신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했지만, 벤슨 회장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될 원리를 가르쳤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1

우리 시대의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신권 역원 모임을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실함을 보여 주고 있는가를 알기에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같은 의로운 목적으로 모이는 단체는 오늘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정치적, 종교적 또는 군사적인 다른 어떠한 단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큰 시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지고 악마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릴 힘을 가지게 될 그 시각”(교리와 성약 1:35)이라 말씀하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자 요한이 예견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요한계시록 12:17)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간증을 갖고 있으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 회원들에 대항해 사탄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회원들은 성실하고 강한 반면, 몇몇 회원들은 흔들립니다. 더러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떤 성도들은 정복당하리라는 요한의 예언대로 정복당하고 있습니다.(요한계시록 13:7)

선지자 리하이 역시 생명 나무의 꿈에 관한 위대한 시현에서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상징하는 어둠의 안개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보았으며(니파이전서 12:17) “금단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과 더러운 강물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길”(니파이전서 8:28, 32)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약의 피해가 확산되고, 유해한 외설물과 부도덕이 홍수처럼 밀려든다는 기사를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리하이가 묘사한 금단의 길이자 강물이라는 것을 그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리하이가 본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서 멸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까지 이르러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일부 회원들은 리하이가 본, 길을 잃은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를, 휘방하며, 참소하며, 사나우며, 교만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로 묘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1~7) 그는 또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디모데후서 3:13)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의 그러한 냉혹한 예언은 그 선지자 본인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큰 두려움과 실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감받은 권고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위기에 대처할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리하이는 꿈에서 어둠의 안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놓인 쇠막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막대를 잡은 사람들은, 더러운 강물을 피할 수 있고, 금단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상한 길에서 헤매지 않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 니파이는 쇠막대의 상징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이 “쇠막대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고 묻자 니파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약속의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니파이전서 15:23~24).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열매보다도 가장 먹음직스러운 열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혹에 저항하는 힘과, 사탄 및 그의 사자들의 일을 방해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리하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미래(그에게는 미래였지만 우리에게서는 현재입니다.)에 있을 극도의 사악함을 묘사한 다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

어려서부터 성경[경전]을 알았나니 성경[경전]은 능히 너로 하여금 ……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4~15).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큰 시련에 대한 해답입니다. 경전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개인적인 계시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강화하고 영으로 무장시켜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계속 굳게 붙들게 하며, 이생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²

개인과 가족들이 경전에 몰입하면, 교회의 다른 활동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이제 신권 지도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리하이와 바울, 그리고 그들과 같은 다른 이들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들 주위에 가득한 “노략질하는 이리”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려 할 때, 여러분이 겪게 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그 말씀 안에 있을 것입니다.(마태복음 7:15; 사도행전 20:29)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테이크 회원들을 크게 염려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음을 압니다. 지도자인 여러분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어깨에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원들을 접견하고 권고하며, 스테이크와 와드의 재정 문제가 합당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피고, 복지 사업을 운영하며, 건물 건축 및 온 신경을 다 써야 하는 수많은 활동들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시되거나 제쳐 놓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것이 여러분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큰 영적인 보상을 가져다주는 특정 활동들을 반복해서 권고해 왔습니다. 1970년 초에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지역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변질되지 않고 진리와 이성으로 가득 찬 복음에 굽주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악한 모든 것에 대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한 무기가 주님의 말씀임을, 즉 경전에 있는 평범하고 단순한 구원의 교리임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70년, 6쪽)

1976년 제일회장단 메시지에서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최소한 조금의 시간이라도 할애하여 각자 자신을 위해 경전을 발견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재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실 때 주님께서서는 이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며, 그분은 오히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누가복음 12:48)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경전을 연구해야 하며(제



“회원 개개인과 가족들이 …… 경전 연구에 몰입한다면” 위대한 축복이 따라온다.

3니파이 23:1~5), 우리는 경전이 우리 생활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Ensign, Sept. 1976, pp. 4-5)

1982년에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지역 대표들에게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에서 경전이 차지하는 우선순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통계, 세태, 재산, 토지, 재물 또는 우리 사업의 가장 정점이 될 목표를 성취하는 문제들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더욱 중요한 율법의 문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 행정적인 문제에서 아무리 큰 재능을 발휘하고, 견해를 아무리 유창하게 표현하고, 세상의 것에 대한 학식이 아무리 깊다 한들, 경전을 연구하고, 숙고하고, 기도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을 아름다운 영의 속삭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82년 4월 2일, 1~2쪽)

같은 날,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님은 스테이크 회장과 지역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물도 중요하고, 보고서도, 절차도,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필수적인 영적 영양분을 전달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내주신 일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양분이 들어 있는 올바른 것은 경전에 모여 있습니다.”(스테이크 회장 및 지역 대표 모임, 1982년 4월 2일, 1~2쪽)

저는 이 현명하고 영감에 가득 찬 형제님들의 말씀에 덧붙여, 여러분이 신권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전에 몰두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탐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십시오. 교리를 배우십시오. 그 속에 들어 있는 원리를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부름에 더 큰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은 교회 회원들의 뜻깊은 경전 연구를 신장하기 위해 크나큰 노력과 활동을 할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스테이크 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찬식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백분율을 높이기 위해 일합니다. 성전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왕국의 성장에 중요하고도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회원 개개인과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전 연구에 몰입한다면, 이러한 기타 모든 활동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간증이 증가되고 결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이 강화되고 개인적인 계시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³

3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인도받고, 영혼이 치유되며, 속임수를 피하고 유혹에 저항할 힘을 얻게 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물문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물문경, 소개) 그것이 바로 우리 와드와 스테이크의 회원들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후의 경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권유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들이 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이 주께서 그들에게 지워 주신 짐이 아니라 큰 축복이요, 기회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점에 대해 주께서 몸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유의하십시오. 위대한 선지자이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하리라”(여호수아 1:8).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물질적인 부와 명성이 아닌, 그의 생활이 의로움 가운데서 평탄하게 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참된 기쁨을 찾는 일에서 형통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니파이후서 2:25 참조)

여러분의 스테이크에는 죄나 재난으로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서 실망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며, 그들의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할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까? 선지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훌륭한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쁜 말씀, 곧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리로 올라왔도다.”(야곱서 2:8)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매료시키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 가장 훌륭한 우리 회원들조차도 그에 이끌려 잘못을 저지르고 기만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학생들도 때로 복음 교리에 의문을 품게 하는 세상의 교리에 너무도 심취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권 지도자로서 그와 같은 기만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의 회원들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주께서는 위대한 감람산의 설교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에 대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조셉 스미스—마태 1:37)

경전에는 말씀의 가치와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원 중에는 일상 생활에서의 지침과 인도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그리고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면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니파이후서 32:3)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회원들 중에서 죄에 깊이 빠져 있어 거기서 탈출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힐라맨은 이러한 약속을 들려줍니다. “참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음을 아노니, 그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악마의 모든 교활과 올무와 간계를 파하고”(힐라맨서 3:29).

의로움 가운데 성공을 이루고, 속임수를 피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받고, 일상 생활에서 인도되며, 영혼이 치유되는 등의 일은 주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주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 지킨다면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면에서 부지런하다 해도, 오직 경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생명 나무에 이르는 어둠의 안개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만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⁴

주님의 말씀은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힘과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초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엄숙한 경고의 말씀에서 주님은 몰몬경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너희 마음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가벼이 다루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

이 허영과 믿지 않음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 아래 놓이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정죄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 성약 곧 몰몬경[을] …… 기억하[기까지] …… 그들은 이 정죄 아래 머물러 있으리니”(교리와 성약 84:54~57).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께 직접 받은 위대한 것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중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경전 연구에 다시 몰두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매일 같이 경전을 깊이 상고하여 여러분의 부름에 영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고, 자녀들에게 경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교회 회원들이 여러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다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도 얼마처럼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 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를 있[더라]”(엘마서 31:5).

엘마와 같이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엘마서 31:5)⁵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이 “우리 시대의 큰 시련에 대한 해답”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1편) 이 해답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회원 개개인과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전 연구에 몰입”(2편)할 때 얻게 된다고 벤슨 회장이 말씀한 결과들을 살펴본다. 경전을 연구할 때 그러한 결과를 얻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벤슨 회장은 경전 연구가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했다.(3편 참조) 경전 연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경전 연구를 짐으로 느끼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겠는가?
-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룰 때 생기는 위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4편 참조)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련 성구

사도행전 17:11; 디모테후서 3:16~17; 니파이전서 19:23~24; 엘마서 32:21~43; 교리와 성약 18:33~36; 21:4~6; 68:1~4

학습을 위한 도움말

“많은 사람들이 밤에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날의 걱정거리가 사라진 후에 갖는 조용한 시간에 경전을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 하루 중 언제 연구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워드 더블유 헌터, “경전 읽기”,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94~95쪽)

주

1. Thomas S. Monson,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487-88.
2. “말씀의 힘”,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7~88쪽.
3. “말씀의 힘”, 88~89쪽.
4. “말씀의 힘”, 89~90쪽.
5. “말씀의 힘”, 90쪽.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 소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몰몬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1986년 1월 5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버지니아 주 애난데일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다. 그 대회는 벤슨 회장이 교회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참석한 스테이크 대회였다. 그곳에 참석한 후기 성도들은 벤슨 회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화를 받은 것이 분명했다.” 말씀에서 “그는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몰몬경의 힘에 대해 간증했다.” 벤슨 회장은 “경전을 연구하라는 힘찬 도전 과제를 주었다.”¹

그 메시지는 벤슨 회장의 성역에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도 자주 후기 성도들에게 몰몬경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라며 권유했다.² 그리고 이제 그는 교회 회장으로서는 그 메시지를 더 강조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던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종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십일조의 원리를 재강조함으로써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 오늘날 주님께서서는 계시를 통해 몰몬경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³ 벤슨 회장은 선교사 모임, 스테이크 및 지구 대회, 연차 대회, 총관리 역원과의 모임 등 어느 곳을 가든지 몰몬경에 대해 간증했다.⁴

벤슨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서는 전한 첫 번째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것이 긴급한 메시지인 한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가 몰몬경을 읽지 않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리와 성약 84편에 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물문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말했다.

오롯이 주님께서 온 교회가 정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죄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4:56]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 성약 곧 몰몬경과 내가 그들에게 준 이전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말로써만이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까지 그들은 이 정죄 아래 머물러 있으리니’[교리와 성약 84:57]”⁵

다음 인용문은 벤슨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서는 진한 말씀들에서 따온 것으로, 그가 몰몬경과 관련하여 어떤 경고와 약속을 주었는지를 보여 준다.

“이제 우리는 몰몬경에 관해 좀 더 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더욱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에 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시온의 자녀 위에 쏟아질 징계와 심판이 여전히 머물러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4:58] 우리는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몰몬경은 우리 개인 학습, 가정에서의 가르침, 복음 전파, 선교 사업에서 중심이 되지 못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⁶

“우리는 몰몬경을 활용해야 할 만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리스도께 데려가기 위하여 몰몬경을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은 강하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몰몬경을 활용하여 그릇된 것을 폭로하고 맞서서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 가족은 어쩌면 세상적인 성향과 가르침으로 물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몰몬경을 갖고 [가르치지] 않는 한 우리 선교사들은 효과적이 되지 못합니다. 몰몬경에 담겨 있는 충만한 복음을 강하게 믿지 않는 한, 사회적, 윤리적, 문화적, 교육적 개종자들은 오늘날의 유혹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몰몬경을 표준으로 받들지 않는 한, 교회의 우리 공과반에는 영이 충분히 깃들지 못합니다.”⁷

“여러분이 몰몬경을 더욱 잘 이해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매일 몰몬경을 읽고 그 교훈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온의 자녀와 교회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⁸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는 못하나, 이 사실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몰몬경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진실로 시온의 모든 자녀에게 맡기신 이 큰 책임이 이행되도록 돕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세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결코 시온이 구속됨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몰몬경이 지상에 차고 넘치고 주께서 주님의 저주를 거두실 날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54~58 참조) 그러나 저는 주님의 뜻대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제 남은 생애를 보내고자 합니다.”⁹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다.

몰몬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셉 스미스는 이 책이 “우리 종교의 종석”(History of the Church, 4:461)이라고 했습니다. 조셉은 “만일 몰몬경과 계시를 떼어 내면 우리 종교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2:52)라고 말했습니다.¹⁰

종석이란 아치 중앙에 놓는 돌입니다. 종석은 다른 돌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받쳐 줍니다. 종석을 떼어 내면 아치는 무너져 버립니다.

…… 종석을 떼어 내면 아치가 무너지듯이, 교회의 모든 것은 몰몬경의 진실성과 더불어 서게 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적대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몰몬경을 논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권의 열쇠와 계시, 회복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주장도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몰몬경이 참되다면,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몬경이 참되다는 영의 증거를 받았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¹¹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큼 더 분명하게 이 경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즉, (1) 그것은 참되고(교리와 성약 17:6), (2)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실려 있으며(교리와 성약 19:26), (3) 높은 곳에서 온 능력을 통해 번역되었고(교리와 성약 20:8), (4)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있으며(교리와 성약 20:9; 42:12), (5) 영감으로 주어져 천사들의 성역으로 확인되었으며(교리와 성약 20:10), (6) 거룩한 경전이 참됨을 증거해 주고(교리와 성약 20:11), (7)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0:14)¹²

2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 준다.

몰몬경의 표제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몰몬경의 주요 사명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직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의 영감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¹³

우리는 새로운 성약, 곧 몰몬경을 기억합니까?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언약(testament)이라는 단어는 또한 성약(covenant)이라 번역될 수 있는 희랍어 단어를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주께서 몰몬경을 “새로운 성약”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예수의 또 다른 성약, 곧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몰몬경의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

몰몬경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인 종석입니다. 그것은 힘과 명백함으로 주님의 실재하심을 증거합니다. 수 세대 동안, 원본을 변경시킨 필사자나 번역자, 또는 부패한 종교가들의 손을 거쳐 내려온 성경과는 달리, 몰몬경은 단 한 차례의, 영감에 따른 번역 단계를 거쳐 저자에게서 독자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주에 대한 그 간증은 분명하며, 오염되지 않고,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상당히 많이 구주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비로운 탄생과 그분의 완전한 생과 그분의 영화로운 부활의 실재에 의문을 품습니다. 몰몬경은 그러한



몰몬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분명하며,
오염되지 않고,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진리에 대해 명백하고 틀림없는 말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또한 속죄의 교리를 가장 완전하게 설명해 줍니다. 참으로 이 거룩하고 영감 어린 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종석입니다.¹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4:461] ……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일상 생활에서 그와 같이 되고자 하며, 항상 그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몰몬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책에 들어 있는 힘을 완전히 알고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매리온 지롬니 회장님은 몰몬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임하게 될 축복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몰몬경을 읽는다면, 그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 가정과 그 가정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건의 정신이 커지며,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다투는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고에 더 잘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의로움이 커지게 됩니다. 신앙, 소망,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가 우리 가정과 생활에 풍성하게 되어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97쪽)

가족이 더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경심이 더 커지게 되고, 영성과 의로움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러한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말한, 바로 그 의미입니다.¹⁵

3

몰몬경은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가 틀렸음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적을 드러내 준다.

주님은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교리와 성약 20:9)이 들어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책에 이제까지 제시된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충만한 교리를 몰몬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책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가르치므로 어린아이이라도 구원과 승영에 이르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는 많은 것을 제시합니다. 그 책 없이는, 다른 경전들에 담긴 수많은 가르침이 것처럼 명백하고 귀한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¹⁶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도 몰몬경에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간결하며, 또한 완벽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비견될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록에서 타락의 본질,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 속죄의 교리, 속죄와 관련된 공의와 자비의 교리, 복음 원리 및 의식을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몰몬경은 이러한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¹⁷

몰몬경은 …… 성경을 증거하고 명백히 해 줍니다. 몰몬경은 걸림돌을 제거하며 수많은 명백하고 귀한 사실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성경과 몰몬경

을 함께 사용할 때 거짓 교리를 뒤집어 엮고 논쟁을 잠재우며 평화를 이룩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니파이후서 3:12)¹⁸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몰몬경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에 담겨 있는 역사와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이야기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에서 몰몬경을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많은 거짓 이론과 인간의 철학에 맞서 그 잘못을 밝혀 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몰몬경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사이에는 분별력과 통찰력, 확신, 영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몰몬경은 훌륭한 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¹⁹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적들을 노출시킵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뒤집어 엮으며 논쟁을 잠재웁니다.(니파이후서 3:12 참조) 겸손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강화하여 오늘날 악마의 사악한 계획과 술책과 교리에 대항하게 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배도의 형태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배도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끝없이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대의 그릇된 교육, 정치, 종교, 철학 개념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몰몬경을 마련하셨습니다.²⁰

교리와 성약은 몰몬경과 계속되고 있는 회복의 사업을 연결하는 교리가 된다.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기의 이 위대한 두 경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 그분의 백성을 모으고 준비시킬 목적으로 말씀해 주신 계시로서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가지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5:10)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은 이 약속이 일부 성취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두 경전은 이 세대에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

후기의 이 위대한 두 경전에 담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는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상, 교리와 성약과 몰몬경은 각 장마다 주님에 대해, 즉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과 우리를 위해 치르신 속죄 희생

에 관해 가르쳐 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후기의 이 위대한 두 경전에는 엄청난 부정과 악이 만연된 시대에도 좀 더 훌륭한 삶을 사는 데 힘이 될 지식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상고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위안과 조연과 지침, 숨겨진 능력을 얻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²¹

교리와 성약은 몰몬경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 및 그의 계승자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이 회복의 사업과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됩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을 통해 성전 사업, 영원한 가족, 영광의 등급, 교회 조직 및 기타 수많은 회복의 위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중석”이며, 교리와 성약은 끊임없는 후기의 계시로 만들어진 “관석”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중석과 관석 모두를 승인해 주셨습니다.²²

교리와 성약은 우리 세대에 직접 주어진 영광스러운 경전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이 후기에 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경전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지 않은 진리와 교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몰몬경과 마찬가지로 이 경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보존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후기의 계시가 담긴 이 경전들을 사용하여 우리 삶에 축복을 끌어들이고 악한 자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습니까? 이 경전들이 주어진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경전들을 소홀히 대하여 우리의 책장에 먼지가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경전들에는 이 시련과 환난의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엄숙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이 경전들은 성경과 함께 주님과 그분의 사업을 증거합니다. 여기에는 후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이들 경전을 읽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²³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몰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는 벤슨 회장의 가르침(1편 참조)을 읽으면 서, 자신의 삶에서 몰몬경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 본다. 복음을 따라 살 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몰몬경이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는 어떻 게 노력할 수 있을까?
-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 준다고 벤슨 회장은 말씀했다.(2편 참조) 몰몬경을 공부하면 서 구주에 대해 어떤 것들을 배웠는가? 몰몬경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었는가?
- 왜 “다른 어떤 책보다도 몰몬경을 더 잘 알아야” 하는가? 몰몬경에 담겨 있 는 교리가 어떻게 “오늘날 악마의 …… 교리”(3편 참조)에 대항하여 여러분 을 강화해 주었는가?
-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를 강화하는가?(4 편 참조)

관련 성구

이사야 29:9~18; 니파이전서 13:35~41; 니파이후서 25:23, 26; 29:6~9; 교리 와 성약 1:17~29

교사를 위한 도움말

“대부분의 공과 교재에는 토론을 시작하게 하고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한 질문들이 들어 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공과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생각 깊은 [견해를 나누도록] 질문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숙고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3쪽)

주

1.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489.
2.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몰몬경”,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0~42쪽; “그리스도의 새 증인”,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6~8쪽 참조; 또한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91-93 참조.
3. “거룩한 책임”,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6쪽;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157~160쪽 참조.
4.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95 참조.
5.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5쪽.

6.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5쪽.
7.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벗*, 1988년 5월호, 6쪽.
8. “거룩한 책임”,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6쪽.
9. “온 지상이 물몬경으로 차고 넘침”,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6쪽.
10. “그리스도의 새 증인”, 6쪽.
11. “물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5쪽.
12. “물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4쪽.
13.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89쪽.
14. “물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4, 5쪽.
15. “물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6, 7쪽.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1972년 7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16. “물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5쪽.
1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56.
18. “그리스도의 새 증인”, 8쪽.
19. “예수 그리스도—은사와 기대”, *성도의 벗*, 1987년 12월호, 3쪽.
20.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벗*, 1988년 5월호, 3쪽.
21. “현대 계시의 은사”,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103, 104쪽.
22.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94쪽.
23. “현대 계시의 은사”, 105쪽.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건네준 책 속의 진리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고 있다.



몰몬경으로 온 세상을 덮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몰몬경] 속에는 그 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198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벤슨 회장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저는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이 성스러운 책을 읽고 있다는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

몰몬경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저도 이 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매일 계속해서 몰몬경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워 행하게 될 것입니다.”¹

교회 전체에 걸쳐서 후기 성도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다음 권고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 기사들은 벤슨 회장의 “몰몬경으로 온 세상을 덮고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라]”²는 권고에 응한 이들이 받은 축복들의 실례이다.

“마고 메릴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부모들에게 자녀와 함께 몰몬경을 읽도록 요청하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진심은 아니실 거야!’라고 생각했다. ‘우리 아이들은 이게 겨우 여섯 살, 다섯 살, 두 살배기인걸. 시간과 인내심만 낭비하게 될 거야.’

그래도 메릴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몰몬경을 읽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니파이와 부러진 활 이야기를 읽을 즈음, 여섯 살 난 멜리사가 폐렴을 앓게 되었다.

‘멜리사는 아프면서도 학교에 가게 해 달라고 졸라댔어요.’라고 마고가 말했다. ‘자기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 파멜라가 니파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멜리사는 흐느끼며 제 품속에 꼭 안겼어요. 저는 멜리사의 눈물을 닦아 주고, 파멜라에게 전화를 걸어서, 니파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 주면 어떻겠냐고 했지요.

멜리사가 니파이의 부러진 활에 관해 자세히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몰몬경을 읽는 것을 시간과 인내심의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몰몬경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깨달았죠.”³

하워드 제이 맥음버 이세는 몰몬경으로 온 세상을 덮으라는 벤슨 회장의 권고를 깊이 생각했다. 그는 ‘한 개인으로서 나는 그와 같이 세상을 덮는 일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맥음버 형제는 기사에서 이렇게 썼다. “어느 날 밤,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던 중에 내가 우리 동네의 모든 사람에게 몰몬경을 받아 볼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그들이 나를 안다는 점이었다. 이웃들은 내 개가 자주 짖어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도 이른 아침에 말이다. 그들은 내가 뜰을 이웃들만큼 잘 가꾸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은 이웃으로서 나의 결점을 알고 있기에 아마도 나를 거절할 것이다.

나는 신앙을 갖고 어떻게든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이 몰몬경을 던져 버리거나 여러 해 동안 선반 위에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할지라도 그 책을 권해 볼 작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내 노력이 아무런 소득도 없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나는 이웃들이 나를 아는 만큼 적어도 나도 그들을 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몇 명은 지난번에 있었던 지역 사회 발전 모임에서 미심쩍은 농담을 했고, 몇 명은 지난번 동네 바비큐 파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몇몇은 삶의 목적이 거의 없는 듯 보였다. 내가 만일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또는 몰몬경에 대해 들어 본 적도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이 책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 사람 모두를 만나서 물몬경을 권했고, 그들은 모두 고맙다고 했다! 정말 진행이 잘 되어서 나는 옆 동네에도 갔고, 내가 속한 구역을 모두 돌았으며, 그런 다음 옆 구역에도 갔다. 나는 다니면서 104채의 집을 방문했고 물몬경 40권을 놓아두었다.

지인에게 물몬경을 권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나는 직장 직원들 75명 모두에게 물몬경을 주었다. 그중 23명이 선 교사와 토론을 했다. 이후에 7명이 침례를 받았고, 동료들의 자녀 4명도 교회에 들어왔다. 한 남성은 두 번째 토론을 하고서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흥미를 잃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고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 후에 그는 전화를 걸어 자신이 물몬경을 읽고 있으며, 내가 설명했듯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영의 느낌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도 곧 토론을 마치고 침례를 받았다.

나는 물몬경을 사랑한다. 나는 그 책을 주님의 명함으로 생각하며, 한 사람만의 힘으로도 그 책으로 세상을 영적으로 뒤덮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알고 놀랐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⁴

또 다른 회원은 물몬경을 읽으라는 벤슨 회장의 권고를 따랐을 때 자신의 간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벤슨 회장이 우리에게 물몬경을 읽으라는 목표를 주셨을 때, 저는 열다섯 살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경전을 충실하게 읽고 있었지만 대개 신약전서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슨 회장님의 촉구로 저는 매일 물몬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약전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에 관해 배웠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언제까지나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몬경 공부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성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 아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물몬경을 통해서도 그분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몬경 공부를 통해 구주의 무한한 속죄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신앙이 시험을 받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물몬경을 펼쳐서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코 하루도 물몬경을 읽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⁵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물몬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물몬경[은] ……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니파이인들은 한 번도 그 책을 가져 보지 못했으며, 고대의 레이맨인들도 역시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몬은 니파이인의 문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것을 요약하여 기록했습니다. 태초로부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는 여러 세기의 기록을 요약했으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이야기와 말씀과 사건을 택했습니다.

물몬경의 주요 저자들은 각기 자신이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기록했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 그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을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물몬경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물몬(또는 모로나이 또는 엘마)에게 이 내용을 기록에 포함하도록 영감을 주셨을까? 나는 이 내용에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몬경에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몬경의 주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오시기 수십 년 전의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자세히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는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오심에 앞서 일어난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풍요 땅에 있는 성전에 서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 만져 볼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몬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시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게 됩니다. 물몬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적이고도 냉담한 현실로 그려진 비밀 결사의 악행을 보게 됩니다. 물몬경에서 우리는 박해와 배도에 대처하기 위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위험성을 다른 어느 곳보다도 물몬경에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과, 우리는 그 속에서 큰 권능과 위안과 보호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⁶

우리가 매일 몰몬경을 공부할 때 그 책의 권능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올 것이다.

진실로 몰몬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나,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몰몬경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나,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물리치는 더 큰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임수를 피하는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험작하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을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경전은 “생명의 말씀”(교리와 성약 84:85)이라 불리며, 몰몬경에 있는 것보다 더 참된 것은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에 주리고 목마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욱더 풍성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⁷

인간은 서로 속임수 있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몰몬경에는 이 책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책을 읽고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4 참조] ……

이것이야말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몰몬경의 참됨을 알 수 있는 최고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백만이 이를 행하여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육체는 물론 영에게도 계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어제의 식사로는 오늘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에 충분치 못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을 이따금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History of the Church*, 4:461)

모든 진리의 가치가 동일하지는 않듯이 모든 경전의 가치도 같지는 않습니다. 몰몬경을 자주 읽는 것보다 영을 살찌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History of the Church*, 4:461)⁸

이 책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축복 아니면 정죄입니다.

후기 성도는 누구나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을 평생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고 자신의 온 생애에 영적 및 지적인 조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경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쇠막대를 계속 잡고 있는 개종자와 그렇지 않은 개종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⁹

물론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경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물론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그분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물론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우리는 매일 악마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전은 과거의 도전에 못지않은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전은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에서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가까이에 있어야 하며, 매일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¹⁰

3

우리는 물론경으로 온 세상을 덮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성신을 통해 물론경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물론경과 관련된 우리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그들도 성신을 통해 물론경이 참됨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¹¹

물론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 거듭난 선교사들의 수효가 점점 증가하여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물론경의 수가 점점 늘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영혼들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¹²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경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전파할수록,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의 언변의 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 전도를 통해서 개종자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 그다음 우리의 임무는 성경과 물론경에 나오는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의 지시를 받는 대로 이러한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될지니라.”(교리와 성약 42:13)¹³



“저는 몰몬경으로 온 지상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봅니다.”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 [그분]의 택한 자를 …… 집합시키[기]”(모세서 7:62) 위해 마련하신 도구입니다. 이 성스러운 경전은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교 사업을 하는 데 더욱 핵심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이 전자 매체가 발달하고 인쇄물이 대량으로 배부되는 시대에, 우리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몰몬경의 보급에 서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고, 회원들과 선교사들과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몰몬경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거룩한 역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어느 정도로 보급되어야 하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이 몰몬경을 좀 더 우리 생활에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또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이 몰몬

경을 더욱 충만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물몬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영으로 가정이 깨어나고, 공과실에 생기가 돌고, 연단이 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 와드 및 지부 역원, 스테이크 및 선교부 지도자들이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인 물몬경을 활용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예술가들이 물몬경에 나오는 위대한 주제와 인물들을 영화와 연극, 문학, 음악 및 그림으로 그려 내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자 물몬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구를 암송하고서 선교 임지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교회 전체가 물몬경에 나오는 교훈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저는 물몬경으로 온 지상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봅니다.¹⁴

물몬경으로 온 세상을 덮고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자 노력하시는 충실한 성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물몬경을 보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과 온 지상에 그 놀라운 메시지를 더욱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¹⁵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1편에서 물몬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관한 벤슨 회장의 권고를 살펴본다. 이 권고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물몬경 구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2편에 열거된 약속들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는가? 삶에서 이런 약속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몬경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물몬경으로 온 세상을 덮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3편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참조한다.)

관련 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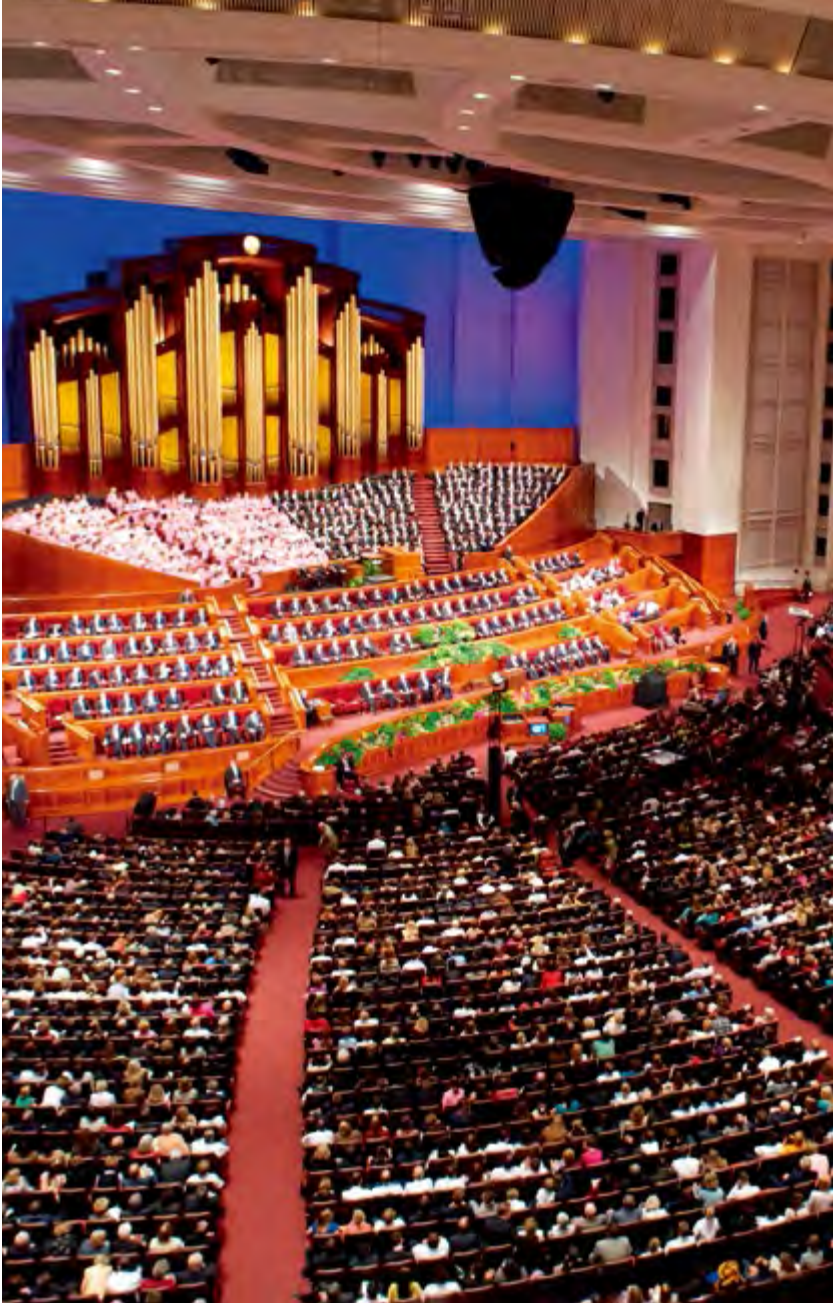
니파이후서 27:22; 몰몬서 8:26~41; 모로나이서 1:4; 10:3~5; 또한 몰몬경 소개 참조.

학습을 위한 도움말

경전을 읽을 때,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개념들을 구별하기 위해 단어나 구에 밑줄을 긋고 표시한다. 경전의 여백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구절의 뜻을 분명하게 해 주는 참조 성구를 적는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23쪽)

주

1.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101쪽.
2.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4쪽.
3. LaRene Gaunt, “Does the Book of Mormon Count?” *Ensign*, June 1991, 20.
4. Howard J. McOmber II, “Finding Truth in the Book of Mormon,” *Ensign*, Jan. 1996, 10-11.
5. 이름을 밝히지 않음, 미출간 원고.
6.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6쪽.
7.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6쪽.
8. “그리스도의 새 증인”,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6~7쪽.
9.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빛*, 1988년 5월호, 7쪽.
10.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91~92쪽.
11.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95쪽.
12. “하나님께서 태어남”, *성도의 빛*, 1989년 10월호, 5쪽.
1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58.
14. “온 지상이 몰몬경으로 차고 넘침”,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4~6쪽.
15.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4쪽.



오늘날 후기 성도들은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곳곳에
모여서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다.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현재 살아 계신 선지자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이 열다섯 살이었을 때, 어느 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는 제일회장단의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과 그 보좌들에게서 온 서한을 읽어 주었다. 그 서한에 담긴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가정의 밤’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격려합니다. 가정의 밤 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정에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 성도들이 이 권고에 따르면, 분명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나고, 자신들을 에워싼 나쁜 영향과 유혹을 헤쳐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¹

후에 벤슨 회장은 이렇게 회고했다. “[아버지는] 그 서한을 다 읽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회장단이 하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다!’ 저는 그 이후로 줄곧 집에서 부지런히 가정의 밤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²

벤슨 회장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자 부모님께 배운 그 전통을 아내와 함께 이어 나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 댁에서] 했었고, 또 제 가정에서 가정의 밤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일이 커다란 영적 축복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³

1947년, 제일회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가정의 밤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벤슨 회장은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 주제를 강조했다. 그는 가족이 “성스러운 제도”⁴임을 간증하고, 성

도들에게 가족을 강화하고 가정의 밤을 하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를 때 받게 되는 축복들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 “현세와 내세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은 이 위대한 책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일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으며, 교회 회장이 주시는 다른 모든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듯이 이 권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결과로 커다란 보상을 얻고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⁵

주님께서 택하신 종들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여러 축복들을 경험한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살아 계신 선지자에게 늘 주의를 기울이라고 후기 성도들에게 자주 권면했다. 그는 함께 봉사했던 교회의 회장들이 성스러운 부름을 받았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⁶ 벤슨 회장과 같은 날에 사도로 성임된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다. 벤슨 회장은 “일어나 감동 어린 목소리로 참석하신 사람들의 감정을 대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볼 회장님, 여태까지 이러한 모임을 해 온 이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회장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십니다.’”⁷ 그리고 김볼 회장 서거 후 그 성스러운 부름이 벤슨 회장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겸손하고 결단력 있게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 플로라와 저는 김볼 회장님의 지상 생활이 연장되고 그분을 위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⁸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1”

교회 회장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대변자이다.

늘 선지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선지자는 주님의 대변자이며, 오늘날 주님을 대신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영감 어린 권고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선지자의 영감 어린 말씀을 그보다 권세가 낮은 모든 이의 권고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런 후 모든 것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영을 가까이 느끼는 생활을 하십시오.⁹

오늘날 이 지상에서 주님의 대변자가 되는 선지자는 조셉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선지자의 권세선에 따라 그 권세를 받았고, 조셉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성임되었으며, 그 세 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지구

의 창조자이시며, 온 인류가 그분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해야 할 하나님인, 그리스도께 성임되었습니다.¹⁰

이 교회는 인간의 지혜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¹¹

2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살아 계신 선지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며, 어느 누구도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장이 되거나, 우연히 계속 남아 있거나, 우연히 본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현재 살아 계신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세대는 고대 경전에 더하여 살아 계신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현대의 경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읽고 숙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대변자로부터 나오는 최근의 영감 어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의 깊게 읽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후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선지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찬송가 6장 참조]¹²

이미 세상을 떠난 선지자들을 앞세워 살아 계신 선지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언제나 살아 계신 선지자가 우선입니다.¹³

각 회장은 세상과 교회에 필요한 시기와 상황에 맞춰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께서 목격했듯이, 모든 회장은 각기 꼭 알맞은 때에 봉사합니다. 그 같은 예임과 준비의 기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겉옷이 그의 몫이 되기 여러 해 전부터 부름과 열쇠가 주어지긴 하지만, 회장은 언제나 그 시대에 꼭 맞는 책임자였습니다.¹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경고해 줄 선지자가 필요했습니까? 노아를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이 홍수로부터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사악함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사악함에 필적할 정도라고 나옵니다.[마태복음 24:37~39 참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회장으로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큰 사랑과 절박함을 담아 말씀했다.

이르리라고 약속하신 불로 깨끗하게 될 날을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준비시킬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¹⁵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세우신 지도자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살아 계신 선지자인 교회 회장과 그 보좌들의 말씀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¹⁶

3

**살아 계신 선지자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한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그는 메시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반발에 부딪혀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¹⁷

어떤 주제에 관한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이 그 똑같은 주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식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이따금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우선 자신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세상의 자격 증명서나 훈련을 받은 후에야 자신들이 세상에서 받은 교육과 모순이 되는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세상의 교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세상의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종류의 주제에 관한 수많은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세상의 지식을 장려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선지자의 말씀이 상충될 때 선지자의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축복받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전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구를 두고 논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교리와 성약 21:4)

…… 선지자는 항상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니파이의 형들은 “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였도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죄인은 진리를 심하다고 여기나니, 이는 진리가 그들의 바로 그 중심까지 베기 때문이니이다”(니파이전서 16:1~2)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지닌 지도자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탐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상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와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그들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교회 회장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Conference Report, October 1970, p. 152-153)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이는 살아 계신 선지자입니다.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많은 이가 과거 선지자들의 무덤을 장식하면서도 살아 계신 선지자들에게는 마음속으로 돌을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Instructor, 95:257)

왜 그럴까요? 살아 계신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하지만, 세상은 선지자가 죽기를, 아니면 세상 일에 참견하지 않고 선지자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

살아 계신 선지자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해 줄 때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 혹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들은 우리의 충실함에 대한 시험이 됩니다. ……

학식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동의할 때에만 선지자가 영감을 받았다고 여기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지자가 단지 인간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선지자의 권고쯤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

…… 선지자가 꼭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자가 진리를 밝히면 사람들은 양분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이들은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대적합니다. 선지자가 세상의 죄를 지적할 때,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선지자의 입을 막거나 마치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합니다. 인기는 결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못됩니다.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욱 간악해지며, 선지자는 그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없어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¹⁸

4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를 때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 놓인 중대한 시험들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 한 가지 중요한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사탄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 우리 교회 회원들은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찬송가, 6장]이라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열쇠가 있으니, 그것은 선지자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

…… 선지자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대변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 7절에서 주님은 교회 회장인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 때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

그리고 21편 4~6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교회를 뜻하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¹⁹

선지자는 결코 교회를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회장으로 있는 지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생각도 아닙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 199쪽]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수십 년 전에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께서 저희 와드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날이 기억납니다. 모임 후에 저는 그분을 맥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 그분은 곁에 서서 팔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교회 회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하게나. 회장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설사 그릇된 일이라도 그대로 하게나.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자네를 축복할 걸세.’ 그런 다음 그분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네. 주님은 결코 그분의 대변자가 백성을 잘못 인도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네.’”(Conference Report, October 1960, p. 78)²⁰

브리검 영이 차를 몰고 어느 마을을 지나다 한 남자가 집을 짓는 것을 보고 그저 그에게 벽을 두 배로 두껍게 쌓으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리검 영을 선지자로 받아들인 그는 계획을 바꿔 벽을 두 배로 두껍게 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을에 홍수가 나서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으나 그 남자가 쌓은 벽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집의 지붕을 없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불렀습니다.²¹

교회 회원인 우리가 본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고자 한다면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어지는 상충되는 말들 사이

에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교회 회장인 선지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빨리 배울수록 주의를 더 잘 기울이게 됩니다.²²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늘 선지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십시오.”(1편)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 왜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현재의 교회 회장이라고 생각하는가?(2편 참조)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로부터 최근에 어떤 권고를 받았는가?
- 3편을 살펴보면서 선지자의 권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따랐던 때를 떠올려 본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벤슨 회장이 4편에서 말한 “중요한 열쇠”를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열쇠에 충실했을 때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가?

관련 성구

역대하 20:20; 아모스 3:7; 에베소서 2:19~20; 4:11~15; 교리와 성약 1:14~16, 37~38; 107:91~92; 신앙개조 1:6

교사를 위한 도움말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대답하는 데, 또는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질문을 한 후나 영적인 경험을 나눈 후, 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잠시 멈추고 기다릴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67쪽)

주

1. Joseph F. Smith, Anthon H. Lund, 및 Charles W. Penrose, “Home Evening,” *Improvement Era*, June 1915, 733-34.
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528.
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28.
4. Conference Report, Oct. 1947, 23.
5. Conference Report, Oct. 1947, 27.
6. 예를 들어, Conference Report, Oct. 1968, 17; Conference Report, Apr. 1970, 127; *Ensign*, Jan. 1973, 57; *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55쪽; *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10쪽 참조.

7. 더블유 그랜트 벵거터, “교회 역사에서의 특별한 순간”,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39쪽.
8. Don L. Searle, “President Ezra Taft Benson Ordained Thirteenth President of the Church,” *Ensign*, Dec. 1985, 5에서 인용함.
9.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34.
1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32.
1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32.
12. “Jesus Christ—Gifts and Expectations,” *New Era*, May 1975, 16–17.
13. “Fourteen Fundamentals in Following the Prophet,” *Tambuli*, June 1981, 3.
1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42.
15. “Listen to a Prophet’s Voice,” *Ensign*, Jan. 1973, 59.
16. “Fourteen Fundamentals in Following the Prophet,” 8.
17. “조셉 스미스: 우리 세대의 선지자”, *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87쪽.
18. “Fourteen Fundamentals in Following the Prophet,” 3–4, 6.
19. “Fourteen Fundamentals in Following the Prophet,” 1–2.
20. “Fourteen Fundamentals in Following the Prophet,” 3.
21. “Civic Standards for the Faithful Saints,” *Ensign*, July 1972, 61; 또한 Sidney Alvarus Hanks and Ephraim K. Hanks, *Scouting for the Mormons on the Great Frontier* [1948], 78–80 참조.
22. Conference Report, Oct. 1966, 122.



“어떻게 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신앙의 기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매사에 영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성신의 속삭임에 민감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다른 총관리 직원들에게 교회 봉사에 관해 조언할 때면 이렇게 자주 말했다. “형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¹ 벤슨 회장은 총관리 직원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 가까이에 계[신다는], 참으로 속삭이면 들릴 만한 가까운 거리에 계[신다]”²는 원리를 모범으로써 가르쳤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벤슨 회장과 함께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을 부른 일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도하고, 접견하고, 연구하고, 다시 기도를 한 후에 벤슨 장로님은 누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이 되어야 할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그에 대한 영감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그분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명의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에게 대회의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말씀을 하도록 부탁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연사가 말씀을 시작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영은 그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순간 고개를 돌려 벤슨 회장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전진하며 계속 하나님 뜻을 구했던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계시가 내려진 것입니다.”³

신임 선교부 회장들을 위한 대회를 시작하면서 벤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저는 형제님들께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이라고 누누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영을 지니고 부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선교부 임지에서 주님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이 없다면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사흘 동안 매우 훌륭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침서가 배부되고, 책임과 절차를 논의하며,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부 회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지침서나 교재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여러분이 겸손한 기도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애원할 때 주님께서 친히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선교부 운영에 필요한 주님의 신성한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은 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이 주님께 기대고 의지했기에 여러분의 선교부는 영적으로 번영할 것입니다.”⁴

벤슨 회장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 회원에게 이 권고를 주었다.⁵ “우리가 이 사업의 어느 분야에서 봉사하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영입니다. 저 는 영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모두 그 영을 받아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되고, 헌신적인 자녀와 부모가 되며,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고, 영감을 주는 교사, 영감 받은 워드 지도자, 스테이크 지도자가 됩시다.”⁶

벤슨 회장은 전 세계를 다니며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담대하게 가르치면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조용히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은 가정에서, 부인인 플로라 벤슨 자매와의 동반자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벤슨 자매의 이복 언니인 줄리아 델리는 벤슨 가에 다녀간 뒤에 플로라에게 쓴 편지에서 벤슨 가족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적었다. “어쩔 그렇게 완벽할 수 있니? 너희 가족의 단순한 생활 방식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너희 집에 주님의 영이 거한다는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어.”⁷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

**우리는 인생의 나날 동안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과연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동반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갈라디아서 5:22-23)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느껴 왔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성신의 속삭임에 민감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성신의 속삭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환경은 우리 마음이 업무 부담에 짓눌려 있지 않을 때, 일상 생활의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입니다.⁸

영성이란 주님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날 동안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을 지닌다면, 봉사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순교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브리검 영 회장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과 함께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왕국의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성신이 임할 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형제들에게 확신을 품고 마음을 열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이 후기의 사업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영을 추구하십시오. 항상 영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⁹

우리는 너무도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허위 선전이 주변에 만연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짓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건전하고 선하고 순수하며, 희망과 힘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전례가 없는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단순한 지적 사고가 아닌, 성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지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구한다면, 이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써 ……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니”(교리와 성약 121:26)¹⁰

우리가 겸손하고 민감해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느낌을 통해 속삭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영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그 영을 성신이라고도 부릅니다. …… 성신은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옳은 일을 하라고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느낌이 올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신은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¹¹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8; 강조체 추가)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이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흔히 느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민감하다면 주님은 우리 느낌을 통해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속삭임에 마음이 감동하여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몇 번이고 저는 영으로 감동될 때 감정이 부드러워지며 느낌이 매우 민감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신은 우리의 감정을 더 부드럽게 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들에서 더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서로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표정에서 발하는 영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고 싶어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더욱더 하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더 민감해지며 그리하여 영적인 것들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¹²

우리는 진실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영을 얻는다.

어떻게 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신앙의 기도”[교리와 성약 42:14]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기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이노스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과 열의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감 어린 이야기는 익히 아실 터이므로, 배경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구절에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이노스는 “나는 내가 나의 죄 사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씨름에 대하여 너희에게 고하리라.”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이 어떠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 간구에 담긴 열의를 살펴봅시다.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런 후 이노스는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네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더라. ……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워졌더라.”라고 간증했습니다. 이노스가 그리된 연유를 여쭙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이노스 1:2, 4~8; 기울임체 추가)

이노스는 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기에, 어느 경륜의 시대이든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고자 한다면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며, 또한 경험해야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¹³

직분 및 부름과 관련하여 영을 얻고자 한다면 …… 일정 기간 금식하십시오. 이때 금식은 한 끼만 굶고서 다음 끼니에 그만큼 더 먹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분과 부름에 필요한 태도를 갖추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영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¹⁴



“매일 경전을 공부하면 영이 임합니다.”

“ 4 ”

매일 경전 공부를 하고 경전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 영이 임하게 된다.

매일 개인 공부 시간에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매일 경전을 공부하면 영이 임합니다.¹⁵

시간을 내어 명상하십시오. 한 어린 소년은 한 경전 구절, 즉 야고보서 1장 5절에 대해 명상을 했고, 그리하여 숲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하늘을 연 것은 바로 명상입니다.

신약전서의 요한복음에 있는 한 경전 구절에 대해 명상한 결과로, 영광의 세 등급에 관한 위대한 계시가 임했습니다.[요한복음 5:29; 교리와 성약 76편 참조]

베드로의 서한에 나오는 또 다른 한 구절에 대해 명상하던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에게 하늘이 열렸고, 그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구

속에 관한 시현으로 알려진 그 계시는 지금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베드로전서 3:18~20; 4:6;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43:34) 그러나 마음이 세상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경전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가정에서의 경전 공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도해야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경전은 성신의 권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충실하고 순종적인 추종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교리와 성약 42:61)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의 다음 말씀은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좀 더 영성을 계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하게 될 때, 그리고 신성한 귀가 듣지 않고 있고 신성한 음성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제가 하나님에게서 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경전에 몰입할 때, 그 거리는 좁아지고 영성은 돌아옵니다. 저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제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더욱 강렬하게 사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 때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경험으로 그것이 참됨을 압니다.

경전을 잘 알수록 주님의 마음과 뜻에 더욱 가깝게 되며 남편과 아내, 자녀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경전을 읽음으로써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¹⁶

대적은 우리가 가정에서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¹⁷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구하지 않고, 그분들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에 순종한다면 더 많은 진리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따르면, 더욱더 큰 빛과 기쁨을 받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¹⁸

**성신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영예롭게 하며,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주의 영이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는 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히라멘서 4:24 참조]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생활에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¹⁹

순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 함께하며,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고서 옳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²⁰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 오는 현세적인 약속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18, 20)

그러나 제가 항상 느껴 온 바에 따르면, 지혜의 말씀과 다른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약속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교리와 성약 89:18, 19; 기울임체 추가)

일부 사람들은 이 약속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특별한 영적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일조의 법을 따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기타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든 일을 행할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교리와 성약 89:19)

자녀를 기르는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님의 영감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분명히 부모는 자녀가 불순종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는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성을 취득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가 주어져 이생에서 행복을 얻고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

저는 교회 회원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복음에 대한 생생한, 살아 있는 간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이란 단 한 번만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참된다는 영감을 바로 지금 받는 것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개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영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임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²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성신의 속삭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환경은 우리 마음이 업무 부담에 짓눌려 있지 않을 때, 일상 생활의 걱정거리로 휩쓸리지 않을 때”(1편)라고 말씀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압박 속에서도 영에 민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 벤슨 회장은, “우리가 겸손하고 민감해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느낌을 통해 속삭여 주실 것”(2편)이라고 가르쳤다. 그러한 속삭임을 인식하는 것에 관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워 왔는가?
- 3편에서 벤슨 회장은 물문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노스의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했다. 영을 찾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교훈을 이노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가?
- 여러분에게 “경전을 읽는 것”과 “경전 구절을 명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4편 참조) 매일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하면 더 쉽게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벤슨 회장은 “성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한다]”(5편)고 말씀했다.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영감을 받는 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관련 성구

니파이전서 10:17~19; 니파이후서 4:15~16; 모사이야서 2:36~37; 교리와 성약 8:2~3; 45:56~57; 76:5~10; 121:45~46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은 공부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 관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가슴에 와 닿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 18쪽) 여러분이 읽고 있는 내용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마음속에 느껴지는 인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계시일 수도 있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선견지명이 있는 계획-귀중한 약속”,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66쪽에서 인용.
2. “주님의 영을 구함”, *성도의 벗*, 1988년 9월호, 6쪽.
3. 로버트 디 헤일즈, “개인적인 계시: 선지자의 가르침과 모범”,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86~89쪽.
4. “My Challenges to Mission Presidents,”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 June 25, 1986.
5.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101쪽 참조.
6. “거룩한 책임”,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84쪽.
7. Julia Dalley,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8), 128.
8. “주님의 영을 구함”, 2~3쪽.
9. “주님의 영을 구함”, 6쪽; 브리검 영의 말씀은 *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Feb. 23, 1947, 2 vols., ed. Elden Jay Watson (1968, 1971), 2:529에서 발췌함.
10. *Come unto Christ* (1983), 22.
11.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102쪽.
12. “주님의 영을 구함”, 5쪽.
13. *Come unto Christ*, 92-93.
1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331-32.
15. “My Challenges to Mission Presidents,”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June 25, 1986; 원본에서 기울임체 삭제.
16. “주님의 영을 구함”, 3, 5쪽; 또한 스펜서 더블유 김볼의 말씀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 (2006), 66쪽에서 발췌함.
17. “거룩한 책임”, 85쪽.
18. “주님의 발자취 따라”, *성도의 벗*, 1989년 2월호, 6쪽.
19. *Come unto Christ*, 92.
20. “선교 사업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41쪽.
21.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원리”, *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80~81쪽.



주님의 집에서 얻는 귀한 축복

“영생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참으로 하늘로 가는 관문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성전에 대한 저의 추억은 아주 어린 소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아이 다호 휘트니에서 보낸 어린 시절, 저는 들판에서 나와 저희의 오래된 시골집을 향해 다가가던 순간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럴 때면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찬송가, 111장)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문지를 덮은 다리미판을 바닥에 놓고 이마에 구슬 땀을 흘리시며 길고 하얀 옷을 다림질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무얼 하느냐고 여쭙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복을 다리고 있단다. 아버지와 함께 로건 성전에 갈 거야. ……’

그런 다음 어머니는 납작한 구식 다리미를 난로 위에 올려놓으시고, 제 앞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시며 성전 사업에 대해 즉,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수행되는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당신의 자녀들과 손자들도 그 귀중한 축복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들려주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은 …… 저희 시골 집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억은 주님의 집에서 영이 임재하신 가운데 제 자녀와 손자들, 즉 어머니의 손자와 증손자들의 결혼식을 치를 때마다 새롭게 되살아납니다.

저에게 그것은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¹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

성전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

성전은 필멸의 지상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²

성전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³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족이 영원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둠 속에서 해매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끊임없이 알려 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물입니다. 성전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사악한 세상에 살지만, 의로운 남성과 여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거룩한 장소에서 하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⁵

[성전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악의 힘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증거로서 서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를 집어삼킬 듯 위협하며 눈사태처럼 쏟아져 내리는 악으로부터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교회 안팎의 많은 부모가 걱정합니다. 저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해롤드 비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안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 이 나라를 파괴로부터 보호할 힘을 생성해 낼 상징들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⁶

저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농무부 장관으로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비벌리 힐즈 힐튼 호텔 연회에서 한 신생 국가의 대통령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1,600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3,000여 개 섬에 인구 8천8백만이 흩어져 사는, 불과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영화계의 상당한 후원으로 마련된, 수많은 유명 배우들이 참석한 만찬장에 앉아 있는데, 수려한 출창(벽보다 쉑 더 나오게 만든 창-웁긴이)으로 바깥이 내다보였습니다. 길 건너 언덕에 은은한 투광 조명에 싸인 로스앤젤레스 성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쁨에 들떠 여기저기에 앉은 손님과 벼들에게 성전을 가리켜 보여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밤, 그

저 인생의 물거품과도 같은 수많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오래 지속되고 진실하며 중요한 것을 보여 주고 있구나.⁷

[성전을 바라보며] 삶이 영원하고, 필멸의 삶에서 맺은 성약들이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주지하기를 바랍니다.⁸

2

성전 의식과 성약은 신권의 충만함으로 들어서고 다시 주님의 면전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목적과 함께 아담과 이브를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해 줄 구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침례와 성신을 받고, 하나님 아들의 반차로 들어서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반차에 들어선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자면, 주님의 집에서만 받을 수 있는, 멜기세덱 신권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러한 요건에 온전히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도 없이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한 자의 반차를 좇는 자니라.”(모세서 6:67)

아담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아들인 셋과 손자 이노스, 또한 직계 후손인 다른 대제사들과 많은 의로운 후손을 데리고 아담 온다이 아만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이 의로운 후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53~56참조]
.....

아담은 자신의 후손을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데려갔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신권 반차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날에 건주어 말하자면, 그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축복들을 획득했습니다.

경전에 언급된 신권의 반차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에 족장의 반차라고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차는 한편으로 현대

의 계시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그러했듯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영원을 위해 인봉되고, 후손을 갖고, 지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업을 행하는, 가족이라는 조직의 반차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그들이 맺은 성약에 충실하면,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약은 주님의 집에 가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 반차에 따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었습니다. ……

……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듯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선조의 축복을 구함으로써만[아브라함서 1:1~3 참조] 이 신권의 반차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리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여러분의 선조들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무릇 이것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84:22)

우리 아버지의 집은 질서의 집입니다. 그분의 집으로 가서, 우리가 충실하길만 하다면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그 신권의 반차에 들어서야 합니다.⁹

3

성전 의식과 성약을 통해 우리는 보호받고, 영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집에서 받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 축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주께서 영생과 관련하여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성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¹⁰

주님의 바램은 교회의 모든 성인 남녀가 성전 의식을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성인 회원이 엔다우먼트를 받고, 모든 부부가 영원히 인봉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결혼 생활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 또한 성약 안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약 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한, 부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영원한 혈통이 보장되는 축복을 생득적으로 받습니다.¹¹

오늘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성도들이 흩어져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성전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중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거룩한 장소에서 받는 의식을 통해 성도들은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단히 무장될 것입니다.¹²

하늘의 의식과 결부된 권능, 즉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이 권능은 능히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또한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성전에 가며 주님과 가까이 생활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이 보호될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거룩한 장소에서 맺은 성약과 의식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¹³

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전 의식을 주셨습니다.¹⁴

정결하고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해의 영광에 거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벗어나 성결해지게 해 주는 법과 의식은 오직 이 거룩한 장소에서만 집행됩니다. 그러한 법과 의식은 계시를 통해 주어졌으며 계시를 통해 이해됩니다. 그래서 한 총관리 역원은 성전을 “주님의 대학”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¹⁵

성전 의식 없이는 어떤 교회 회원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성전 의식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¹⁶

우리는 조상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성전을 건축하고 헌납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신권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봉 의식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조상과 후손에게 인봉되지 못하면,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인 인간의 승영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¹⁷

남편과 아내가 성전에서 인봉되는 것만으로는 승영을 보장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상과 영원토록 연결되어야 하며, 조상을 위한 성전 사업이 완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 함과 같이 우리의 죽

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28:15) 그러므로 우리 회원들은 각자 반드시 자신의 조상, 즉 거룩한 경전에 명시되어 있듯 우리 “아버지들”에게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2편 2절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선언, 즉 “[엘리야가]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라는 선언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¹⁸

계보 사업을 떠올릴 때면, 저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도와줄 후손, 즉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그려 집니다.¹⁹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이 심판받을 기회를 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복음의 구원 의식을 제공하는 “내가 하는 일”이란 바로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을 뜻합니다.[요한복음 14:12참조] 우리의 친척 가운데서 인봉 의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질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휘장 이편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가? 나는 나의 선조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는가?”

그분들 없이는 우리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승영은 가족의 일입니다.²⁰

휘장은 매우 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습니다. 저는 주님께는 휘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커다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 하늘에서는 분명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뻐합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²¹

계보 사업을 실행해 보고 그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가족을 하나로 묶고 가족의 고결한 유산을 알게 될 때 느끼는 설렘을 경험해 보았다면, 그 기쁨을 타인과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계보 사업에서 여러분이 느낀 기쁨과 뿌듯함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회원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종시켜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중 일부, 아니 모두가 열의와 모범, 헌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동기를 부여한다면 단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쁘게 잘 해낼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²²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들을 위해 성전에 마련되어 있는 축복을 배워야 한다.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며, 성전 의식에는 성스러운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전이 신성하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성전에 관하여 말하기를 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성전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키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가게 되더라도 자신이 맺을 성약과 임무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저는 적절한 이해, 또는 예비 지식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전 참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해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신권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아브라함서 1:1~4 참조]²³

우리가 왜 성전에서 결혼하는지를 자녀가 물을 때, 성전은 특정한 의식들이 행해지는 지상의 유일한 장소라는 점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또한 성스러운 제단에 함께 무릎을 꿇고 영원히 인봉되도록 해 주는 성약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²⁴

부모가 자녀에게 성전을 가리키며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했다.” 하고 말해 주는 광경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 결혼의 이상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주 어릴 적부터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²⁵

제 부모님이 제게 하셨듯이, 우리는 가족에게 우리의 조상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분들이 구원 의식을 받는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 더 큰 감사와 애정의 유대가 싹틀 것입니다.²⁶

저는 청소년들이 계보 탐구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전체에 훌륭한 활력소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²⁷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성전에 가면 어떤 큰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²⁸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성전에 가면 어떤 큰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6

성전 의식에 자주 참여하면 더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결혼식을 집행할 때마다 그 젊은 부부에게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성전에 와서 부부가 함께 성전 의식을 받으라고 제안합니다. 젊은 부부가 한 번의 성전 의식으로 거룩한 엔다우먼트나 인봉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성전에 꾸준히 온다면 그 아름다움과 의미, 그리고 중요한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될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나중에 저에게 그런 권고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고는 했습니다. 거듭해서 성전에 가는 동안,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며 결혼 생활도 강화됩니다.²⁹

성전을 계속 방문하면서, 인간의 영원한 여정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와 관련하여 인간이 받은 사명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아름답고 인상적인 상징들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순종, 성별, 희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헌신적인 봉사와 관련된 엄숙한 성약을 맺으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깁니다.³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좀 더 자주 참여할 때, 돌아가신 분들을 좀 더 자주 축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해 줄 더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³¹

평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는 때로 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영의 영향력 아래 순수한 지식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성전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곳입니다. 저는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로 시달릴 때면, 주님의 집을 찾아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구합니다. 저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응답을 받았습니니다.³²

우리는 정기적인 성전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자주 성전에 갑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는 기도가 응답되고, 계시가 주어지고, 영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³³

본향의 집에서 떨어져 있는 지금 성전을 성스러운 집으로 만듭시다.³⁴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성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성전이 상징하는 몇몇 진리들을 언급했다.(1편 참조)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 2편에 나오는 신권 축복에 관한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2편을 복습하면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본다.
- 3편을 읽으면서 벤슨 회장이 가르친 성전 의식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성전 의식을 받음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아직 성전 의식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 벤슨 회장은, “계보 사업을 떠올릴 때면, ……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그려 집니다.”(4편)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관점은 여러분이 가족 역사에 접근하는 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 더 많은 조상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전 의식과 성약을 위해 준비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청소년은 어떤 식으로 가족 역사 “프로그램 전체에 훌륭한 활력소”가 될 수 있는가?
- 벤슨 회장은 “본향의 집에서 떨어져 있는 지금 성전을 성스러운 집으로 만듭시다”라고 제안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전에 가서 받은 축복들을 되새겨 보자.

관련 성구

이사야 2:1~3; 교리와 성약 97:15~16; 109:8~23; 124:39~41; 138:32~34

교사를 위한 도움말

“공과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가르치기에는 좀 많은 양의 자료가 담겨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반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98~99쪽)

주

1.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벗, 1986년 4월호, 2쪽.
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260.
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6.
4.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쪽.
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2.
6.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6; 해롤드 비리의 말씀은 대회 보고, 1942년 4월, 87쪽에서 찾을 수 있다.
7. *God, Family, Country: Our Three Great Loyalties*, (1974), 85
8.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6.
9.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4~6쪽.
1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5.
1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9.
1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5-56.
1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6.
1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0.
1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2; 또한 ElRay L. Christiansen, Conference Report, Apr. 1968, 134 참조.
16.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2.
1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48.
18.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48-49.

19.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64.
20. *Come unto Christ* (1983), 126.
2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3.
2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62.
23.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 4쪽.
2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8.
25.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쪽.
26. *Come unto Christ through Temple Ordinances and Covenants* (pamphlet, 1987), 2.
2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63.
28.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6쪽.
29. *God, Family, Country*, 183.
3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1.
31.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96쪽.
32.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쪽.
33.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92쪽.
3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56.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가족

“가족은 우리 시대에 악을 막아 내는 하나님의 가장 강한 요새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강해지고, 친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벤슨 회장 부부는 신혼 때부터 가정과 가족을 가장 우선시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 중에서 영원한 삶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르쳤다.¹ 벤슨 회장은 교회 지도자로 봉사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족이 영원하게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제 온 영혼을 다해, 그 선언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서, 우리가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강화하여, 때가 이르렀을 때, 해의 왕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향으로 귀환할 것입니다.”²

가족을 강화하려는 벤슨 부부의 노력은 그들의 결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헌신했으며, 충실하고, 진실했다. 논쟁 대신 진솔한 대화를 자주 나누었다.³ 둘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는데, 그들은 이 점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내의 충실함에 대해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없습니다.”⁴

벤슨 회장과 벤슨 자매는 서로 지지하고 강화했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제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도 저와 제 잠재력을 큰 시야로 보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신앙과 지지는 큰 축복입니다.”⁵ 그가 막중한 책임을 감당



벤슨 회장과 자매는 항상 서로에게 충실하고 참됐다.

하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면 벤슨 자매가 그의 눈물을 닦아 주며 위로해 주었다.⁶ 그녀는 주님께 남편을 지탱해 주시도록 도움을 간구했으며,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게 했다. 딸인 바바라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참 많이 했죠.”라고 말했다.⁷

굳건한 토대 위에 결혼을 확립해 나가면서, 벤슨 부부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아들 마크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충실함과 사랑의 의미를 가슴 깊이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가정에 그런 분위기가 저절로 조성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⁸

벤슨 가족은 가족을 최우선에 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표준 역시 복음이 그 중심이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벤슨 가족은 가정이 세상으로부터 피난처가 되기를 바랐다. 아들 리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싸우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죠. 종종 저희는 어머니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노력하여 이루고자 했던 가족의 단합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⁹ 벤슨 자매는 이렇게 회상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의 목표는 서로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¹⁰

벤슨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잦은 여행으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교회 일로 자주 여행을 하다 보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게 될 것 같다. …… 나는 가족에게 충실하고 가족이 교회와 항상 가깝게 지내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총관리 역원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¹¹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벤슨 회장은 더욱더 가족을 결속시키고자 노력했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감명과 경험은 가정과 가족 안에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¹²

1957년, 벤슨 회장은 미국 농무부 장관으로서 무역 확대를 위해 4주 동안 세계를 여행했다. 여행에는 벤슨 자매와 딸인 베벌리와 보니가 동행했다. 그들

은 12개국을 방문하여 정부 지도자들과 만났고, 명소와 난민촌, 농업 시설 등을 둘러봤다. 벤슨 회장은 무역 기회를 확대했고, 교회에 대한 호감 또한 조성했기에 그 여행이 성공적이라고 느꼈다. 그들이 귀국했을 때, 공항에는 딸인 베스가 비행기가 착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를 발견한 베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세계를 여행하며 수많은 놀라운 것들을 보았지만,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그때였습니다.”¹³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

현세와 영원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조직은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가족을 현세와 영원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봅니다. 교회는 모든 것에서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현세와 영원을 통틀어 가족 생활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¹⁴

그 어떤 것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세상의 창조와 함께 확립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¹⁵

가정의 수준 이상으로 번성한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가정의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안락한 가정 이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훌륭한 가정은 문명의 기초이자 기반입니다. 가정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¹⁶

혹자는 세계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더 큰 문제들은 놔두고 왜 그렇게 가정과 가족에 비중을 두느냐며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더 심각한 문제들이란 결국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¹⁷

결혼과 가족 생활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구원은 가족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가족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성스러운 책임입니다.¹⁸

2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

결혼, 가정, 가족은 사회 제도 이상의 것입니다. 이 신성한 것들은 인간이 고안해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결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주님은 네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첫째,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며 둘째,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졌으며 셋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며 넷째,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창세기 2:18, 24 참조)

훗날 주님은 이전에 언급하신 바를 재차 강조하시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태복음 19:6)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¹⁹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나 주가 그에게 명한 대로 땅을 경작하고 …… 그리고 그의 아내 이브도 또한 그와 함께 일하였더라. ……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니라. ……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주의 이름을 불렀고 ……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니라. ……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모세서 5:1~2, 4, 12, 16)

이 영감받은 기록에서 우리는 성약으로 맺어진 결혼 관계의 이상적인 본모기를 아담과 이브에게서 봅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자녀를 낳았고,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의로운 남성과 여성이 따르게 하신 전형입니다.²⁰

결혼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성약이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약을 명예롭게 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결혼 서약에 대한 충실함은 사랑, 신뢰, 평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간음이 죄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

억제와 자제가 결혼 관계에서 주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감정뿐 아니라 말에서도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부부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부부의] 유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사상, 열망, 생각이 하나로 모여져 같은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생각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경전에 의지하여 인도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할 때 영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두되는 개인주의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이기심과 분열을 초래

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표준은 두 인격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창세기 2:24 참조)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하나님을,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자아의 발전과 더불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서로를 섬길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²¹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분명합니다. 그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베소서 5:25)

후기의 계시에서 주님은 다시 이 의무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 제가 알기에 경전을 통틀어,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은 아내 외에 딱 한 분, 즉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향하는 이런 종류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일, 여가, 취미 등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느 것도 아내보다 중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영원히 함께할 귀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누군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감정을 다 해서, 헌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아내를 비하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점을 찾거나 모욕하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통명스러운 태도나 행동으로 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내 가까이 머물고, 아내에게 충실하고 신실하며,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²²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충실함이란 곧 주고받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녀들의 정서적인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가정 생활은 자녀들이 따뜻한 기억과 추억으로 돌아볼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²³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하나님을,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3

굳건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원한다.

가족을 강화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하면 가족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식사 시간은 일과를 돌아보고, 가족이 돌아가며 경전, 특히 몰몬경을 읽으면서 육체와 더불어 영혼을 채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밤은 바쁜 아버지가 자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대화하고 질문에 답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해 주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²⁴

가족은 우리 시대에 악을 막아 내는 하나님의 가장 강한 요새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강해지고, 친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영원히 축복할 신앙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²⁵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위대한 일은 행복하고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이 존속되는 가정을 이룩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값비싼 가

구나 욕실의 수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가정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있는가, 아니면 언쟁과 다툼이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²⁶

훌륭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음을 압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안정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유대가 강한 가족은 효과적인 의사 소통의 특성을 계발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가정의 밤과 가족 평의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대가 강한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와 늘 가깝게 지냅니다. 서로 대화합니다. 아버지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각 자녀와 접견을 하고, 또 규칙적으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가정이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가족은 비판하고 다투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논하며, 격려합니다. 때때로 가족 중 한 사람을 위해 함께 금식도 합니다.

강한 가족은 서로를 지지합니다.²⁷

4

가정은 자녀가 복음 원리를 익히고 실천할 가장 훌륭한 장소이다.

가정은 가족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입니다. 가족 생활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 및 의식에 굳건히 자리 잡혀 있는 곳에서는 …… 문제들이 그리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²⁸

훌륭한 부모는 악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따라서 그들은 건전한 영향력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합니다. 도덕적인 원리를 가르칩니다. 양서를 구입해서 읽게 합니다.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합니다. 훌륭하고 영성을 높여 주는 음악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각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후기 성도 가정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교리와 성약 68:25 참조)

이러한 가정에서는 늘 가족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축복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 힘과 양식과 도움을 얻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기도하기 위해 함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된다는 말은 현명하고도 참된 격언입니다!²⁹

자녀들은 영원의 시각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의지할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삶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인도를 구하며,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제 어린 자녀들이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으며, 배워야만 합니다. 흠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일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정직과 자긍심 면에서 발전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일의 즐거움, 일을 잘 해냈을 때의 즐거움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여가를 건설적으로 건전하고 능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³⁰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고안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서 아들딸들을 그들 곁에 모을 수 있도록 매주 하루 저녁 시간을 성별하는 것입니다.³¹

효율적인 가정의 밤을 통해 복음 원리가 청소년들에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강화되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신앙, 간증, 낙천적인 태도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³²

가정에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화와 사랑을 가져옵니다. …… 매일 가족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각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며, 온 가족이 승영의 의식을 받고 영원히 인봉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정직한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고, 과도한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³³

하나님은 가족이 무덤 너머에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이생에서 우리가 알아 가는 사랑은 덧없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아니라 가족을 영원히 함께 묶어 주는 실체입니다.³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가족이 무덤 너머에서도 계속되며 서로에 대한 동정심과 애정, 사랑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³⁵

영원한 결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중 다수는 성전을 쉽게 갈 수 있고 아마도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여 그 축복을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복음 생활을 하려면 해야 하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방법대로 결혼하려면, 거룩하지 못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기꺼이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위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가족이듯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럴 것입니다.³⁶

가정과 가족. 이 소중한 단어를 말하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에 행복한 기억들이 차오릅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이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만족감을 주는 일인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역할과 가정을 세우는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이생과 영원한 삶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바와 같이 현세와 이후의 삶에 존재하는 행복의 중심에는 가정과, 영원히 지속되는 가족 관계라는 영광스러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³⁷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영원한 관점에서, 구원은 가족의 일”(1편)이라고 가르쳤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가족은 서로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 2편에 나오는 벤슨 회장의 권고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그가 “행복한 결혼의 비결”이라 했던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본다. 왜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얻는 “비결”이 될 수 있는가?
- 3편에서, 성공적인 가족이 하는 일들에 관한 벤슨 회장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 이런 실천은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는가? 여러분이 이 권고를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가정이 “영원한 가치가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인 이유는 무엇인가?(4편 참조, 가족 교육에 대한 벤슨 회장의 구체적인 권고들을 참조한다.) 가족들이 복음 원리를 배우도록 서로 돕는 것을 언제 보았는가?
- 벤슨 회장은 가족이 “무덤 너머에까지 지속된다”(5편)고 간증했다. 이 진리에 대해 상고할 때, 어떤 생각 또는 느낌이 드는가? 가정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는가?

관련 성구

시편 127:3~5; 고린도전서 11:11; 제3니파이 18:21; 교리와 성약 49:15; 132:18~19; 또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의 복음 공부는 성신을 통해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이다. 복음 공부를 할 때에는 성신이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 18쪽)

주

1.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363.
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93.
3.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26 참조.
4. 디린 헤드 로드리게즈, 플로라 아문센 벤슨-선지자의 내조자, 주님의 여종, 성도의 벗, 1987년 6월호, 19쪽.
5. “Flora Amussen Benson: Handmaiden of the Lord, Helpmeet of a Prophet, Mother in Zion,” 14
6.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79 참조.
7. Barbara Benson Walker,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79.
8. Mark Amussen Benson, “Flora Amussen Benson: Handmaiden of the Lord, Helpmeet of a Prophet, Mother in Zion,” 20.
9. Reed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40.

10.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33.
11.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78.
12.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26.
13.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327.
1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89.
15. Conference Report, Apr. 1949, 198.
16. Conference Report, Oct. 1953, 122.
1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21.
18. “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88쪽.
19.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34.
2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34.
21. “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88, 89쪽.
22.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003), 209-10.
23. “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89쪽.
2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91.
25. “‘주님의 청년들’에게”,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47쪽.
26. “저희 아버지께는 더욱 큰 일을 요구하심”, *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49쪽.
27.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7쪽.
28. “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89쪽.
29.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7쪽.
30. “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90쪽.
3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28.
32.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49쪽.
33. “저희 아버지께는 더욱 큰 일을 요구하심”, 52쪽.
3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92.
3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204.
36. “지금은 희생의 날”, *성도의 벗*, 1979년 10월호, 51쪽.
3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91-92.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성스러운 부름

“우리가 부모라는 이 위대한 책무, 이 성스러운
책무에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가정과 세상 곳곳에서, 교회와 시민 사회에서 말과 행동으로 가르쳤다. 그는 “자녀를 주님의 사랑과 충고로 양육[하십시오.]”¹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가족을 양육하는 청지기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성스러운 책임입니다.”²

벤슨 회장과 그의 아내 플로라는 부모로서 자신들의 성스러운 책임을 다하고자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들은 “가족을 양육하는 일에 힘과 열정을 다해 임했다.”³ 두 사람은 자녀며 기타 다른 일들에 대해 자주 상의했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 곁에 영적으로 뛰어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⁴

그들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배움을 얻고 머물고 싶어 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했다. 아들 마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곳은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였습니다. 집에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의 힘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⁵

벤슨 회장과 자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였다. 마크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여성보다도 신앙이 크신 분이십니다. …… 제 평생 그렇게 자주 기도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보든, 학교에서 다투든, 무엇이든 간에, 즉시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셨습니다.”⁶



에즈라 태프트 벤슨과 아들 리드와 마크

벤슨 회장이 직장과 교회 업무로 집에서 떠나 있을 때가 빈번했으므로, 플로라는 여섯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많은 책임을 도맡아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역할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은 이 필멸의 생애에서 갖는 애정의 중심입니다.”⁷ 마크는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⁸ 어머니인 것의 중요성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다. “위대함을 찾고자 한다면 욕좌가 아니라 요람으로 가야 한다. 어머니는 강한 힘이 있다. 어머니는 정서와 삶에 영향을 주고 성품을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한다.”⁹

벤슨 회장은 집을 떠나 있을 때면 늘 가족을 보살피고 강화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전화나 편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취했다. 집에 있을 때에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그는 자주 “나중에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지금 등이 아픈 것이 더 낫다”는 말로 아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 바뿐 아버지¹⁰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또 그는 자녀들과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마크는 아버지와 함께 유타 솔트레이크시티로 전문의 진찰을 받으러 갔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저와 아버지 단 둘뿐이었지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저는 어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아버지는 저와 함께 계셨고, 제가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¹¹

벤슨 회장은 여건이 될 때에는 출장에도 자녀들을 데리고 다녔다. 1948년 3월에는 당시 일곱 살이었던 딸 보니를 데리고 네브래스카에서 열린 농업 관련 모임에 가기도 했다. “어린 소녀의 짐착한 태도와 그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그렇게 어린아이를 장기 출장에 데려온 한 아버지의 이례적인 모범에, 언론은 큰 관심을 기울였고, 다음 날 아침, 보니의 사진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하지만 벤슨 장로에게 그런 일은 파격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멀리 출장을 갈 때면 종종 자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에게 그것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다지고,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¹²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

아버지의 부름은 영원하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부름은 영원하며, 그 직분은 해임이 없습니다. 교회 부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한시적이며 적절한 때에 해임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름은 영원하며, 그 중요성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현세뿐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르는 부름입니다.¹³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모범과 귀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자녀들과 어떻게 일하십니까? 물론 그것을 알려면 [아버지들은] 복음, 즉 주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¹⁴

남자에게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감리하는 의로운 족장이 되는 것만큼 고귀한 부름은 없습니다. 엘로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태복음 6:9; 제3니파이 13:9)로 부르게 하셨습니다.¹⁵

2

아버지는 가족 안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제공해야 한다.

아버지는 가족을 축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가족을 이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영의 인도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갈망하며, 열망하고, 동경해야 합니다.¹⁶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제공해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발행한 소책자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했으며,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동반자의 조인과 격려를 받아서 가정을 다스립니다.”(*Father, Consider Your Ways* [소책자, 1973], 4-5) ……

이스라엘의 아버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열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1. 자녀에게 가장의 축복을 주십시오. 자녀에게 침례를 주고 확인을 하십시오. 아들을 신권에 성임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영적 추억이 될 것입니다.

2. 가족 기도를 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매주 가정의 밤을 하도록 직접 이끄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녀들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3.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도력 아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녀의 영적인 복리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4. 자녀와 함께, 아빠와 딸의 데이트, 아버지와 아들의 야외 활동 등을 하십시오. ……

5. 가족 휴가, 여행, 야유회 등의 전통을 세우십시오. 자녀들은 이러한 추억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6.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일대일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두십시오. 복음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참된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함께 개별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녀는 아빠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 자녀에게 일에 대해 가르치고 합당한 목표를 위해 일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 주십시오. ……

8. 가정에서 좋은 음악과 미술,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격려하십시오. 교양과 아름다움의 정신이 깃든 가정은 자녀의 삶을 영원토록 축복할 것입니다.

9. 여건이 되는 대로 정기적으로 아내와 함께 성전에 가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성전 결혼과 성전 성약, 영원한 가족 단위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0. 자녀에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자녀에게 전달되어, 그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소망하게 되고, 왕국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남편과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지극히 중요합니다.¹⁷

우리는 때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가장은 유일한 역할이기에 가족에게 명령 또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일대일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에베소서 5:23; 기울임체 추가) 가정을 감리하는 우리의 역할에서 따라야 할 본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거칠게, 또는 불친절하게 인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다. 구주께서 교회를 경시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강요하시는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교화하고 들어올리고 위로하고 높이 이끌어 주시는 것 이외의 다른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할 때 따라야 할 본보기이십니다.¹⁸

여러분은 가정의 축복사로서 자녀와 함께하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에게 평안과 기쁨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녀도 아버지를, 특별히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 의로운 아버지가 훈계와 훈련, 양육, 사랑하는 일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자녀의 영적인 복지에 필수적인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¹⁹

3

어머니의 역할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어머니 여러분은] 가정의 심장이자 영혼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기록에서든 거룩한 기록에서든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더 성스러운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어머니의 일만큼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원한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가정을 감리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성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계시에서도 그렇게 선포합니다.²⁰

그들의 잘못은 아님에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이 있다는 점을 압니다. 이 사랑스러운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자매님 중 많은 분이, 곁에 있는 고귀한 동반자들과 함께 순수한 신앙, 간절한 기도, 금식, 특별한 축복을 통해 삶에서 기적을 맛보았으며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입양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훌륭한 부부들이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한 아이들에게 바치는 그 희생과 사랑에 경의를 표합니다.²¹

우리의 훌륭한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부름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부름인 시온의 어머니라는 부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늘의 축복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38 참조)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임을 …… 약속합니다.²²

4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영향력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시온의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역할은 여러분의 승영뿐 아니라 가족의 구원과 승영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머니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²³

이제 저는 시온의 어머니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와 함께 영향력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열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가 올 때나 갈 때나, 즉 자녀가 등하교를 할 때, 데이트를 하러 가고 돌아올 때, 또는 친구를 집으로 데려올 때, 언제나 그곳에 계십시오. 자녀가 여섯 살이든 열여섯 살이든 그곳에 계십시오. ……

둘째, 어머니 여러분, 시간을 내어 자녀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말 경청하십시오.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농담하고, 노래하고, 같이 놀고, 함께 울고, 껴안아 주고, 솔직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각 자녀와 일대일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녀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셋째, 어머니 여러분, 시간을 내어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십시오. 요람에서부터 아들에게 책을 읽어 주십시오. …… 자녀에게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 주신다면, 자녀에게 양서와 경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시간을 내어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이끌어야 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자녀에게 내려지도록 간구하여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느끼게 하십시오. …… 자녀를 가족 기도에 참여시키고, 또한 개인 기도를 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미로운 기도를 기뻐하십시오.

다섯째, 매주 의미 있는 가정의 밤을 하십시오. 자녀가 적극적으로 가정의 밤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시오.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이것을 가족 전통의 하나로 삼으십시오. ……

여섯째, 가능한 한 자주 자녀와 함께 식사하십시오. 자녀들이 점차 장성하고 생활이 바빠지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한다면, 식사 시간은 함께 즐거이 대화하고, 그날의 계획과 활동을 서로 나누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매일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 특히 가족이 매일 몰몬경을 함께 읽는다면 더 큰 영성이 가정에 임할 것이며, 유혹을 이겨 내고 성신을 항상 동반할 수 있는 힘이 부모와 자녀에게 임할 것입니다. 몰몬경으로 여러분의 가족 생활이 변화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시간을 내어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십시오.”

여덟째, 시간을 내어 여러 가지 일을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하는 산책이나 소풍, 생일 축하, 여행 등이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고, 좋은 추억을 쌓으십시오. 가족 중 한 사람이 관련된 행사, 예를 들어 학교 행사, 구기 경기, 연설, 독창회 같은 행사에 가능하면 온 가족이 참석하십시오. 교회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앉으십시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놀도록 돕는 어머니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돕고,] 또한 자녀의 인생을 영원토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어머니 여러분, 시간을 내어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식사 시간이나 일상적인 순간, 특별히 함께하는 시간이나 하루를 마치며 침대가에서, 또는 이른 아침에 함께 산책하는 시간에 가르칠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녀에 대한 염려는 자녀를 가르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죄에는 안전이란 것이 없다는 점을 가르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전하십시오.

아들딸에게 정숙함의 미덕을 가르치십시오.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성적인 순결, 합당한 데이트 표준, 성전 결혼, 선교사 봉사, 그리고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일에 대한 사랑과 훌륭한 교육의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합당한 영화나 영상물, 음악, 서적, 잡지 등을 포함하여 올바른 오락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외설물과 마약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깨끗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각자 자신의 집에서, 난롯가 근처에서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만큼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열 번째, 어머니 여러분, 시간을 내어 어린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깝습니다.

십 대 자녀들 역시 똑같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녀가 어릴 때에는 쉽게 사랑을 보이면서도 자녀가 장성할수록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점을 극복해 보십시오. 세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쇠는 사랑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방종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관심이 아니라 이해심과 공감이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십대 아들딸에 대한 어머니의 다정한 가르침과 사랑, 신뢰는 말 그대로 사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²⁴

의로운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희생을 바치는 그 대상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²⁵

5

부모는 단합과 사랑으로 합심하여 자녀를 키워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공동 창조자로서 간절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정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 자녀가 있는 가족의 남편과 아내는 복됩니다. 인생에서 맛보는 가장 심오한 기쁨과 축복은 가족을 이루고, 부모가 되며, 희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영들을 집으로 오게 하는 일이라면, 실제로 어떤 희생이라도 할 가치가 있습니다.²⁶

부모가 동반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단합하여 하늘에서 부여한 책임을 다하며, 자녀들이 사랑과 순종으로 응할 때, 커다란 기쁨이 찾아옵니다.²⁷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지원할 때, 그러한 도움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충성과 단합, 사랑, 상호 존중의 정신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충실하고, 참되고, 사랑하며, 아내의 짐을 덜어 주려 애쓰고, 자녀를 보살피고 훈련하고 키우는 책임을 아내와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남편에게 내조의 정신을 보여 주고, 남편의 신권 의무를 받들고 지지하며, 하나님의 신권을 통해 그들에게 오는 부름에 충실하고 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²⁸

우리가 부모라는 이 위대한 책무, 이 성스러운 책무에 충실히 임하여 우리 가정을 영원한 원리 위에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큰 신임을 결코 저버리지[불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온 이 영들이 뛰어난 영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기를 기도합니다.²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모범과 귀감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다.(1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전형을 보통의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따를 수 있는가?
- 벤슨 회장이 제시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열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2편) 이런 각각의 권고를 따를 때,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벤슨 회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어머니의 일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3편) 고귀한 어머니의 어떤 모범을 본 적이 있는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세상의 관점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머니의 고귀하고 성스러운 책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몇 가지 예를 4편에서 참조)
- 부모가 단합하여 책임을 수행한다면 가정에 어떤 축복이 깃들 수 있는가?(5편 참조)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온전히 단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홀로 된 부모라면 이런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잠언 22:6; 에베소서 6:4; 모사이야서 4:14~15; 엘마서 56:45~48; 제3니파이 22:13; 또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여러분의 가르침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손으로 부름 받은 도구가 될 것이다. 성신은 권능으로써 여러분의 말에 힘을 줄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41쪽)

주

1. “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89쪽; 기움임체는 원문에서 삭제함.
2. “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 88쪽.
3.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127.
4.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41.
5. Mark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33.
6. Mark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39.
7.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34.
8. Mark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33.
9.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30.
10.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34.
11. Mark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38.
12. Francis M. Gibbons, *Ezra Taft Benson: Statesman, Patriot, Prophet of God* (1996), 165.
13.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003), 205.
1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503.
1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96.
16.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511.
17.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08, 212~213.
18.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09.
19.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11.
20.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15.
21.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16.
22.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22.
23.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17.
24.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18~221.
25. “Jesus Christ—Gifts and Expectations,” *Ensign*, Dec. 1988, 6.
26. *Sermons and Writings of President Ezra Taft Benson*, 216.
27.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6쪽.
28. Conference Report, Oct. 1951, 155.
29. Conference Report, Oct. 1953, 123.



교회의 연로한 사람들

“온전히 생활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노년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돌봐 주는 사람들, 즉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 동료,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교회 회장이 되었을 당시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86세였다. 그는 인생의 노년에 오는 기쁨과 어려움을 잘 이해했다. 그에게 한 가지 기쁨은 아내 플로라와 계속 함께하는 것이었다. 이 부부는 그가 교회 회장이 된 첫해에 결혼 60주년을 기념했다. 그들은 거의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함께 성전에 참석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87번째 생일 파티에서 벤슨 회장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벤슨 자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훌륭한 아내가 있잖아요.’라고 대답했다.”¹

노년에 벤슨 회장 부부는 자녀 및 손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으며, 가족은 계속 그들의 모범을 통해 배움을 얻었다. “교회 회장이 되고 나서 초반에 거의 18개월 동안, 한 손녀가 벤슨 회장 부부와 함께 살았는데, 그 손녀는 그들의 요청으로 자주 함께 여행하면서 일을 돕고 심부름을 해 드렸다. 또한 조부모가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이트를 가고,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서로 손잡고 과거를 회상하고, 노래하고, 함께 웃고, 가정 복음 교사와 그밖에 찾아오는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맞는 모습과 같은 가정에서의 일상사를 직접 지켜 보았다.”²

손자녀들은 현명하고 다정한 조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다. “한 손녀는 벤슨 회장이 자신과 남편에게 어려운 결정과 관련하여 조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의 생각을 여쭙었을 때, “그에 대해 기도해 보거라. 네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저는 …… 연로한 분들을 각별하게 느낍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들을 이해한다고 느끼는데, 저도 그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 믿는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믿어 주신 덕분에 자신감이 더 커졌어요.”³

벤슨 회장은 아흔 번째 생일 후 곧이어 열린 연차 대회에서 “교회의 연로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필요 사항을 돌봐 주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준비했다. 말씀 서두에서 그는 이 주제에 자신이 어떤 공감대를 느끼는지 표현했다. “저는 이 훌륭한 남성들과 여성들, 즉 연로한 분들을 각별하게 느낍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들을 이해한다고 느끼는데, 저도 그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⁴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주님은 연로한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시며 그분의 가장 큰 책임 중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맡겨 오셨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연로한 이들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항상 그러셨으며, 주님은 그분의 가장 큰 책임 중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맡겨 오셨습니다. 여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노년기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오랜 세월 복음을 충실하여 온 사람들의 영감 어린 인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주님은 노년에 이른 사라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왕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그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백성을 인도하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밖에 다른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나아가 위대한 일들을 해 내었습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 중 다수가 칠십 대나 팔십 대 또는 그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생애를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바친 그분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연로하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황혼기가 훌륭하고 보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인생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더 큰 기대를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평안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생이 해야 할 일들과, 여러분만큼 운이 좋지 않은 다른 이에게 봉사하는 여러 기회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대부분 더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지혜와 경험이 계속 풍요로워지고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⁵

2

우리는 노년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노년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덟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 **성전에서 봉사하고 자주 참여하십시오.** 나이가 든 우리는 자신의 힘을 조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우리의 모든 후손이 성전에서 승영의 의식을 받도록 하는 데 써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일하고, 아직 기꺼이 자신을 준비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 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건강과 근력, 거리상의 문제가 없다면 자주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아들이도록 간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성전 봉사를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아름다운 봉사를 위해 더 많은 회원이 자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벤슨 자매와 제가 거의 매주 성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의 인생에서 참으로 큰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2. **가족 역사를 모아 기록하십시오.** 열심히 개인 및 가족 역사를 모아 기록하십시오. 대개 여러분은 내면에 자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이 있으며, 그 날짜와 사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가족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역사를 모아 기록하는 것만큼 훌륭하게 여러분의 유산을 보존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3. **선교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선교 사업에서 장년 선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부부들이 생활과 일

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선교 임지에 여러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여러 방법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제 두 여동생이 영국에서 함께 동반자로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68세와 73세에 부름받았지만, 경이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조부모는 후손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범과 축복이 되겠습니까! 선교 사업을 나가는 연로한 부부 대부분은 선교 사업을 통해 강화되고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 거룩한 봉사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이 성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알도록 인도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

4. 가족을 단합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모든 연로한 회원 여러분에게 촉구하건대, 가능한 때에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해 주십시오. 각 가족을 단결된 단위로서 조직하십시오. 가족을 모으는 데 앞장서십시오. 우정과 가족 관계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가족 모임을 만드십시오. 제 가장 아름다운 추억들은 가족이 함께 모인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묶을 수 있는 훌륭한 가족 전통을 조성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곳 지상에 있는 가정 안에서 하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영생은 의로운 가족생활의 연장일 것입니다.

5. 교회 부름을 받아 충실히 수행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연로한 회원들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성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 지인 가운데 감독과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칠십 대와 팔십 대인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오솔길을 걸어 온 여러분의 조언과 영향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성공담과,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의 고통과 아픔, 낙담을 극복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조직 대부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굳건한 복음의 토대가 있기에 훌륭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여러분은 충실한 교회 봉사에 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해 오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은전히 생활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노년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 앞날의 재정 계획을 세우십시오. 은퇴를 하고 은퇴 후의 생활에 접어들 때, 우리 모든 연로한 분들은 은퇴 후 노년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빚을 지지 맙시다. 또한 가족 간에라도 연금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재정 보증에 서명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에 투자 계획을 하거나 집에 저당 설정을 하고, 또는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생의 계획이 한 가지, 또는 일련의 그릇된 재정적 결정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일찍부터 미래의 재정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르십시오.

7.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는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이를 알기에 우리는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연로한 회원 여러분에게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하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들은 오히려 생명을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우리의 생애를 다 소모”(교리와 성약 123:13)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봉사를 베풀면 평안과 기쁨, 축복이 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하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봉사는 특히 연로한 분들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8. 체력 관리를 잘 하고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연로한 분들을 볼 때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

우리 연로한 회원들이 여전히 정정하고 활력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활력을 유지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훌륭히 움직입니다.⁶

3

타인을 위한 봉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지독한 고독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때때로 거의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을 겪고 자신을 무용지물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언급한 여덟 가지 제안에 덧붙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활동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외로운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둔 손자녀나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 이불을 만들면서 바쁘게 보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손자녀의 생일에 맞춰 편지를 쓰거나, 할 수 있으면 손자녀의 학교 운동회에도 참석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손자녀의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어 생일에 선물해 줍니다. ……

우리는 수많은 미망인들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봉사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다른 봉사에 자원해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면서 성취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움과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극복하는 열쇠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신으로부터 한 발짝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를 하는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무서운 고독으로부터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상황을 개선해 주면서 자신의 처지를 더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⁷

질병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우리의 태도와 영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다.

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인생의 역경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하이가 아버지로서 형들인 레이맨과 레뮤엘 때문에 고통받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며 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니파이후서 2:2)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의 태도와 영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서 해 주는 분들이 사랑과 다정함, 봉사의 정신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계속 마음속에 훌륭한 생각과 느낌이 깃들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속히 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매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시간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물문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는 많은 자비와 축복을 매일 감사드림으로 생활[하십시오.]”(앨마서 34:38)

매일 물문경을 읽는다면 자신이 영이 고양되고,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위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학생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⁸

가족들이 연로한 부모와 조부모에게 사랑과 관심, 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제 몇 분 동안 연로한 분들의 가족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다음 성구를 거듭하여 읽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시편 71:9)

가족들이 연로한 부모와 조부모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디모데전서 5:8)가 된다는 경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오랜 세월 부모에게 보인 애정 어린 관심을 매우 감사히 여깁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로한 회원을 돌봐 줄 가족이 없다면 신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똑같이 다정다감한 방법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로한 분들의 가족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신 이후로 시내산에서 받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12)는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깊이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그분들의 행복과 복지를 염려합니다. 예의와 깊은 배려로 그분들을 대하고 그분들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의로운 소망과 바람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공경을 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공경과 존경을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유아기와 유년기 때 돌보고 양육해 주셨으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때 돌보면서 항상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우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행하는 많은 것은 그분들의 모범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드리고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우리를 양육하면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고자 노력했을 것이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자녀들이 용서해 주길 바라듯이 여러분도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이 연로하더라도 가능한 한 선택의 자유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그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선택을 빼앗지 마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노년기에 스스로 생활하고 돌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연로한 분들이 독립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면, 그때 가족, 교회,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연로한 분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어야 할 때, 가능하다면, 그들의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보살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회와 지역 사회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도움과 지원이 크게 필요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일은 연로한 배우자가, 또는 연로한 부모뿐 아니라 자녀도 돌보아야 하는 중년 딸들이 맡습니다.⁹

6

조부모와 다른 연로한 분들과 가까이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훌륭한 동반자 관계와 유대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는 또한 가능하다면 가족 활동에 연로한 분들을 참여시키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손자녀들이 다정한 조부모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조부모들이 와서 저녁이나 가정의 밤, 또는 다른 특별한 일들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돌보는 것을 가르칠 기회가 됩니다.

조부모들은 손자녀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들의 시간은 부모들처럼 바쁘게 꽉 차 있지 않기에 책을 펴서 읽어 줄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해 주거나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단순히 보상만이 아니라 안전과 평안, 힘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인생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자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편지와 테이프, 사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부모와 다른 연로한 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훌륭한 동반자 관계 및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들은 졸업식, 결혼식, 성전 방문 여행, 선교사 환송 및 귀환 모임, 기타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성공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성장하고 특별한 면에서 성취하는 것을 보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노력하여 성취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축복받습니다. 요한3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러한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사랑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¹⁰

7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연로한 분들을 도울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 신권 지도자들이 연로한 분들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필요 사항을 알고 도울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속삭임에 민감하도록 권고합



“조부모들은 손자녀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보좌들과 벨기세텍 신권 정원희 지도자들, 상호부조회 지도자들, 가정 복음 교사들, 방문 교사들을 활용하여 이 큰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임무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연로한 분들의 지혜와 조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부름을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곳에서는 각자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상이나 가정에서 요양하는 사람일 지라도 때때로 전화나 편지, 또는 기타 특별한 임무를 통해 돌보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개인들이나 부부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성전 성명 초출 프로그램[지금은 가족 역사 색인 작업이라고 함]과 복지 프로그램은 노년기에 그 분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심하고 주의 깊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가 연로한 개인들이나 부부들에게 지명되기를 바랍니다.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큰 평안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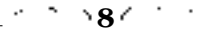
다. 그러한 필요 사항을 알고 해결하는 때에는 세심하고 신중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선 봉사 임무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을 참여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또한 스테이크 및 와드 사교 활동, 특히 독신과 도움이 필요한 배우자가 있는 분들을 위한 활동에 참여시키십시오. 너무나 자주 그들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사망 시에는 다정한 보살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때는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돕고 있는 가족을 잠시라도 돕는 일은 참으로 필요하며 고마운 일입니다. 장기적인 질병이나 불치병에 따를 수 있는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자유로워지게 해 줌으로써 그 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심각한 병이나 문제로 과도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에게는 사랑이 담긴 지원과 구제가 필요합니다.

교통편도 연로한 사람에게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차편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연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감과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¹¹



노년기는 우리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연로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생활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이 노년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돌봐 주는 사람들, 즉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 동료,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삶의 기쁨, 즉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는 기쁨과 연단하는 분의 불로 성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오는 기쁨에 대한 제 간증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훌륭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여러분에 대한 저의 축복을 전합니다. 구주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사업은 참됩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니, 이는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음이라.”(제3니파이 15:9)¹²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여러분보다 연로한 분들의 “지혜와 경험”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었는가?(1편 참조)
- 2편에서 벤슨 회장은 연로한 사람들이 “노년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제안을 했다. 각 제안을 생각해 본다. 이 제안들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왜 봉사가 “외로움과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을 극복하는 열쇠”라고 생각 하는가?(3편 참조) 여기에 딱 맞는 상황을 언제 보았는가?
- 질병과 고통을 경험할 때 벤슨 회장의 권고를 깊이 생각해 본다.(4편 참조) “태도와 영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 이런 권고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5편에 있는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 자녀들과 손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 연로한 부모와 조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가?
- 젊은이들과 연로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을 언제 보았는가?(6편 참조) 그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교회 지도자들과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이 연로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 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7편에 나오는 몇 가지 예 참조)
-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8편 참조) 여러분은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는 사람들의 어떤 모범을 본 적이 있는가?

관련 성구

잠언 20:29; 이사야 46:3~4; 누가복음 2:36~38; 에베소서 6:1~3; 디도서 2:1~5; 야고보서 1:27; 교리와 성약 121:7~8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배운 것에 따라 행동할 때 여러분의 이해는 증가되고 지속될 것이다.”(요한복음 7:17 참조)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 19쪽)* 복음 가르침을 집과, 직장, 그리고 교회 부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주

1.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502.
2.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504.
3.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504~505.
4. Conference Report, Oct. 1989, 3; 또한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4쪽 참조.
5. Conference Report, Oct. 1989, 3; 또한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4쪽 참조.
6. Conference Report, Oct. 1989, 3-5; 또한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4~7쪽 참조.
7. Conference Report, Oct. 1989, 5; 또한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7쪽 참조.
8. Conference Report, Oct. 1989, 5-6; 또한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7쪽 참조.
9. Conference Report, Oct. 1989, 6-7; 또한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7~8쪽 참조.
10. Conference Report, Oct. 1989, 7; 또한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8쪽 참조.
11. Conference Report, Oct. 1989, 7-8; 또한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8~9쪽 참조.
12. Conference Report, Oct. 1989, 8; 또한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9쪽 참조.

순결의 법을 지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천국의 도덕 규범은 결혼 전의 완전한 순결과 결혼 후의 완전한 정절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중교 지도자로, 또 정치 지도자로서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특히 순결의 법과 관련된 도덕성이 계속 퇴보하는 것을 통렬한 심정으로 목격했다. 그는 이런 퇴보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순결의 법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¹라고 가르쳤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라고 하든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순결은 결코 그 의미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²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도덕관념이 없고 부도덕한 세상에 있지만 …… 거기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밤에 자신의 양심에 먼저 자장가를 불러 주지 않아도 잠들 수 있어야 합니다.”³

세상의 부도덕적인 영향에서 깨끗함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벤슨 회장은 다음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님의 현명한 충고를 듣지 않고 데이트 상대와 함께 미심쩍은 소문이 떠도는 곳에 가 보려 한 어느 소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가서 무슨 일인지 보기만 하는 건데 무슨 해가 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결국 딸의 요구에 굴복했고, 가게 되면 우아한 하얀 드레스를 입으라고 제안했습니다. 데이트 상대가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혼제실에 가서 베이컨 한 조각을 가져다주겠니?’

소녀는 그 부탁에 깜짝 놀라서 ‘이 좋은 옷을 입고요? 지독한 냄새가 옷에 뵈 텐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간다면 혼제실에서 나는 냄새를 피할 수가 없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네가 들어가면 더러워지고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곳에 일부러 갈 정도로 바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현명한 조언을 들은 소녀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서 흠 없고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겠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⁴



순결의 법에 대한 순종은 “기쁨과 행복에 대해 깊고 의미심장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1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를 위해 순결에 대한 표준을 정하셨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계명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59:6; 강조체 추가) 태초로부터 주님께서서는 성적인 순결에 대해 분명하고 추호의 그릇됨도 없는 표준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똑같았으며, 지금도 같고 또 앞으로도 항상 같을 것입니다. 그 표준은 순결의 법입니다. 그것은 남녀, 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⁵

교회는 도덕성에 이중잣대를 쓰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천국의 도덕 규범은 결혼 전의 완전한 순결과 결혼 후의 완전한 정절입니다.⁶

물론경에서 선지자 야곱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분 자녀의 순결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야곱서 2:28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순결할 때 그냥 만족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결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순결과 정결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모로나이서 9:9) 것이라고 기록했으며, 아들 모로나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⁷

함께 있으려는 남녀의 자연스런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제는 그분의 율법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결혼을 위해 적절하게 보류된 그것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이뤄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기쁜 것이 되며,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계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것이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이뤄질 때는 저주가 됩니다.⁸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결혼 제단으로 가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혼의 일부로 삼으시고 결혼 성약 밖에서는 금지하신 그런 달콤하고 친밀한 교제를 결혼 관계를 위해 남겨 두십시오. 저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표준입니다.⁹

2

이 세대에는 성적 부도덕의 죄악이 만연해 있다.

이 세대에 만연한 죄악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선지자 조셉의 말씀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유혹이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¹⁰

성적 부도덕은 오늘날의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는 독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정도로 안일한 것이거나, 아니면 모래에 머리를 박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범법의 범주에서 금지된 성적 관계보다 더 한 것은 오직 살인과 성신을 거부하는 일뿐이며,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관여할 때에는 사통이라 하고, 결혼한 사람이 관여할 때에는 더 심각한 죄인 간음이라 칭합니다. 국법에서는 순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심한 처벌을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가중함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녀 모두에게 하나의 도덕 규범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은 변하지 않는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

오늘날 사람들에게 성적 혼란만큼 영을 잃게 만드는 죄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회원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고, 성장이 저해되며, 영적인 힘이 희미해지고, 다른 죄에 빠지게 됩니다.¹¹

여러분이 신체적 의미에서의 혼전 교제를 쌓아 간다면, 심각한 위험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 그런 불법적 교제가 끼치는 해로운 영향은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실망과 마음의 고통, 가정의 구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옵니다.¹²

도덕적 순수성은 영원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합니다.]” [히라맨서 4:24 참조] 순수함은 생명을 주나, 불순함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불순함으로 깨질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국가들도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부도덕이라는 죄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던 이들을 일그러지게 했기 때문입니다.¹³

불순결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반면에 도덕적 순수성은 성공적인 가정을 만드는 가장 큰 보루입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은 부도덕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¹⁴

도덕적 제한은 단지 종교적 규칙일 뿐, 즉 하나님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부도덕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지 사람의 육육과 정욕, 열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얼토당토않은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합리화하든, 무시하든 간에 그에 따른 형벌을 받습니다.

부도덕은 …… 항상 깊은 후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난잡한 관계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오는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하고서도 그것이 옳다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면 마음의 고통과 슬픔, 깊은 자책감, 자부심의 결여 속에서 형벌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맙니다.¹⁵

3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저항하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그릇된 시도를 함으로써 성적인 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사랑받고 가치 있다는 느낌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탄은 자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조장하여 부도덕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는 쾌락과 행복, 성취감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쓴 그대로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잠언 6:32) 레이맨인 사무엘도 똑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하였음이니, 그러한 것은 …… 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니라.”(힐라만서 13:38) 엘마는 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엘마서 41:10)¹⁶

옛말에, 고치고 뉘우치기보다는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순결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은 참으로 진실됩니다.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키는 데에서 첫 번째 방어선은 유혹에 저항하도록 준비를 갖추고 자신이 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¹⁷

깨끗한 생각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 부도덕으로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부도덕의 첫 번째 씨앗은 언제나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선정적이거나 부도덕한 것에서 떠나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부도덕을 향한 첫걸음을 이미 내딛은 것이 됩니다. 특히 외설물의 악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깊은 죄에 빠져든 사람들이 범법으로 향해 간 첫걸음은 외설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구주께서는 남자가 욕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거나, 여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을 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5:28, 교리와 성약 63:16 참조)¹⁸

깨끗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결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교회에서 화면에 갑자기 나타난다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지지 않도록 생활하십시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오래된 격언은 여전히 맞는 얘기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잠언 23:7 참조)¹⁹

선지자 엘마가 그의 빗나간 아들 코리애틀에게 “네 죄를 버리며,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엘마서 39:9)라고 한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눈의 탐욕”, 오늘날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등 모두가 선정적이고 외설적입니다.

잡지와 책들도 음란하고 외설적입니다.

우리는 것처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 권고합니다. 이 불순한 것이 마음을 지나간 후에는 결코 전과 같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²⁰

깨끗하십시오. 정결한 생각과 행동을 하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결코 외설물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121:45~46)²¹

힘을 얻기 위한 기도

항상 유혹에 저항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두에게 유혹은 닥칠 것입니다. 유혹은 여러 형태를 취하며 수많은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에 대항할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의 일을 떠받드는 사탄의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10:5) 유혹, 특히 순결의 법에 관련된 유혹에 저항할 끊임없는 힘을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²²

피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타락하기 쉬운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일에 관여한다면, 여러분은 그릇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²³

부적절한 상황을 피함

유부남, 유부녀들이 서로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집적대는 것이 때때로 용납 되기도 합니다. 소위 해롭지 않은 모임이라는 것들이 준비되고, 각기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이것을 우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 말하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해롭지 않아 보이는 장난을 치거나, 단순히 조금 재미있게 노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을 하다가 너무나 쉽게 상대방과 심각한 관계로 빠지게 되어, 마침내는 배우자에게 불충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문해 보면 좋을 훌륭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면 기뻐할까?²⁴

기혼자는 가능한 한 다른 이성과 단 둘이 있는 것을 피하십시오. 부도덕이란 비극 가운데 많은 것은 남녀가 사무실에, 교회에 단 둘이 있거나, 혹은 단 둘이 차를 타고 갈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유혹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이것에서 또 다른 저것으로 이끌려 가며 너무나 빨리 비극이 만들어집니다. 유혹이 발전할 기회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²⁵

정숙함

정숙하십시오. 옷차림, 언어, 몸가짐에서 정숙한 것은 유덕한 후기 성도 자매의 징표입니다. …… 유치하고 저속하고 선정적인 것을 피하십시오.²⁶

건전하고 긍정적인 활동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이겨 내십시오. 신체적으로 좋은 운동과 건전한 활동을 통해 나쁜 많은 성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이 심신에 미치는 악영향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영혼은 악마를 쫓아내기에 좋은 상태입니다.²⁷

독신으로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애정을 나누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주



“독신으로서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주의 깊게 계획하십시오.”

의 깊게 계획하십시오. …… 역시 이것도 부정적인 것이 자라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인 활동으로 가득 채우는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²⁸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인 힘의 원천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악에 저항하려 하거나 생활에서 죄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을 의로써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전에 몰입하는 것 역시 그러한 활동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연구할 때, 다른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힘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힘의 원천이 됩니다. 구체적인 힘이나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본래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봉사, 교회 참석, 왕국에서 하는 봉사는 모두 우리의 힘과 권능의 창고를 늘릴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영위해야 하는 생활을 하도록 힘과 결의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는 의로운 활동으로 그런 것들을 대체해야 합니다.²⁹

4

성적인 죄에 빠진 사람은 적절한 회개를 통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

준비하고 예방하라는 권고가 너무 늦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죄에 깊이 얽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을 바로잡고 죄를 회개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또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이겨낼 힘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범법을 해결하고 주님과 온전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도록 신권 지도자가 도울 수 있게 하십시오. 신성한 샘물을 마시고 긍정적인 힘의 원천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채우십시오. 적절한 회개를 통해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회개에 필요한 값을 치른 사람들에게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을 걷어 낼 수 있습니다. 용서의 달콤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³⁰

5

부모는 순결의 법에 따라 살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 신체적 보호와 도덕적 보호를 위한 순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³¹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또 그들의 성스러운 동반자 관계를 뒷받침하는 전적인 지지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절이 있다면, 이런 필수 사항들이 내일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으로, 가정에 언쟁과 다툼, 부조화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과 추파를 주고받는 위험한 행실이 부부 사이에 있다면, 그것으로 내일의 가정은 약화될 것입니다. ……

…… 우리는 가정에 의로움을 세우고, 개인적인 순수함과,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절, 가족에 대한 우직한 헌신에서 비롯되는 평안과 단합, 비이기심을 가정에 조성함으로써 가정이 강력한 방벽이 되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결혼을 신성한 제도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는 교훈과 모범으로 영향을 받아 결혼을 준비하고, 마치 지켜온 질병처럼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기타 덕성을 실천해야 합니다.³²



에зра 태프트 벤슨 회장은 순결의 법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부모들에게 권고했다.

6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해 순결의 법을 주셨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 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기쁨을 찾아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원리 중의 하나가 바로 순결의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킬 때 따르는 기쁜 결과를, 또한 이것을 위반할 때 따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엄숙하게 깊이 생각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³³

개인적 순결과 깨끗한 생각, 행동, 고결성을 비롯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지니고 그분의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힘과 영향력이 없다면 다른 어느 조직에 있는 사람보다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정결함은 널리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며, 비회원들이 우리의 신앙을 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³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참되십시오. 율법을 범하면 벌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지상에서 교제와 구애, 가정을 꾸리는 일에서 행복과 성공

을 얻고 싶다면, 하늘의 영원한 율법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³⁵

부도덕에 영속적인 행복이란 없습니다. 순결의 법을 깨뜨리는 일에서는 어떠한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물론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릅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 관계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죄의식과 수치가 그 관계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살금살금 도망쳐서 숨고, 거짓말하고 속여야 합니다. 사랑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비통함, 질투, 분노, 증오까지도 자라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범법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순결의 법에 순종하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키면, 사랑과 평안이 커지고 결혼 상대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더 높아지며,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축복을 받아 기쁨과 행복에 대해 깊고 의미심장한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³⁶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주님께서 세우신 성적인 순결에 대해 “분명하고 추호의 그릇됨도 없는” 표준이라고 말했다.(1편) 이 표준은 세상의 메시지와 어떻게 다른가?
- 순결의 법을 범하는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몇 가지 예를 2편에서 참조)
- 성적인 유혹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몇 가지 예를 3편에서 참조)
-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벤슨 회장의 권고를 살펴본다.(4편) “온전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도록” 회개한 사람을 반기 시켰다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 부모가 “순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주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부모가 서로에게 충실할 때, 그것은 결혼과 순결의 법에 대한 자녀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5편 참조)
- 순결의 법을 지킬 때 따르는 “기쁜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몇 가지 예를 6편에서 참조)

관련 성구

창세기 39:7~21; 고린도전서 6:18~20; 갈라디아서 5:16; 엘마서 38:12; 39:3~5; 제3니파이 12:27~30; 교리와 성약 42:22~25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이 배우고 참여할 준비를 하고 반에 오도록 격려한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배우려 노력할 때 공과 시간 동안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80쪽)

주

1. “순결의 법”, 성도의 벗, 1988년 10월호, 36쪽.
2. “To ‘the Rising Generation,’” *New Era*, June 1986, 6.
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285.
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82-83.
5. “순결의 법”, 36쪽.
6. “To ‘the Rising Generation,’” 5-6.
7. 순결의 법, 36쪽.
8. Conference Report, Oct. 1964, 59.
9.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81.
10.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4쪽; 조셉 스미스의 말을 브리검 영이 인용함, “Instructions to Missionaries,” *Deseret News*, June 13, 1860, 113.
11. Conference Report, Oct. 1964, 59.
12. “Your Charge: To Increase in Wisdom and Favor with God and Man,” *New Era*, Sept. 1979, 43.
13. Conference Report, Oct. 1959, 113.
14. Conference Report, Apr. 1949, 196.
15. *This Nation Shall Endure* (1977), 97.
16. “순결의 법”, 37쪽.
17. “순결의 법”, 38쪽.
18. “순결의 법”, 39쪽.
19. Conference Report, Oct. 1964, 60.
20. “주님의 청년들에게”,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49쪽; 또한 “To the Young Women of the Church,” *Ensign*, Nov. 1986, 81 참조.
2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85.
22. “순결의 법”, 39쪽.
23. Conference Report, Oct. 1964, 60.
24. “순결의 법”, 39쪽.
25. “순결의 법”, 39쪽.
26. “교회의 청년들에게”,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109쪽.
27. Conference Report, Oct. 1964, 60.
28. “순결의 법”, 39쪽.
29. “순결의 법”, 40쪽.
3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84.
31. Conference Report, Oct. 1964, 59.
32. Conference Report, Apr. 1949, 197, 198.
33. “순결의 법”, 40쪽.
3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78.
35. “Your Charge: To Increase Wisdom and Favor with God and Man,” 43.
36. “순결의 법”, 37~38쪽.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교만은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죄이며,
큰 악입니다.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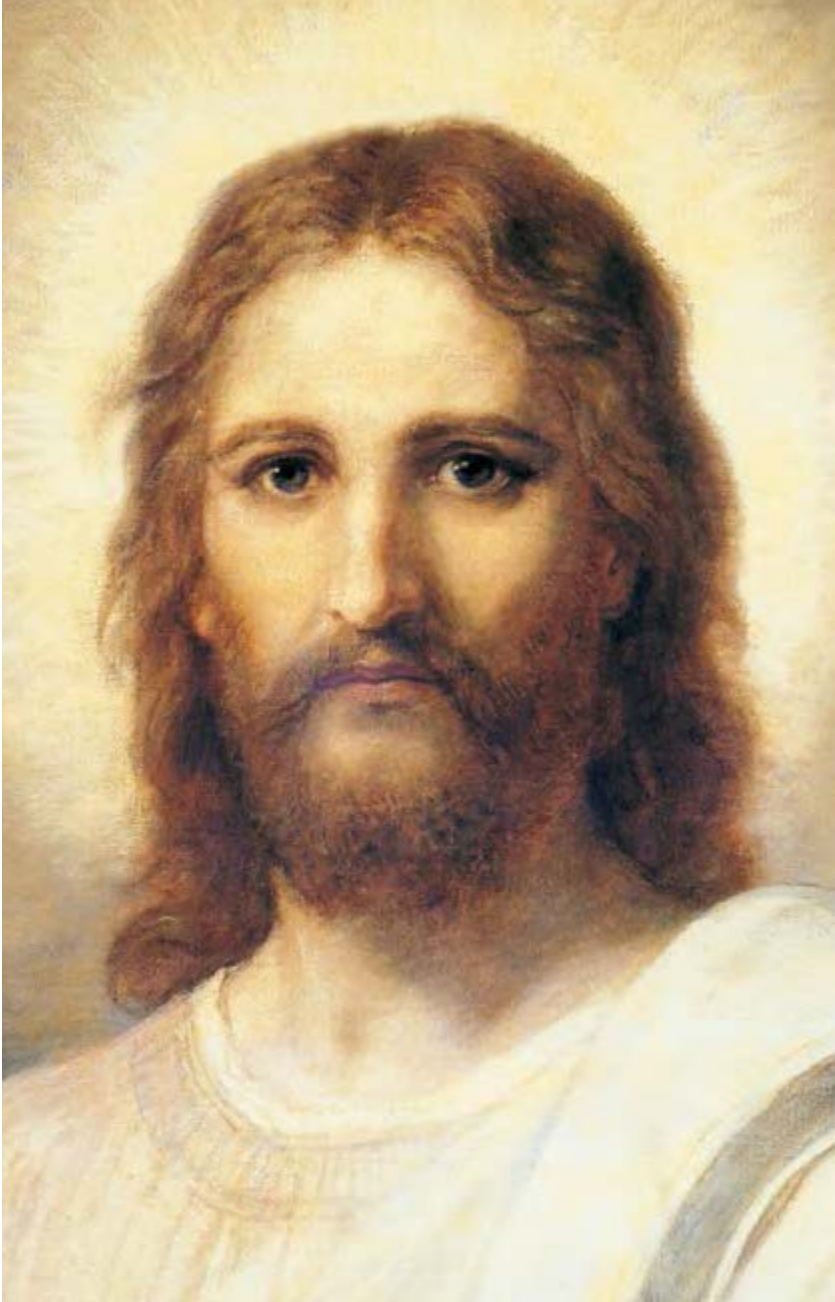
교회 회장으로서는 처음 맞은 연차 대회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에 대해 가르쳤다.

“교만은 하나님을 받들지 않는 것이며, 무엇이 옳은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결눈질로 보게 하고 누가 옳은지 다투게 합니다. ……

교만은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생애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가?’보다는 ‘나는 이 생애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로 특징지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신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주위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는 세상 사람들의 찬사가 꺾전에 땀 돌겠지만, 겸손한 이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¹

이런 가르침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벤슨 회장과 함께 봉사했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 그들은 정원회 회장으로서는 그가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훗날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 된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정원회 모임에서 토론에 접근하는 벤슨 회장의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토론을 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염려 없이 벤슨 회장님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견해가 어떠한지에 대한 걱정없이 의제들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습니다.”² 벤슨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를 이끌 때 그 밑에서 2년 동안 봉사했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이 그분의 의견이 아닐지라도 벤슨 회장님은 오직 하나의 기준, 즉 어떤 것이 왕국을 위해 최선인가 하는 기준에 비추어 상황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마태복음 11:29) 구주는
겸손에 대한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다.

판단하셨습니다. 자신이 해 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처리해야 하더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왕국을 위해 최선의 것만을 원하셨습니다.”³

정부 지도자로서도 벤슨 회장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고자 똑같이 헌신했다. 미국 농무장관으로 일할 때 그는 험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찬사”⁴ 역시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 둘 중 어느 것에도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 대신에 아내인 플로라에게서 자주 받았던 이 조언에 충신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세상의 의견은 신경쓰지 마세요.”⁵ 그는 고요한 “하나님의 칭찬”⁶에 만족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871년 1월 1일”

주님은 교만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교리와 성약은 몰몬경이 “타락한 백성의 기록”(교리와 성약 20:9)임을 말해 줍니다. 왜 그들은 타락했습니까? 그것은 몰몬경의 주요 메시지 중의 하나입니다. 몰몬경은 끝부분에서 이와 같이 답해 줍니다. “볼지어다, 이 나라 곧 니파이 백성의 교만이, …… 그들의 멸망이 되었도다.”(모로나이서 8:27) 우리가 그 타락한 백성들로부터 나온, 중요한 몰몬경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옛날의 니파이인같이 되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하라.”(교리와 성약 38:39)

저는 간절히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의 도움을 구하며, 몰몬경의 메시지인 교만이라는 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얼마 동안 저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전세의 회의에서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가 떨어져 나간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니파이후서 24:12~15; 또한 교리와 성약 76:25~27; 모세서 4:3 참조)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불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때, 교만한 사람은 초개와 같이 될 것이며, 온유한 이는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제3니파이 12:5; 25:1; 교리와 성약 29:9; 조셉 스미스-역사 1:37; 말라기 4:1 참조)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교회의 두 번째 장로인 올리버 카우드리와 선지자의 아내 에머 스미스에게, 경고의 말씀을 포함하여, “교만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3:1; 또한 25:14; 38:39 참조)⁷

교만의 핵심적인 양상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감이다.

교만은 잘 깨닫지 못하는 죄이며, 많은 사람이 무지한 채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모사이야서 3:11; 제3니파이 6:18 참조) 경전에는 의로운 교만 따위의 말은 없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이해하여 기록한 기록에 있는 말들을 알고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니파이후서 4:15; 모사이야서 1:3~7; 엘마서 5:61 참조)

우리는 대체로 교만을 자기 중심, 자만, 자랑, 거만함, 또는 오만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죄의 요소이지만, 중심 또는 핵심이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교만의 핵심적인 양상은 적대감,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적대감이란 ‘증오의 감정, 적개심 또는 반목’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힘으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 들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합니다.]”(빌립보서 2:21)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에 더 치중하면 소망, 욕망,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엘마서 38:12; 제3니파이 12:30 참조)

교만한 사람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힐라맨서 12:6 참조)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보다는 진리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하나님의 신권 권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주님의 놀라우신 업적보다는 자신의 성취를 더 내세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반항, 강박한 마음, 완고함, 회개치 않음, 자랑, 쉽게 성냄, 표적을 구함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널리 퍼진 교만이라는 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는 이웃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을 또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그들을 낮추어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힐라맨서 6:17; 교리와 성약 58:41 참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지성과 의견, 행실, 부, 재능, 또 는 기타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갖고 있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 비교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위에 있다는 즐거움을 얻는다. 비교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위에 있다는 즐거움은 인간을 교만하게 한다. 비교의 요소가 사라지면, 교만도 사라진다.”(*Mere Christianity*, New York: Macmillan, 1952, pp. 109-10.)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루시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옹호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쟁하여 자신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모세서 4:1~3 참조) 그는 다른 모두보다 더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니파이후서 24:13 참조) 간단히 말해서 그의 교만한 욕망은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교리와 성약 29:36; 76:28 참조)

경전에는 개인이나 단체, 도시, 나라에 대한 교만이라는, 그 죄의 심각한 결과가 낳은 증거로 가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잠언 16:18) 교만은 니파이인의 나라와 소돔 시를 멸망시켰습니다.(모로나이서 8:27; 에스겔 16:49~50 참조)⁸

3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인간의 심판을 더 두려워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셨기 때문에 분노했으며, 그것은 또한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요한복음 11:53 참조)

사울은 교만했기에 다윗을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사무엘상 18:6~8)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질투가 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인간의 심판을 더 두려워합니다.(교리와 성약 3:6~7; 30:1~2; 60:2 참조)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아 왕의 교만은 아빈아다이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노아 왕은 선지자 아빈아다이를 풀어 주려 했으나 그의 사악한 제사들이 그의 교만에 호소하여 아빈아다이를 불길 속에 처넣게 했습니다.(모사이야서 17:11~12 참조)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베라는 아내의 요청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곁에 “얕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교만한 욕망 때문에 요한을 죽이게 했습니다.(마태복음 14:9; 또한 마가복음 6:26 참조)

인간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요한복음 12:42~43)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를 보면, 죄가 어디에 있는지가 곧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요한복음 8:29)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자신을 우리 형제나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리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데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교만한 일부 사람들은 월급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가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들이 얻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적대감입니다.

교만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속박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신의 속삭임보다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논리를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교만한 이는 쇠막대를 지나칩니다.(니파이전서 8:19~28; 11:25; 15:23~24 참조)⁹

교만은 많은 면에서 나타난다.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곧바로 찾아볼 수 있으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은 거의 인정하려 들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만이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부자나 학식 있는 자와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죄로 생각합니다.(니파이후서 9:42 참조) 그러나 우리 사이에서 훨씬 더 흔히 보게 되는 문제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결점 찾기, 험담, 비난, 불평, 분수에 넘는 생활, 질투, 탐심, 배은망덕, 용서하지 않고 시기함 등 너무나 많은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보다 권세가 높은 사람에 대하여 싸우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힘입니다. 그 대상은 부모나 신권 지도자, 교사,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위치를 낮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은 좀 더 흔히 보는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자기 기만, 자기 연민, 세상적인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본위와 같은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교만은 세상의 영광과 힘을 얻기 위해 세워지는 비밀 결사를 낳습니다.(힐라맨서 7:5; 이더서 8:9, 16, 22~23; 모세서 5:31 참조) 소위 비밀 결사라 부르는, 교만의 죄에서 맺히는 열매가 야렛인과 니파이인 문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교만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멸망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요인이 될 것입니다.(이더서 8:18~25 참조)

교만의 다른 모습은 논쟁입니다. 말다툼, 싸움, 불의한 지배, 세대 차이, 이혼, 배우자 학대, 폭동, 소요 등 이러한 모든 것은 교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가정에서 하는 논쟁은 주님의 영을 쫓아냅니다. 또한 많은 가족을 쫓아냅니다. 논쟁은 거친 말에서부터 세계 도처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잠언 13:10; 또한 잠언 28:25 참조)고 말해 줍니다.

경전은 교만한 자는 쉽게 화내며 악의를 품는다고 증거합니다.(니파이전서 16:1~3 참조) 그런 사람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 두고, 용서하지 않으며, 상처 받은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려 듭니다.

교만한 자는 권고나 시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잠언 15:10; 아모스 5:10 참조) 자기 방어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마태복음 3:9; 요한복음 6:30~59 참조)

교만한 자는 자신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세상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들의 자긍심은 세상적인 면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판단하는 타인의 의견에 따라 정해집니다. 업적, 재능, 아름다움, 지적인 면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있다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교만은 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공했다면,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인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¹⁰

5

교만은 발전을 저지하거나 멈추게 한다.

교만은 그 말 자체로 보면 저주스러운 죄입니다. 그것은 발전을 저지하거나 멈추게 합니다.(엘마서 12:10~11 참조) 교만한 사람은 쉽게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니파이전서 15:3, 7~11 참조) 그렇게 하면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에 진리를 받아들여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 종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고용주와 고용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 모든 인류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교만 수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올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 주고자 열망합니까?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다른 사람과 형제 관계라는 느낌을 희미해지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부와” 우리의 “배움을 위한 기회”에 따라 우리를 “계층으로”(제3니파이 6:12) 구분하고 나눕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단합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모사이야서 18:21; 교리와 성약 38:27; 105:2~4; 모세서 7:18 참조)



겸손은 결혼 및 가족 관계에 단합과 힘을 가져다준다.

교만으로 우리 생활, 우리 가정, 교회에서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 왔고, 치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일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회개를 통해 생활이 변하고,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교리와 성약 58:43 참조)

감정이 상하고, 교만했기에 용서를 못하고 주님의 식탁에 온전히 앉을 수 없어 교회에서 활동이 저조해진 많은 회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 아니었다면, 선교 사업에 나가 있었을 수많은 젊은이들과 부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앨마서 10:6; 힐라맨서 3:34~35 참조)

우리의 시간을 교만함 때문에 추구하는 수많은 것보다 거룩한 봉사에 쓰는 것을 더 중시한다면, 얼마나 많은 성전 사업이 이루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¹¹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이다.

교만은 모든 사람에게 때와 정도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교만을 나타내는, 리하이가 꿈에서 본 건물이 왜 것처럼 크고 넓었으며 그곳으로 들어간 무리가 왜 그렇게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니파이전서 8:26, 33; 11:35~36 참조)

교만은 보편적인 죄이며, 크나큰 악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보편적인 죄이자 크나큰 악입니다.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 즉 온유함과 유순함입니다.(엘마서 7:23 참조)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입니다.(제3니파이 9:20; 12:19; 교리와 성약 20:37; 59:8; 시편 34:18; 이사야 57:15; 66:2 참조) 루드야드 키플링이 그것을 잘 묘사했습니다.

걱정 소요 사라지고
수령과 왕은 떠나가
주께서 보이신 희생
결단코 없어지지 않으니
만군의 주 잊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소서 ……

하나님은 겸손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다”(엘마서 32:16)

스스로 겸손해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고 그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존중하며, 우리와 같이, 또는 더 높이 올려 줌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38:24; 81:5; 84:106 참조)

우리는 권고와 징계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야곱서 4:10; 힐라맨서 15:3; 교리와 성약 63:55; 101:4~5; 108:1; 124:61, 84; 136:31; 잠언 9:8 참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제3니파이 13:11, 14; 교리와 성약 64:10 참조)

우리는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모사이아서 2:16~17 참조)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전파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엘마서 4:19; 31:5; 48:20 참조)

우리는 좀 더 자주 성전에 감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58:43; 모사이야서 27:25~26; 엘마서 5:7~14, 49 참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며,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우선시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제3니파이 11:11; 13:33; 모로나이서 10:32 참조)

겸손해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온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지 못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니파이인의 헌납이 종말을 맞이했던 것도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제4니파이 1:24~25 참조)

교만은 시온의 큰 장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시온의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극복하여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엘마서 6:2~4; 마태복음 23:25~26 참조)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교만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모사이야서 3:19; 또한 엘마서 13:28 참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소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¹²

학습 및 교수 제안

질문

- 벤슨 회장은 교만이 니파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1편 참조) 교만에 그런 치명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하는[가?]”(2편 참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오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3편 참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염원일 때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하는가?
- 4편에 열거된 교만이 나타나는 여러 형태를 살펴본다. 우리 생활에서 이런 교만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 벤슨 회장은 “교만은 우리의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했다.(5편) 왜 이 말이 맞는가?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좋아지는가?
- 6편에서 벤슨 회장은 겸손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는 것보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23:12; 누가복음 18:9~14; 야고보서 4:6; 열마서 5:27~28; 교리와 성약 112:10; 121:34~40

학습을 위한 도움말

선지자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기 위해, 선지자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165쪽 참조) 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 걱정거리, 질문, 어려움을 풀어가는데 그런 가르침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본다.

주

1.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6쪽.
2. Boyd K. Packer,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429-30.
3. Russell M. Nel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30.
4.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6쪽.
5.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293.
6.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6쪽.
7.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4쪽.
8.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4~5쪽.
9.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5~6쪽.
10.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6쪽.
11.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6~7쪽.
12.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7~8쪽; 루드야드 키플링이 작사한 “God of Our Fathers, Known of Old”의 가사, *Hymns*, no. 80.



지도력

“장차 교회와 [여러분의] 조국과 가정을 위해
지도자로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목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은 청소년 시절부터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가 열세 살 정도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선교사로 부름받게 되었다. 장남으로서 에즈라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동안 가족의 농장에서 지도력이 필요한 많은 책임을 맡아야 했다. 몇 년 후 영국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지부 회장과 뉴캐슬 컨퍼런스(지금의 지방부 개념) 회장으로 봉사했다. 훗날 그는 세 곳의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한 번은 보좌로, 한 번은 잠시지만 스테이크 회장으로, 또 한 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다. 사회에서 일할 때에도 그는 농업계의 여러 지도자 직책을 맡았었다. 그는 농업 분야에서 지도자이자 전문가가 되었고, 이에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벤슨 회장에게 미국 농업 분야의 최고위 직책에서 일하도록 요청했다. 벤슨 회장은 8년 동안 미국 농무부 장관으로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교회 회장이 되기 전에 벤슨 회장은 12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정원회 회원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벤슨 회장을 깊이 존경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교회의 관리 면에서 벤슨 회장님만한 분을 본 적이 없다고 가족에게 자주 이야기했다.”¹

벤슨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를 이끌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더라도 솔직하게 말해 줄 것을 장려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정원회에 새로 들어왔을 때 의견을 과감하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벤슨 회장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잠자코 있으면 의견을 꼭 물어보셨습니다.”²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과 제일회장단 보좌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왼쪽)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오른쪽)

벤슨 회장은 모두의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토론이 겉돌게 두지는 않았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그는 “정원회 회원들에게서 솔직하고 열린 토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알았고, 토론을 이끌고 조절해서 모두가 단합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³고 말했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면, 늘 ‘건초를 충분히 다 말렸으니 이제는 묶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며 토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⁴

벤슨 회장은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범으로 가르쳤다. 고든 비 힙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그분만큼 이해심을 보이거나 그들의 안녕에 대해 관심을 쏟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모범을 보여 주십니다.”⁵ 벤슨 회장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효과적으로 위임해서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 했다.

벤슨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던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힙클리 회장은 교회를 이끌도록 주님께서 벤슨 회장을 선택하고 준비시키셨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을 거의 43년 전에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선택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 이후로 그를 시험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준비시킨 분은 주님이십니다. ……

저는 그분을 알고, 또한 옆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신앙이 깊고, 시험을 거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며, 주님과 주님의 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도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을 사랑하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입증된 분[입니다.]”⁶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 ~ ~ ~ 1 ~ ~ ~ ”

효과적인 지도자는 신앙을 바탕으로 굳게 서며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

그리스도의 지도력은 어려움 속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권능이 커졌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 사람들이 의로움의 원리에 충실하고 헌신[하도록 그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가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자질들을 발현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범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소망과 힘으로서 계속되고 있습니다.⁷

장차 교회와 [여러분의] 조국과 가정을 위해 지도자로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목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에베소서 6:11~12)⁸

모범은 더 많고 비평가들이 적을수록, 우리 젊은이들은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인생에서 따르고 본받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모범입니다. 복음 가르침에 딱 들어맞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서 받는 영감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⁹

2

사람들은 효과적인 지도력에 호응한다.

겸손

위대한 지도력을 나타내는 한 가지 특성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었으며,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입니다.¹⁰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이상, 긍정적인 습관,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노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자질은 지혜, 신체 및 정신적 안녕, 사람들의 열성적인 수용과 호응을 촉진합니다.¹¹

건전한 사람만이 사람들을 고양하고, 그들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큰 힘을 내도록 격려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¹²

영감은 적절하게 인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우리는 가르치거나(교리와 성약 50:13~14) 왕국의 일을 관리할 때(교리와 성약 46:2) 영감의 영을 지켜야 합니다.¹³

영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¹⁴

지식

진정한 지도자는 정보를 충분히 얻으려 노력합니다. 편의보다는 원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신성한 지혜가 담긴 계시된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이의 경험에서 배움을 얻으려 노력합니다.¹⁵

지도자가 올바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 한 가지는 경전과 관련 지침서를 철저히 익히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전에도 이미, 아마 여러 차례 발생했던 일들일 것이며,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정책과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법이 궁금하면 기존에 기록된 유의 사항과 교회 정책을 참고하고 숙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편이 됩니다.¹⁶

지도자는 우리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회 교리를 공부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디모데후서 2:15)이 되기를 바랍니다.¹⁷

충성심

좋은 지도자는 충성을 기대합니다. 본인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을 맡긴 사람을 지원합니다. 충성심은 의무감을 초월하여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과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명예가 돌아가더라도 충성합니다. 그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군가가 내린 결정에 대해 그 사람과 먼저 상의하기 전에는 그 결정을 기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동료들을 당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솔직하고 개방적입니다.¹⁸

단합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일치단결”을 해야 하고 “해의 왕국의 율법의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105:4~5) 생각과 마음의 단합이라는 원리와 태도가 요구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 요한복음 17:20~23) 이것이 구주께서 그분의 현대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그 어느 곳보다도 주님의 왕국을 관리하도록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 사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¹⁹

사랑과 신뢰의 표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효과적인 지도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교리와 성약 18:10 참조) 청소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목표를 권장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까?²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효과적인 지도력의 핵심입니다.”

비판보다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명받은 일에 대해 우리 지도자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구체적인 간단한 의견, 또는 메모는 일을 계속해 나갈 훌륭한 추진력이 됩니다.²¹

우리는 …… 지도자가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보내는 시간이 모임이나 행정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생산적임을 압니다. 개인적인 접촉은 저활동 회원을 돌이키게 하는 열쇠입니다.²²

특히 교회에서는 지시보다는 부탁이 좋은 결과를 낳고, 또 기분도 더 좋습니다. 이유를 말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람들이 지명받은 일을 잘 수행할 때에는 감사를 표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했을 때에는 신뢰를 표시하십시오. 일이 엉망이 될 때에는 뒤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회원들은 자유 의사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주님과 그분의 일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감사를 표하십시오. 동료 회원을 질책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흥미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등을 토닥이며 격려하십시오. 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²³

사람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라고 강요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지도력에는 호응을 합니다.²⁴

3

훌륭한 지도자는 현명하게 위임한다.

위임에 관한 구주의 모범

세상의 기초는 위임된 권세를 통해 놓여졌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은 위임된 권세를 통한 것임을 여러 차례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분 교회의 회복도 위임된 권세로 시작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이런 말로 알리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요한복음 6:38)²⁵

예수님은 적절한 위임을 통해 훌륭하게 관리하는 모범을 완벽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 그분께 위임을 받은 선교사 대다수는 전대나 지갑 없이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그분을 위해 봉사하면서 잔인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임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지시를 받들어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렇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²⁶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권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께서는] 교회 관리를 돕도록 열두 명의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칠십인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임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방관자가 없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국 건설을 돕는 일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국을 건설하면서 자신도 발전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개개인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왕으로 만들고 영원의 관점에서 그들을 지도자들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 잊지 못할 그 저녁에 주님은 열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한복음 14:12) 위임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려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곳에서 위임받은 직책을 통해 사람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²⁷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십이사도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우리 조직에서의 위임

훌륭한 관리는 권세의 위임을 의미합니다. 업무의 일정 부분을 위임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직에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관리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배가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²⁸

현명한 위임에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도할 때에도 그렇듯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14) 덧붙이자면, 영이 없이는 위임을 하지 마십시오.²⁹

오늘날 이 교회의 현명한 관리자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혼자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을 하고 나면, 자신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 준다는 확신을 위임받은 사람이 느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³⁰

지도자는 책임을 준 다음에는 지명을 받은 사람이나 위임해 준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따라가지만 “어깨 너머로 보지는” 않습니다.

응당한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 줍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이 되는 격려도 합니다. 일이 잘되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면, 용기있고 단호하게, 하지만 친절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지도자는 어떤 직분의 책임 기간이 끝나면, 수고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³¹

현명한 지도자는 모든 좋은 생각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이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줍니다. 그들이 지도자의 정책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느끼게 해 줍니다.³²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발전시킬 때 영을 구해야 한다.

오늘날 이 교회의 지도자는 보통 자신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을 성과로 냅니다. 지도자는 크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무를 지명해 준 사람들에게 여느 책임을 수행할 때보다도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더 큰 힘을 갖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의 일에서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의 복음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역할을 다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님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 능력을 배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³³

교회는 …… 비즈니스 세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라 구함받은 영혼을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일해야 하지만, 영원한 목표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용어를 성스러운 신권 기능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인 문제 해결 절차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왕국의 일을 할 때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앙과 기도, 영으로 이뤄져야 하며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교리와 성약 50:18)³⁴

교회의 전반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태도, 속성, 이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그들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³⁵

학습 및 교수 제안

질문

- 벤슨 회장은 지도자들이 의로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쳤다.(1편 참조) 모범은 왜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도자의 의로운 모범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 2편에 설명되어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특성을 공부한다. 사람들이 왜 “[그런] 지도력에 호응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특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 벤슨 회장은 교회 지도자는 위임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주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다.(3편 참조) 위임은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에게 위임된 책임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일합니다.”라는 말을 기억할 때, 교회 봉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4편 참조)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행동했을 때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관련 성구

출애굽기 18:13~26; 마태복음 5:13~16; 누가복음 22:31~32; 엘마서 17:1~11; 교리와 성약 38:23~27

교사를 위한 도움말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이 인정되었을 때 감동받게 된다. 여러분은 각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반 토론의 일부로 의견 발표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36쪽)

주

1.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429.
2.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30.
3.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30.
4.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29.
5.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474–75.
6. 고든 비 힝클리, “와서 참여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51~52쪽.
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345.

8.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2.
9.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5-76.
1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1.
1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1.
1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55.
13. *God, Family, Country: Our Three Great Loyalties* (1974), 126.
1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5.
1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7.
16.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5.
1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5.
18.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1.
19.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2.
2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0.
2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1.
2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47.
2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6-77.
2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45.
2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8.
26.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8.
27. *God, Family, Country*, 135-36.
28.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9.
29.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9-80.
3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9.
31. *God, Family, Country*, 140.
3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1.
3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2.
3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2-73.
3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373.



“지금은 선한 목자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참된 목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그분에게 소중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할 때 겪었던 한 경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오래 전에 아이다호 보이시에서 스테이크 회장단 모임을 하며 우리는 스테이크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장로 정원회에 대한 회장을 선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그 정원회에 속한 모든 장로의 명단을 가져왔는데, 명단에는 제가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후기 성도 가족 출신이었지만, 교회에서 그리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독이 예배당에서 몇 가지 일을 하도록 부탁하면 대체로 호응해 주었고, 장로들이 소프트볼을 하고 싶어 할 때에는 함께 해 주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그는 지도자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봉사 단체 회장이었으며,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가서 이 형제를 만나 교회 표준에 맞는 생활을 해 달라고, 그리고 정원회를 맡아 달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려점도 있지만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 저는 그 형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문을 열어 스테이크 회장단에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인 그의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저를 들어오게 했고, 그의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주

방에서 나는 커피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제가 온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의 대답을 오늘 당장 들으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해 보고, 그것이 형제님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형제님에 대한 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는 문을 열어 주는 그에게서 뭔가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기뻐하면서 곧장 들어오게 했고 아내를 불러 합석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벤슨 형제님, 형제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회장단에서 저를 그만큼 믿어 주신다면, 교회 표준에 따라 제 생활을 기꺼이 정리하겠습니다. 진작에 해야 했던 일이지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난 주에 형제님이 가신 이후로 커피는 입에 대지도 않았고, 이젠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고, 정원회는 참석 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는 나가서 팔을 벌려 저활동 장로들을 껴안았으며, 그들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몇 달 뒤에 저는 그 스테이크에서 이사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에서 한 형제가 제게 다가오더니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벤슨 형제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네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7년 전에 보이시에서 한 태만한 장로의 집에 오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러자 그 모든 것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벤슨 형제님, 그 일요일 오후에 저희 집에 오셨던 일을 감사드릴 기회가 없을까 봐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감독입니다. 전에도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었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¹

벤슨 회장은 이런 경험을 비롯해 여러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교회와 복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교회 회원들을 찾아가도록 충실한 후기 성도들에게 권고했다.² 198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활동화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해 주시도록 권장합니다.”³

“마음속으로 그 형제들, 가장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그런 형제들을 활동하게 해서 그들이 가족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 주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귀한 축복을 그들에게 열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활동 촉진 노력을 그저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 시기를 기록으로 남긴다면, 방황하고 길잃은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되찾았다고 기록되기를 바랍니다.⁴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 1 ”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에는 교회에서 떨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찾아 나서는 일도 포함된다.

주님 교회의 목적은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축복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이 발전해 나가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

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 특히 교회에서 완전히 활동하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그 어려운 일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인 이 회원들은 현재 교회와 복음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활동 회원이라는 이 그룹에는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며, 그들은 교회에 무관심하고, 상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재가 불분명해서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양육을 위한 관심과 가르침을 분명히 받지 못하는 새로운 개종자도 있습니다.(에베소서 2:19 참조) 많은 사람이 독신 성인입니다.

교회 회원이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라며 사랑과 진심 어린 권유를 하고 또 해야만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주님의 식탁에서 흡족히 취하고 성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우정의 열매를 다시 맛보십시오.”(*Ensign*, March 1986, p. 88)

우리 앞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 이런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서려면 큰 신앙과 노력, 결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할 것입니다!⁵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양육하려 노력할 때, 선한 목자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을 적용해야 한다.

지금은 잃어버린 양과 제멋대로 구는 어린 양을 되돌려 놓으려는, 선한 목자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을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에 적용할 때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마태복음 18:12~13).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가 자신이 기르는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알았습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를 신뢰합니다. 양은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가 부르면 그를 따라갑니다.(요한복음 10:1~5, 14 참조)

밤이 되면, 목자는 양을 울타리 또는 양 우리로 인도합니다. 높은 담장이 양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담장 맨 위에는 야생 동물과 도둑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가시가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굴주름에 지친 야생 동물이 담장을 뛰어넘어 양떼 속으로 들어와 양들에게 공포를 안겨 주며 양들을 위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양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와, 샅을 받고 의무적으로 일하는 샅꾼이 구분됩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양 떼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의 안전을 위해 싸웁니다. 반면에 샅꾼은 자기의 안위를 양의 안전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대부분 위험을 피하고 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흔했던 그런 상황을 활용하여 자신이 선한 목자이자 참된 목자임을 밝히셨습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또 자원해서 버리려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0:11~18 참조)

결국 선한 목자는 양, 즉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상징은 오늘날 교회에서 상당히 비슷한 면을 보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이끄는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이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양은 일시적인 방심으로 현혹되었으며, 또 어떤 양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와드와 지부에서 우정을 키워 나갈 때, 우리는 서로가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머물도록 돕는 것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양은 반발하여 “목자에게서 도망[한] …… 들양 떼”(모사이야서 8:21)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목자들이 사랑으로 집중해서 돌보지 못한 까닭에 생기는 것으로, 더 많은 목자들이 분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회원들, 즉 복음 안에서 새로 태어난 회원들이 복음 지식을 쌓고 새로운 표준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목자와 같은 보살핌으로 그들을 집중적으로 돌보고 그들과의 우정을 증진해야 합니다. 그런 집중적인 관심은 그들이 과거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자와 같은 따뜻한 관심이 있으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 양들은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여 그들이 방황하더라도, 목자의 손에 든 지팡이, 즉 따뜻한 팔과 이해심 많은 마음이 그들을 되찾는 힘이 될 것입니다.

목자와 같은 관심이 있으면, 지금 목자와 떨어져 있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결혼하고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많은 사람이 우리로 돌아오라는 권유에 호응할 수 있습니다.⁶

길에서 벗어난 후기 성도들에게는 참되고 사랑이 많은 목자의 진심 어린 진정한 염려가 필요하다.

양이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찾으려 헤매는 것, 즉 이 오래된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이란 것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하실 정도로 강조하신 이 지시에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17 참조).

몰몬경의 영화로운 권고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침례 받아 오는 사람들은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해야]”(모로나이서 6:4)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자처럼 양 떼를 보살피고 먹이는 것이 그 답입니다. 달리 말해 개인적으로 보살피는 것입니다. 참되고 사랑이 많은 목자는 진심 어린 진정한 염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샅꾼이 으레 보여 주는 피상적인 염려가 아닙니다.

참된 목자의 개념을 이야기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 책임을 신권 소유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매들도 서로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롭고 따뜻한 봉사를 통해 “목자처럼 보살피는” 부름을 받았 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된 목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그분에게 소중합니다. 이런 권유는 모든 회원, 즉 하나님의 모든 아들딸들에게 해당합니다.

“보라, 그는 만민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펼쳐 있음이라, 그가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되리니, ……

참으로 내게 와서 의의 일에서 결실을 거두라.”(앨마서 5:33~35)

주님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취하라는 그분의 영화로운 권유를 받는 모든 사람은 환영을 받습니다. 산만한 양도 있고, 무관심한 양도 있고, 딴 생각을 하는 양도 있지만, 양들을 모두 찾고 사랑해서 다시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신권 및 보조 조직 자원을 동원해서 이런 노력을 도와야 합니다.

스테이크와 와드, 정원회,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충실한 회원들이 모든 곳에서 의지와 신앙을 행사하여 저활동 회원들이 다시 교회에서 온전하게 활동하게 할 때, 이 사명은 비로소 달성될 것입니다.

이런 합당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효과적인 신권 가정 복음 교육과 효과적인 상호부조회 방문 교육을 재차 강조해 주시도록 촉구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은 영감에 따른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활동 회원이건 저활동 회원이건 매달 각 회원을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⁷

4

한결같이 형제 자매들에게 성역을 베풀면, 우리는 복음을 주는 모든 축복과 의식을 그들이 받도록 도울 수 있다.

엘마가 주님께에서 멀어져 방황하는 조램인들이 제 길로 돌아가도록 도울 때 드렸던 다음과 같은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함에 있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시겠나이까.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귀하며, 저들 중 많은 자가 우리의 형제들이오니,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사, 우리로 이들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엘마서 31:34~35; 강조체 추가)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저활동 상태인 사람을 찾아서 연락해야 합니다.
2.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3. 그들은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교사를 통해 성신의 힘을 느껴야 합니다.
4. 그들과 함께 우정 증진을 해야 합니다.
5. 그들은 교회에서 의미 있는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물론정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계속하여 성역을 베풀어야”(제3니파이 18:32) 합니다.

특히 새로운 개종자들이 교회에서 충분히 우정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을 벌려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저활동 회원이 교회에서 완전히 활동화되도록 데려오기 위해 단합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 사명, 즉 복음과 그에 따른 축복과 의식을 모든 교회 회원의 생활에 더 풍성히 임하게 하는 일에서 더 잘 단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회원을] 필요로”(교리와 성약 84:110) 하며, 모든 회원은 복음과 교회, 거기에 있는 모든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사랑의 일을 함께 해 나갈 때,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필요한 권능과 영향력을 주는 주님의 축복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⁸

학습 및 교수 제안

질문

- “교회와 복음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들에게 다가서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1편 참조)
- 샅꾼과 목자의 차이에 대한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본다.(2편 참조) 더 나은 목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벤슨 회장은 “참되고 사랑이 많은 목자의 진심 어린 진정한 염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3편) 타인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가정 복음 교사 또는 방문 교사로서의 자신의 봉사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계속하여 성역을 베풀어야”(제3니파이 18:32)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활동화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도움이 되도록 벤슨 회장이 제안한 다섯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본다.(4편 참조)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을 때, 이러한 원리 하나하나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9:10~12; 누가복음 15장; 22:32; 베드로전서 5:2~4; 모로나이서 6:4; 교리와 성약 18:10~16; 84:106

학습을 위한 도움말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면서 일정한 유형과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경전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한 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영을 동반하여 봉사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60쪽)

주

1. “Feed My Sheep,” *Ensign*, Sept. 1987, 4-5.
2. “Feed My Sheep,” 3.
3.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9쪽.
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234.
5. “Feed My Sheep,” 3.
6. “Feed My Sheep,” 3-4.
7. “Feed My Sheep,” 4.
8. “Feed My Sheep,” 4, 5.



194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복지 물자를 점검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오른쪽)와 스위스 선교부 회장 대리인 맥스 짐머 회장



현세적 및 영적 복지의 원리

“인류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영적 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관심사로서,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럴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전 세계인들이 대공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던 1936년에 제일회장단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회 안전 계획(Church Security Plan)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궁핍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물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려는”¹ 것을 그 취지로 삼았다. 제일회장단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근면과 자립, 봉사의 기본 원리를 가르쳤다. 그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고, 식품을 가공하여 저장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고,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아이다호 보이시에 있는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아이다호 주를 위해 일하는 경제학자이자 마케팅 전문가였고, 또한 농장 경영 전문가였다. 그는 스테이크 회장으로부터 교회 안전 계획을 소개하는 모임에 참석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제 영혼은 그날 제가 들었던 모든 것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저는 보이시 스테이크로 돌아가서, 그 모임에서 발표된 그 프로그램이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전하다는 제 느낌을 형제들에게 전했고,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건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충심을 다해 호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²

벤슨 회장이 그 프로그램을 스테이크에 소개한 지 두 달 뒤에 “수많은 복지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는데, 한 와드에서는 넓은 밭을 경작했고, 어떤 와드에서는 넓은 땅에 사탕무를 심었으며, 어떤 와드의 상호부조회는 식품 통조림을 만들고 켈트 및 옷을 제작했다. [한 와드는] 아예 조그만 통조림 공장을 만들었다.”³

그로부터 10년 후, 벤슨 회장은 복지 프로그램이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목격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유럽에서 교회를 감리하는 임무를 받았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벤슨 회장은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자립심을 되찾도록 돕는 교회의 사업을 주도했다. 그는 교회에서 보낸 첫 번째 지원 물품이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선교부 회장 대리 리하르트 랑글라크 회장을 대동했습니다. 우리는 무장한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낡고 찌그러진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귀중한 복지 보급품이 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거의 천정까지 쌓아올린 상자를 보았습니다.

‘이 상자들이 모두 식료품입니까?’ 리하르트 형제가 말했습니다. ‘이 상자에 식료품이 가득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식료품과 의류와 침구가 있으며 의약품도 조금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하르트 형제와 저는 상자 하나를 내려놓고 열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흔한 음식인 마른 콩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를 본 리하르트 형제는 한 움큼 콩을 쥐더니 손가락 사이로 콩을 흘려보내며 너무도 고마워 털썩 주저앉아 어린아이같이 울었습니다.

다른 상자를 열어 보았더니 아무것도 첨가하지도 않고 도정하지도 않은, 주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인, 빵은 밀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으로 조금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제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흔들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슨 형제님, 우리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도입니다! 형제애와 희생정신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부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엄과 자기 존중심을 갖게 합니다.”⁴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 1 / ……”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현세적으로, 영적으로
기꺼이 축복하고자 열망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현세적인 일을 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현세적인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나니”[교리와 성약 29:34]

물론 목적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현세적인 세상에 삽니다. ……

……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 즉 현세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에, 주님은 이 백성에게 주신 초기 계시에서 그것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 현세적인 일에 관한 지침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땅과 다른 재산을 매입할 때, 성전을 지을 때, 심지어는 인쇄소와 상점을 지을 때, 또 “지친 나그네”를 위해 유숙하는 집을 지을 때에도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4:22~23 참조]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위대한 계시에서 주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지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축을 먹이는 계획도 알려 주셨는데, 이것은 수백 년 이상에 걸친 인간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점차 입증되어 왔습니다.[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사람의 복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항상 교회의 관심사이며,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럴 것입니다. 우리 백성은 늘 현세적인 일에서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늘 명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분의 백성에게 현세적인 축복을 주고자 열망하시지만, 물질적인 모든 것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며, 목적은 영적인 것임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주님은 많은 계시에서 그 점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곡식과 가축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가축과 가정에 대해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적인 일에 대해 주님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님은 거듭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기꺼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인류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영적 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관심사이며,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럴 것입니다.⁵

복지 사업의 어느 면을 집행하더라도 복지 사업 설립의 일차적인 목적을 지켜야만 합니다.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계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⁶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위력은 충분히 준비하여 자립하라는, 영감에 찬 교회 지도자들의 지침을 따르는 모든 가족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자신을 준비하여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78:14)⁷

정전에 있는 현명한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마태복음 25:1~13 참조]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자신의 영적 및 현세적인 집에 질서를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⁸

활력이 넘치고, 목적이 있는, 이타적인 일을 통해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신의 속성을 키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에게 제시된 첫째 원리의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세기 3:19) 물질적인 자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모두 노동의 산물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은 노동뿐입니다.⁹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의 이마가 아니라 자신의 이마에 땀을 흘려 생계를 꾸려 나가라고 명하십니다.¹⁰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일은 목적이 있고 이타적이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신의 속성을 키울 수

가 있습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주님의 손에 놓인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런 힘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 유산, 봉사 기회, 그리고 그에 따르는 풍성한 보상에 대해 겸손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런 힘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¹¹

복지 사업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일용품이나 금식 현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 일을 해야 합니다.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장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이 손상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하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낼 능력이 있는데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면, 그들을 영구히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¹²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의 축복을 구해야 하며,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대신 해 주시도록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신앙과 일을 믿으며, 주님께서는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한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더 충분히 축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¹³

목적이 있고 활력 있게 일하면, 활기찬 건강함과 칭찬받을 만한 성취, 깨끗한 양심, 상쾌한 수면을 얻게 됩니다. 일은 항상 사람에게 유익했습니다. 머리, 가슴, 손 등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일에 대한 건전한 존중심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노력에 따르는 만족감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그저 원하거나 꿈만 꾀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희생하며,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¹⁴

3

식품을 생산하고 비축하면, 직접적인 유익을 얻고 미래의 상황을 준비할 수 있다.

지역 사회나 국가의 교통이 마비되고, 전쟁이 나고,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이웃은 어떻게 식량을 얻겠습니까? 식료품 가게나 슈퍼마켓이 얼마나 지역 사회의 필요 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식품 생산 노력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저는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유럽으로 가서 선교부를 재건하고, 성도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배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식량을 얻기 위해 작은 골동품을 한 아름씩 들고 기차를 타고 농촌 지역으로 향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녁이면 기차역은 채소와 과일, 시끌벅적하게 울어대는 돼지와 닭 등을 들고 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음을 들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들고 가 식량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에서 잊을 수 없는 원리는 가정 식품 생산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가게에 가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취하는 식품을 생산함으로써 물가 상승이 우리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식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족 모두가 유익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여러분도 하시도록 제안합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공터를 맡으로 쓰기 위해 허가를 구하거나 땅을 임대받아서 밭을 가꾸십시오. 어떤 장로 정원회에서 정원회 단위로 밭을 가꾸어 여기에 참여

한 사람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수확하고 협동의 축복과 가족 참여 등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잔디밭 일부를 일구어 밭으로 만든 가족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좀 더 자립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 위에 내릴 환난에도 불구하고 …… 교회가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자립할 수 있[도록]”(교리와 성약 78:14) 격려하는 바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립하고 독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환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해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

식량 생산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적어도 1년 치 식량을 비축해 놓도록 반복해서 강조하는 활동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식품을 비축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

…… 식품을 생산하고 비축하라는 계시는 백성들에게 방주에 오르라고 한, 노아 시대의 계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세적인 복지에 필수적입니다. ……

…… 식량 비축도 저축처럼 계획을 세우십시오. 매달 봉급을 받을 때마다 비축할 돈을 조금씩 남겨 두십시오. 여러분의 채소밭과 과수원에서 나온 채소와 과일을 병조림이나 통조림을 해 두십시오. 식품을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비축을 가계부 목록에 포함시키십시오. 씨앗을 비축하고, 연장은 일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자동차나 텔레비전 등과 같이 조금 더 편하기 위해, 그리고 즐기기 위한 물품을 사려고 비축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너무도 자주 현재의 편안한 생활에 만족하고 빠져들어서 이곳에는 전쟁의 파괴, 경제적인 재앙, 기근, 지진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주님의 계시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극도로 자기도취에 빠져 있어 그와 같은 천재지변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여기거나, 성도들은 의롭기에 재앙을 면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망상에 빠져 있던 날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큰 환난의 날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으며, 그분의 종을 통해 그 힘겨운 시기를 대비하여 준비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고에 귀 기울여 왔습니까? ……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권고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보다 더 훌륭해져야 합니다. 가정 생산과 비축으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 가장 무서운 날들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 간구합니다.¹⁵

수입 일부를 저축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피할 때, 평안과 만족이 찾아온다.

일과 검약, 자립의 기본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가르칠 것을 여러분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십시오. 수입 일부를 정기적으로 저축하십시오.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십시오. 살림 규모를 너무 빨리 확장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신하십시오. 더 많이 확장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가진 것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¹⁶

…… 불행하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재산을 현명하지 못하게 낭비하여 궁핍해지면 교회나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 회원들은 교회 복지 계획의 토대가 되는 원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 자신의 부양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려는 사람은 참된 후기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자립의 원리를 배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언제 질병이나 실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으며, 재앙에 대비하라고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총관리 직원들이 물질적 및 영적인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¹⁷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이 닥쳐올 위기의 나날에서 벗어나고 독립적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재정적인 속박을 당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¹⁸

열왕기를 보면, 울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했고, 스스로는 갚지 못할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수입 범위를 벗어나 생활하게 되면 “심적 고통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

기적을 통해 엘리사는 그녀가 상당히 많은 기름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열왕기하 4:1~7 참조).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 생활하라.”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현명한 권고입니까! ……

많은 사람이 심각한 불경기가 다시 닥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늘 직장에 다닐 것이며 수입과 급여가 계속 들어올 것이라 기대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만약 직장을 잃거나 다른 이유로 수입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의 미래 수입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위자들은 우리가 경제를 통제하기에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며, 불황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조만간 그러한 불황이 닥칠 것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다른 이유는 더 심각한 것에 있는데 그러하기에 더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즉, 물질주의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이 “있어 보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부자 동네에 있는 더 크고 더 비싼 집에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그런 유혹이 더 커집니다. 주의 깊게 계획된 약삭빠른 현대적인 광고 기법은 소비자의 가장 큰 취약점을 겨냥하고 파고듭니다. 결국 불행히도 기다리지도 않고, 저축도 없고, 자제심도 없이 물질적인 것을 당장 가져야만 한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더 나쁜 것은 부채가 있는 많은 가족들은 버팀목이 되어 줄 유동 자산(저축)이 없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기라도 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칠까요! 우리는 모두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에 집착했던 가족들을 압니다. 그런 상황 뒤에는 심적 고통의 세계가 있습니다.¹⁹

모든 부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건전한 사업 부채는 성장의 한 요소입니다. 건전한 주택 담보는 집을 사야 하는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²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필수품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사치품의 경우에 미래의 예비금을 사용해서 사지 않는 것이 생활에 더 좋을 것입니다. 너무 흥청망청 돈을 써서 수입이 끊어진 후 재정 지원을 받겠다고 구호단체나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지역 사회에 좋지 않습니다.

엄숙히 촉구하건대, 과도한 부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저축하고 나중에 사십시오. 그러면 앞날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높은 이자와 다른 지출을 모면하고, 나중에 저축한 돈으로 훨씬 더 싸게 구입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 더 잘난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 부채를 지고 싶은 유혹을 이겨 내십시오.

……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는 작은 집을 먼저 산다면 형편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며,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가족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재정적 폭풍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순간을 위한 사치품을 포기하십시오. 미래에 있을 자녀의 교육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을 위해 아끼는 것이 정말 현명합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면 마음속에 평안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채에서 벗어나고, 수입 내에서 생활하고, 신속하게 갚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 생활하라.”는 신권 지도자들의 영감 어린 권고를 따를 지혜와 신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²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1편에서 벤슨 회장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근본 원리를 설명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원리들은 우리의 현세적 안녕에 이바지하는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안녕에 이바지하는가?
- “목적이 있고 활력 있게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2편의 몇 가지 예를 참조.) 일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을 즐기는 법을 배우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3편에 있는 벤슨 회장의 권고를 따를 때 어떤 축복들이 올 수 있는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이 권고를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와 반대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4편 참조)

관련 성구

야곱서 2:17~19; 열마서 34:19~29; 교리와 성약 19:35; 42:42; 75:28~29; 104:78; 모세서 5:1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대답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해 주고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 주거나 제시한다. …… 예를 들면 여러분은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잘 듣고 무엇이 가장 큰 관심거리인지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69쪽)

주

1. Heber J. Grant, Conference Report, Oct. 1936, 3.
2. “Church Welfare—Economically Socially Spiritually Sound,” in Welfare Agricultural Meeting, Oct. 7, 1972, 5.
3. Sheri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119.
4. “주님의 창고를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돌봄”,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88쪽.
5. Conference Report, Oct. 1945, 160, 163, 164.
6. “주님의 창고를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돌봄”, 87쪽, Conference Report, Oct. 1936, 3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가 인용함.
7. “Prepare Ye,” *Ensign*, Jan. 1974, 81.
8. Conference Report, Apr. 1967, 61.
9. “환난의 때를 위해 준비함”, 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52쪽.

1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81.
1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84.
12. “주님의 창고를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돌봄”, 87쪽.
1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85.
14.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81.
15. “환난의 때를 위해 준비함”, 53~55쪽.
16. “The Ten Commandments: America at the Crossroads,” *New Era*, July 1978, 39.
17. “환난의 때를 위해 준비함”, 52~53쪽; 복지 계획 지침서 (1952), 2쪽을 매리온 지 롬니가 “Church Welfare—Some Fundamentals,” *Ensign*, Jan. 1974, 91에서 인용함.
18. “Prepare Ye,” 69.
19. “Pay Thy Debt, and Live,” *Ensign*, June 1987, 3-4.
20. Conference Report, Apr. 1957, 54.
21. “Pay Thy Debt, and Live,” 4, 5.



세상에 복음을 전함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에게 선교 사업은 가족의 전통이었다. “제 부친은 열한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우리 열한 명이 모두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제 아내도 역시 선교 사업을 했으며, 마지막 여섯 달 동안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봉사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제 부친께서 선교 사업을 나가셨을 때, 큰 아들인 저는 아버지가 미드웨스트의 선교 지역에서 보내 주신 편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스며들게 된 선교 사업의 정신은 결코 떠난 적이 없었으며, 저는 이것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¹

벤슨 회장은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영국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 2년 반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선교 사업 정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 예로,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 농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종교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다. 1961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9천여 명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공직에 있으면서 그들과 개인적으로 교분을 나눠 왔습니다. 그들에게 소개 카드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²

선교 사업에 대한 열정은 벤슨 회장의 말년까지도 쉼 없이 계속되었으며, 그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그런 열정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전임 선교사 봉사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에게 직접적으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시간과 재력을 기꺼이 바칩니다.”

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³ 그는 아들들을 그렇게 준비시키도록 부모들에게 촉구했다. 또한 교회의 젊은 자매들과 나이 든 회원들에게도 전임 선교사 봉사를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을 권고했다. 그는 복음을 이웃과 나누도록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권고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한 예비 선교사가 선교 사업에 대한 벤슨 회장의 사랑에서 영감을 얻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금요일, 벤슨 회장님 내외는 평소에 하시던 대로 조단 리버 성전 의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벤슨 회장님은 어떤 젊은이를 만나셨는데 그는 기쁨에 넘쳐 인사하며 자신이 전임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이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를 껴안으며 미소 띤 얼굴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게! 나도 데려가 주게!’ 선교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벤슨 회장님의 소망이 담긴 이 인사를 들은 선교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의 자신의 선교 사업에서 회장님과 함께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⁴

복음을 나누기 위한 벤슨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의 핵심에는 모든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 저는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며, 그분의 미천한 종인 제가 가슴 속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⁵ 그는 구주의 사랑이 지닌 힘을 생각하며 이렇게 간증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풍성하게 늘어날 것입니다.”⁶

평생을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동료 성도들도 이같이 하도록 격려해 온 벤슨 회장은 이렇게 확인했다. “저는 선교 사업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⁷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 1 —

세상은 참된 종교에 굶주려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다.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일어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방문으로 회복된 이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큰 책임은 복음을 세상에,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매우 중요한 한 편의 대하극, 희생과 기쁨, 역경과 용기,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점철된 드라마였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에 비견할 만한 휴먼 드라마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랑의 수고를 널리 전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지상의 수많은 사람이 구원과 승영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화로운 원리를 듣고,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 기회를 얻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⁸

저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혜택은 원하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얻을 수 있는 닷, 그들이 겪는 문제에 답을 주는 닷을 원합니다. 그 닷은 안전의 느낌과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해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⁹

오직 복음만이 세상이 안고 있는 자기 파멸적인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을 평화롭게 단합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기쁨과 행복, 구원을 인간 가족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¹⁰

세상은 참된 종교에 굶주려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¹¹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었다는,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영화로운 메시지입니다.¹²

우리는 교회에 주어진 이 중요한 책임을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하며 그분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분께서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시간과 재력을 기꺼이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첫째 의무이자 큰 기회입니다. 이 정신이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해 온 선교 사업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즉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여는, 눈에 띄는 표시가 되어 왔습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위대한 대업을 위한 이타적인 이런 희생 정신이 있습니다.¹³

우리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는 의로움의 원리에 참된 누룩으로서 우뚝 서야 합니다.¹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주님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선교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면, 또한 선교 사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¹⁵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권 의무로 생각함은 물론이요 커다란 기쁨과 기대로 복음을 전할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가르치고 침례를 줌으로써,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교리와 성약 18:15 참조) 것입니다.¹⁶

우리는 모두 이 위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활하는 곳 때문에, 혹은 사회적 지위나 직업 또는 취업 상태 등의 이유로 이 책임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¹⁷

청남 청년

우리는 모든 젊은이들이 주님의 사자가 될 계획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¹⁸

여러분은 봉사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소년에게 심어 줍니까? 여러분은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결심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 그들이 9, 10, 또는 11세가 되면 선교 사업을 할 결심을 하게 하십시오! 가정은 청남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모든 청남은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찍 소년을 준비시키는 것에는 기도하는 방법 가르치기, 물몬경 및 다른 경전의 이야기 읽어 주기, 가정의 밤 하기, 공과 일부를 들려주기, 도덕적인 순결의 원리 가르치기, 미래의 선교사 부름을 위한 저축 시작하기, 일하는 방법 가르치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 마련해 주기 등이 포함됩니다.¹⁹

우리는 선교 지역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서둘러” 선교 지역으로 들어가 개인적인 의로움과 깨끗한 생활을 통한 거듭난 신앙으로 위대하고 효율적인 선교 사업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²⁰

주님은 모든 젊은이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원하십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젊은이의 1/3만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좀 더 잘할 수 있으며, 더 잘해야만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로 간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는 이러한 경험을 큰 기쁨과 열망을 가지고 기대해야 합니다.

……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영원한 동반자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저와 결혼하기 전에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전임 선교사를 마쳤거나 지금 봉사하고 있는 세 손녀를 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 중에는 자매 선교사들도 있습니다.²¹

장년 선교사

우리는 선교 사업에서 장년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²²

연로한 수많은 부부들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로지 선교 사업을 통해서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와 손자, 증손자들을 축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²³

수많은 부부들은 선교 사업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전히 헌신했기에 선교 사업이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⁴

회원 선교 사업

우리는 회원 선교 사업의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 사업이라는 것이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회원 선교 사업은 우리 회원들의 개인적인 성장에 필요한 핵심 열쇠 중의 하나입니다. 회원 선교 사업을 적용하는 모든 와드에서 영성이 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²⁵

여러분이 이웃을 성찬식이나 스테이크 대회로, 가정의 밤을 위해 여러분 가정으로 초대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실제로 대화를 해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입니다.²⁶

회원들이 선교 사업에 대한 책임을 신앙을 갖고 행하려고만 한다면 주님께 서 그들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²⁷



“주님은 우리가 선교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이 위대한 사업에 대한 큰 비전을 볼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회원이 되고, 성찬식에 가고, 십일조를 내고, 복지 프로그램을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좋은 일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나아가 그분의 왕국 건설을 돕기를 기대하십니다.²⁸

3

물문경은 선교 사업에서 활용해야 할 위대한 표준이다.

물문경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더불어 물문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개종시키도록 주신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맞아들이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마련하신 도구인 물문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몬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선교 사업에 임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몬경을 알고 사랑하는, 와드나 지부, 혹은 훌륭한 가정 출신의, 더욱더 훌륭하게 준비된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물몬경의 신성함에 대한 뜨거운 간증이 있고, 영으로써 구도자에게 그것을 읽고 생각하도록 목표를 주며, 주님께서서는 성신의 권능으로 그 책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완전한 확신을 품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합당한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²⁹

물몬경은 선교 사업에서 활용해야 할 위대한 표준입니다. 그것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음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 있는 그 책의 사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입니다. 물몬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까?”입니다. 물몬경은 황금 구도자를 찾는 지름길입니다. 물몬경에는 “세상에 기쁨이 되는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 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입니다.(니파이전서 6:5 참조)

물몬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쇠막대를 잡고 있는 개종자와 그렇지 않은 개종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³⁰

주님께서 친히 물몬경을 주신 것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가장 주요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몬경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선교 도구입니다. 그것을 사용합시다.³¹

선교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영을 얻고, 겸손해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선교사들이 때때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선교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나 회원들 모두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입증된 네 가지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영을 얻고자 노력하십시오.

성공하려면, 주님의 영을 지녀야 합니다. 영은 깨끗하지 않은 곳에는 거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 중 하나는 자신의 생활에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교리와 성약 38:42)

구주께서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14)³²

제가 십이사도 형제들에게 반복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영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반복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야기한다 해도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³³

둘째, 겸손해지십시오.

주님은 겸손하지 않고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업을 도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8 참조) 겸손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심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두려움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해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되 용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더 높은 힘에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주님의 한결같은 도움입니다.³⁴

우리 혼자서는 이 일을 해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 생활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 영혼을 주님께 쏟아부으십시오.³⁵

셋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들어 올리고, 일으켜 세우고, 더 높고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침내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자질에 주목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해 공감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우리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이가 그것을 동경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 줄 때, 그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³⁶

우리는 …… 이웃을 사랑해야 할 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큰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이웃 중에서 많은 사람은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³⁷

빛쬐,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영을 계속 동반하고 싶다면, 일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한 후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아는 것만큼 흥분되고 뿌듯한 것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일입니다. 선교사가 일하면, 영을 얻을 것입니다. 영을 얻으면, 영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영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선교사는 행복할 것입니다. …… 일하십시오, 일하고 또 일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대체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선교 사업에서는 더 그렇습니다.³⁸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다시 말씀하시며 온 세상에 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후기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팎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교회 표준을 유지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를 바랍니다.³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인 이유는 무엇인가?(1편에서 몇 가지 예를 참조.) 여러분이 보기에, “세상[이] 굶주려” 있는 회복된 진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2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적용되는 권고를 생각해 본다. 어떤 면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전임 선교사 봉사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벤슨 회장은 물몬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개종시키도록 주신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말했다.(3편) 물몬경을 공부하고 개종한 사람을 언제 보았는가? 물몬경을 나누려는 우리 노력을 어떤 면에서 향상할 수 있는가?
- 벤슨 회장은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입증된 네 가지 열쇠”를 제안했다. 이들 열쇠가 왜 선교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범을 보았는가?

관련 성구

마가복음 16:15; 디모데전서 4:12; 엘마서 17:2~3; 26:1~16; 교리와 성약 4편; 12:7~9; 15:4~6; 88:81; 123:12~17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사고는 더욱 선명해질 수 있으며, 기억력도 증가할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17쪽)

주

1. “복음을 나누어야 할 우리의 책임”,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10쪽.
2. Conference Report, Apr. 1961, 112-13.
3. “선교 사업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42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100쪽.
5. Conference Report, Apr. 1970, 129.
6. “인생은 영원하다”, *성도의 빛*, 1972년 4월호, 13쪽.
7.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213.
8. Conference Report, Apr. 1970, 128.
9. Conference Report, Apr. 1961, 113.
1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88.
11. Conference Report, Apr. 1955, 49.
1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10.
13. *God, Family, Country: Our Three Great Loyalties* (1974), 49-50.
14. Conference Report, Oct. 1950, 147.
15. “가장 값있는 일”, *성도의 빛*, 1990년 2월호, 2쪽.
16. “가장 값있는 일”, 5쪽.
17. “복음을 나누어야 할 우리의 책임”, 9쪽.
18.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89.
19. “복음을 나누어야 할 우리의 책임”, 9쪽.
20. “주님의 청년들에게”,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50쪽.
21. “교회의 청년들에게”,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108~109쪽.
22. “연로한 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5쪽.
23. “거룩한 책임”,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5쪽.
24. “복음을 나누어야 할 우리의 책임”, 10쪽.
2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08-9.
26.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10.
27. “가장 값있는 일”, 2쪽.
28.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11.
29. “가장 값있는 일”, 4쪽.

30.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03-4.
3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204.
32. *Come unto Christ* (1983), 91-92.
33.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Apr. 3, 1985.
34. *Come unto Christ*, 94.
35. "Principles for Performing Miracles in Missionary Work,"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June 21, 1988.
36. *Come unto Christ*, 96.
37. "복음을 나누어야 할 우리의 책임", 10쪽.
38. *Come unto Christ*, 96, 97.
39. Conference Report, Oct. 1943, 21.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시온의 스테이크와 지방부는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이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로서 마지막 날에 집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1935년 1월 13일, 아이다호 주 보이시 스테이크 회원들은 35세 된 에즈라 테프트 벤슨을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로 지지했다. 벤슨 회장은 스코트 에스브라운 회장의 지시 아래 봉사하고, 인도하고, 가르칠 많은 기회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이 교회로 돌아와 활동하도록 돕는 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¹ 또한 스테이크의 교회 복지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이끌었다.²

1938년에 이 스테이크 회원 수는 8,000명 이상으로 성장했고, 제일회장단은 그곳을 세 개의 스테이크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1938년 11월 27일에 그 세 스테이크 중 한 곳을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벤슨 회장은 “충격적”이라 할 정도로 놀랐었다고 말했다. 아내인 플로라는 이런 부름을 받는 것은 아버지에게 축복이라고 자녀들에게 일러 주었다.³

스테이크 회장으로서 벤슨 회장의 봉사는 온 스테이크에 축복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복지 원리를 가르쳤으며,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모임 시작 전에 집회소를 몰래 빠져나가려는 청년들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은 듣키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주시하면서 뒷문을 향해 예배당을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때쯤 [그가] 사무실 밖으로 걸



스테이크의 한 가지 목적은 “회원들에게 교회 프로그램과 의식, 복음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을 단합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았고 소년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그가 말했다. ‘만나서 반갑구나. 함께 대회를 보러 가지 않겠니?’ 그는 소년들을 이끌고 앞줄로 갔고 그들에게 간증을 하도록 부탁했다.”⁴

벤슨 회장이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기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안 되어 그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또 일어났다. 워싱턴디시로 가서 전국 농업협동조합 평의회 사무국장 직책을 맡도록 제의받은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고사했으나 플로라와 제일회장단과 상의한 뒤에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⁵ 1939년 3월 26일에 스테이크 회장에서 해임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적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날은 처음이었다. ……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 세상에서 이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없었고,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다.”⁶

벤슨 회장은 워싱턴디시에서 가까운 메릴랜드 베데스다로 이사했다. 약 1년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루드거 클로슨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앨버트 이 보웬 장로가 새로운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 그 지역을 방문했다. 클로슨 회장은 에스라 테프트 벤슨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벤슨 형제님, 주님께서는 형제님이 이 스테이크의 회장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벤슨 회장은 깜짝 놀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지역 사람들을 모릅니다. 여기 산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⁷ 그러나 그는 겸손히 그 부름을 받아들였고 지리적으로 넓은 그 스테이크에서 2,000여 명의 회원들을 감리했다. 플로라는 스테이크 회장으로서는 그가 한 봉사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그이는 그 일을 사랑합니다. 그이에게 중요한 것은 직책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이 복음 진리를 알도록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었지요.”⁸

후에 벤슨 회장은 사도로서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스테이크들을 방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테이크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종종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저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와 와드, 선교부의 지도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좋은 것들을 그곳에서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⁹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1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한다.

비회원들이 때때로 묻습니다. “스테이크가 뭐죠?” 회원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스테이크가 어떤 의미죠? 회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비회원들에게 스테이크는 다른 교회의 교구와 비슷합니다. 스테이크는 여러 개의 와드(지역의 회중)를 포함하는 지리적 개념으로서, 하나의 회장단이 감리합니다.

회원들에게 스테이크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말뚝 여러 개를 땅에 단단히 박아 맞줄로 지탱하는 큰 천막을 그려 보십시오. 선지자는 후기의 시온을 지상을 덮은 큰 천막에 비유했습니다.[이사야 54:2; 제3니파이 22:2 참조] 그 천막을 지탱하는 것은 말뚝에 단단히 매인 맞줄입니다. 물론 그 말뚝은 지리적으로 지상에 널리 퍼진 여러 조직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시온의 여러 스테이크에 집합하고 있습니다.¹⁰

스테이크는 적어도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 각 스테이크는 세 명의 대제사가 감리하고 고등 평의회로 알려진 열두 명의 형제가 지원하며, 지리적으로 현지 성도들에게 축소판 교회가 됩니다. 그 목적은 스테이크 경계 내에 사는 회원들에게 교회 프로그램과 의식, 복음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을 단합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스테이크 회원들은 의로움의 표상, 또는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3. 스테이크는 방어진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들은 현지의 신권 역원 아래서 단합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열심히 행하고,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약을 잘 지키는 것은 오류나 악, 재난에 대한 보호책이 됩니다.

우리는 스테이크가 있는 곳에만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의 축복과 의식은 승영을 향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물론 모든 스테이크에 성전이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재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현지하고도 기적적인 발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회원들은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4. 스테이크는 지상에 몰아치는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입니다.¹¹

2

스테이크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의식으로 인도하도록 돕기 위해 조직된다.

교리와 성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이나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여덟 살일 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이는 이것이 시온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있는 주민에게도 율법이 될 것임이니라.”(68:25~26; 기율임체 추가)

여기서 스테이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시온에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의식을 행하도록 돕기 위해 조직됩니다. 스테이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자 조직되며, 그런 발전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¹²

3

스테이크 회원들이 거룩함과 관련된 주님의 표준을 반영할 때, 스테이크는 온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상징물이 된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시온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며, 그 경계가 넓어져야 하고, 그 스테이크가 강화되어야 하나니,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반드시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4)

여기서 주님은 스테이크의 또 하나의 커다란 목적, 즉 온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선언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표현은 물론, 성도임을 자칭하는 모든 회원이 갖춰야 할 내적인 고결함을 말합니다. 시온이란 곧 “마음이 청결한 자”(교리와 성약 97:21)를 뜻합니다.

회원들이 주님께서 그분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함의 표준을 반영할 때, 시온의 스테이크는 강화되고, 시온의 경계가 넓어집니다.¹³

각 스테이크는 보이는 적이든 보이지 않는 적이든 모든 적에게서 피할 방어진과 피난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주님은 또 하나의 계시에서 스테이크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또 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이,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6)

이 계시에는 우리의 빛을 발하여 그것이 열국의 기가 되게 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는 정확함, 또는 온전함을 가늠하는 측정 기준을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봐야 할 거룩함의 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온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온의 스테이크가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스테이크는 성도들이 보이는 적이든 보이지 않는 적이든 모든 적에게서 피할 방어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어진은 신권 통로를 통해 제공되는 지침으로 간증을 강화하고 가족의 결속과 개인의 의로움을 촉진합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들에 대한 서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지고 악마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릴 힘을 가지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아니나 가까웠도다.”[교리와 성약 1:35]

오늘날 …… 우리는 사탄이 전과 다름없이 맹위를 떨치며 “자신의 영토”, 즉 지구를 다스리는 위력을 보인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영향력이 이토록 컸던 적이 없었기에, 성신을 안내자로 삼고 신권 지도자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만이 이 악한 영향력의 대소동에서 목숨을 부지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자신의 성도들을 통치할 권능을 갖고 “그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교리와 성약 1:36]이라는 점도 이 서문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택하신 종과 스테이크 및 워드 역원들을 통해 일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¹⁴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가 굳건하게 제대로 발전하고, 또한 미래에 세워질 스테이크들이 성공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갖추며, 현존하는 스테이크들은 영적인 성취 면에서 스테이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



동료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스테이크가 “폭풍우를 ……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교리와 성약 115:6)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않고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스테이크들은 오늘날 시온의 집합 장소가 되어야 하고, 영적인 성소가 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여러 면에서 충분히 자급자족해야 합니다.¹⁵

시온의 스테이크와 지방부는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이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로서 마지막 날에 집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은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음악과 무용, 연극, 체육 활동을 하고 전반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서로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하늘을 향해 솟은 첨탑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상징이며, 이러한 개념에는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¹⁶

물몬경의 선지자 니파이는 성도들이 온 세상에 있는 스테이크에 흠어져 있을 날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는 성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멸망의 폭풍우가 위태롭게 볼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

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몰몬경, 니파이전서 14:14)

계시를 통해 우리는 후기에 위협과 재앙, 박해가 있겠으나 성도들은 의로움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몰몬경에 있는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가 그 권능으로 의인들을 보전하시리니”(니파이전서 22:17)¹⁷

학습 및 교수 제안

질문

- 1편을 읽어 본다. 교회 회원들이 스테이크로 조직되는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 벤슨 회장은 스테이크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신권 의식을 제공하도록 돕는다고 상기시켰다.(2편 참조)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스테이크가 가정에서 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강화해 주는가?
- 스테이크 회원들이 함께 모여 “온 세상이 보기에”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언제 보았는가?(3편 참조) 이런 활동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었는가?
- 스테이크는 “보이는 적이든 보이지 않는 적이든 모든 적”과 관련한 보호책을 어떻게 제공하는가?(4편 참조) 우리에게는 스테이크에 참여할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 그렇게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련 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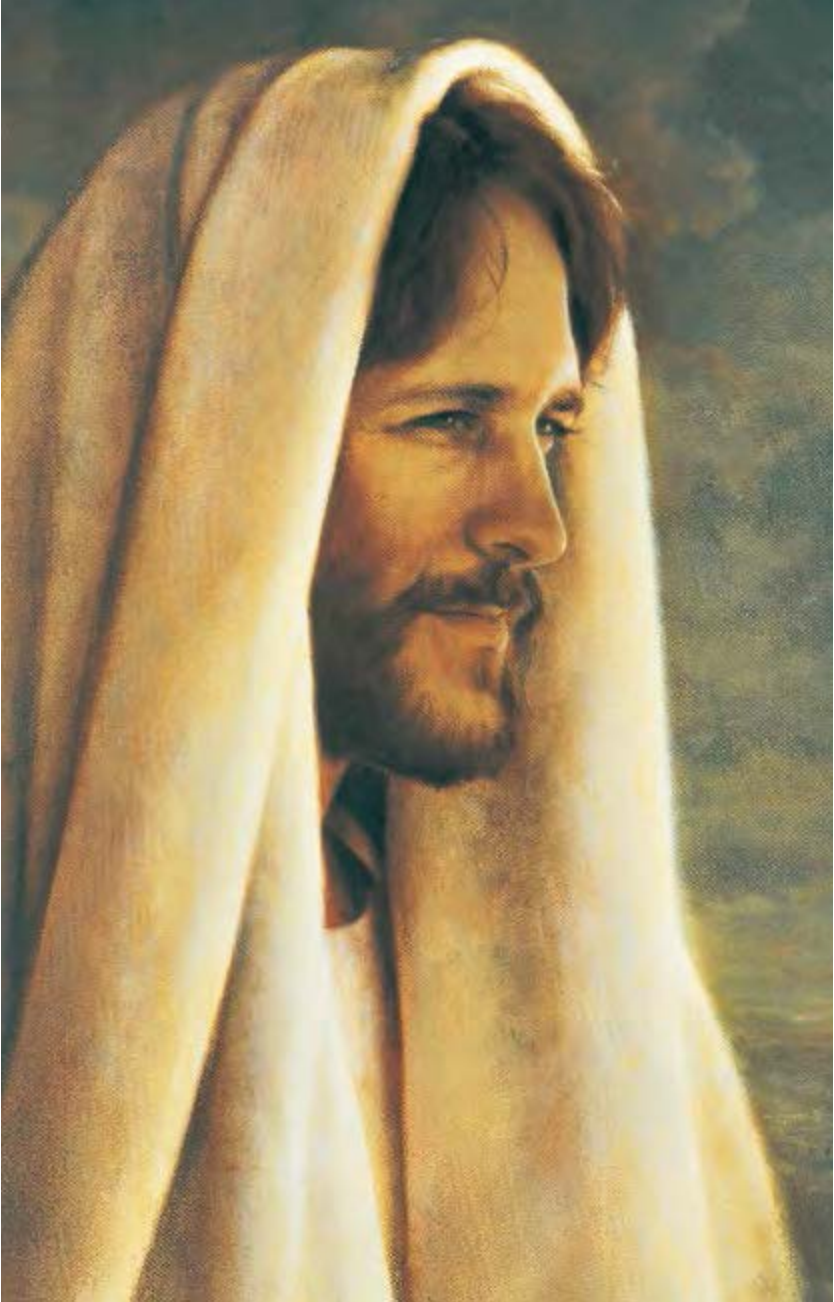
이사야 25:3~5; 마태복음 5:14~16; 모로나이서 10:31~33; 교리와 성약 101:17~21; 133:7~9

교사를 위한 도움말

“숙련된 교사는 ‘오늘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학생들은 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자문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스스로 찾도록 나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평범한 교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훌륭한 장소”,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12쪽; *Teaching the Gospel: A Handbook for CES Teachers and Leaders* [1994], 13에서 인용함.)

주

1. 본 교재 제20장 참조.
2. 본 교재 제21장 참조.
3.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122; Francis M. Gibbons, *Ezra Taft Benson: Statesman, Patriot, Prophet of God* (1996), 104 참조.
4. Sheri L. Dew, based on an account by Don Schlurf,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22.
5. 본 교재 제1장 참조.
6.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44.
7.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56-57.
8. Flora Amussen Benson,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59쪽에서 인용함.
9. Conference Report, Oct. 1948, 98.
10. *Come unto Christ* (1983), 101.
11. *Come unto Christ*, 104-5.
12. *Come unto Christ*, 101-2.
13. *Come unto Christ*, 102.
14. *Come unto Christ*, 103-4.
15.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151.
16.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51-52.
17. *Come unto Christ*, 10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진정한 위대함을 가늠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생애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구주께서 니파이인 열두 제자에게 주신 권고를 자주 인용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¹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 원리는 벤슨 회장이 자신의 성역에서, 특히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과 교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반복해서 다룬 주제였다.

주님을 섬기는 데 일생을 바친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나누면서 힘차게, 확신 있게 말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자 애쓰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노력하는 것만큼 위대하고, 기쁘고, 영혼을 고귀하게 해 주는 도전은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보기’로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회개와 의로움을 통해 승영할 수 있도록, 위대한 속죄 회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자신과 그분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제3니파이 12:48 참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은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취입니다. 주님의 삶과 가장 밀접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²

성도들에게 구주의 완벽한 모범을 따르도록 훈계할 때, 벤슨 회장은 구주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으나 그분과 함께하면 아무도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생에서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얻도록 해 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부터 도덕적 용기를 갖추고 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에게서 배우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³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은 온 인류에게 위대한 표준을 제공한다.

2천 년 전, 완벽한 한 분이 지상에 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의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이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모범과 교훈은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표준, 곧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을 알려 줍니다.⁴

지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는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도, 예배도 없이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혼란과 암흑의 굴레와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목표에 우리가 다다르자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목표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완전을 향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이 그분의 가르침과 생애, 그분의 사망과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생활하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를 결박하는 의심과 무지의 끈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또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단순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를 배워야 하며, 이로써 현재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감미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에서 첫 번째로 두어야 합니다.⁵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다정한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집에 그들의 처소를 마련하고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시고, 또한 어찌면 제자들도 머물게 될 곳을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5~6) 그 길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⁶

2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속성을 닮으려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

물론정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니파이후서 25:28) 우리는 육신의 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니파이후서 4:34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모로나이사 10:32)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제3니파이 12:19) 의에 굽주리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제3니파이 12:6 참조) 우리는 그분의 경전,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그분의 영을 통해 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해야]”(니파이후서 31:20)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따[라야]”(니파이후서 31:16) 합니다.⁷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교리와 성약 6:36)고 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물으신 다음, 이렇게 직접 답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그분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모로나이사 4:3; 5:2; 교리와 성약 20:77, 79) 결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우리는 주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⁸

개인 생활, 우리의 가정, 업무 수행에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의 속성이 드러나게 합시다. 그렇게 생활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속성을 닮으려 분투합니다.⁹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 진정한 위대함을 가늠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¹⁰

구주처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위대한 목표입니까! 그분은 신화의 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생의 모든 면에서 완전하셨습니다. 결점도, 실수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니시라면, 그런 계명을 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마태복음 5:48; 제3니파이 12:48 참조]

사도 베드로는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베드로후서 1:4)가 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실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그분과 같이 될 것이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과정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베드로후서 1:5~7)

베드로가 설명한 덕성은 신성한 성품, 곧 구주의 특성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되려면, 이러한 덕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특성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특성은 믿음, 곧 신앙으로서, 다른 모든 것은 이에 더해집니다. 신앙은 거룩한 특성을 쌓는 토대입니다. ……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덕을 더했습니다. …… 덕스러운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이 순수하고 행동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속으로 탐욕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을 부인[하는]” (교리와 성약 42:23) 것이자 영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에서 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는
구주의 성품을 닮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덕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한 특성인 거룩함과 같은 종류입니다. [우리는] 덕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을 열심히 찾아야 하며 저질스럽거나 추한 것을 구해 서는 안 됩니다. 덕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장식해야 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외설물, 신성모독, 저속한 것을 탐닉하면서도 자신이 전적으로 덕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성장 단계로서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덕에 지식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 하니라.”(교리와 성약 131:6)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 어떤 진리를 공부하든지 모두 가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태복음 16:26) 주님의 이 질문은 세상의 재물을 구하는 것 뿐 아니라 배움을 구하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도 구원받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우리의 영적인 교육을 세상의 교육과 합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성한 성품의 일부로서 베드로가 설명한 또 다른 특성은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감정과 말을 삼갑니다. 모든 것에 중용을 지키며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을 다스릴 줄 압니다. 감정을 지배하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

우리는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 인내도 또 하나의 자기 통제입니다. 이것은 욕망의 해소를 미루고, 자신의 격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은 압박을 받아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이해합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구한 후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조급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글에서도 읽고, 듣기도 합니다. 신성한 성품 가운데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교리와 성약 101:16) 알 만큼 충분히 주님을 믿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와 결점을 잘 참아 줄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결점을 찾거나 비판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또 다른 특성은 친절입니다. …… 친절한 사람은 동정심이 많고 타인에게 온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며 행동이 예의바릅니다. 그런 사람은 도움을 주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친절은 타인의 약점과 결점을 용서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적든, 동물이든, 신분이 높은 낮은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이런 것은 신성한 성품의 참된 특성입니다. 조금 더 덕스럽고, 친절하며, 좀 더 인내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회원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갈라디아서 3:27)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22, 24)고 명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이자 가장 훌륭한 덕성은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모로나이서 7:47 참조) 진실로 더욱더 우리 구주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그분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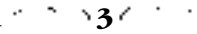
어야만 합니다. 물론은 사랑이 “모든 것 중에 으뜸이”(모로나아서 7:46)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크게 다릅니다.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영원한 성장과 타인의 기쁨만을 구합니다. ……

구주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요한복음 17:3 참조)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그것이 참됨을 엄숙히 간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설명한 것처럼 신성한 성품을 하나씩 더해 가는 과정은 그러한 영생으로 이끄는 지식을 얻는 열쇠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과정을 설명한 후 뒤이어 준 약속에 유의하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베드로후서 1:8; 기욤 임체 추가)

…… 구주의 이런 특성과 성품을 풍부하게 함양하여, 그분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하고 물으실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당신과 같은 사람이니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¹¹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표시해 놓은 길에 머물고자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들어 올려 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갈릴리의 인자께서 보여 주신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만큼 타락하는 것이며 …… 싸움에서 패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복음 14:1, 14, 18, 27)¹²

이제 다시 물몬경을 살펴보겠습니다. ……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분을 따르기로 하고 그분을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삼으며 그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바

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원리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많은 구절 중에서 몇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그는 만민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펴져 있음이라, …… 참으로 그가 이르시되,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되리니”(엘마서 5:33~34)

“[여러분을]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몰몬서 6:17) 계신 그분께로 오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요,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실]”(야곱서 3:1)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십시오.]”(욘나이사서 1:26)

모로나이는 야렛인의 문명에 관한 기록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고자 하노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예수를 구하[라.]”(이더서 12:41)

모로나이는 니파이인 문명의 종말에 관한 기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모로나이사서 10:32)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모사이야서 18:9) 됩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항상” 마음에 “기록하여 간직[합니다.]”(모사이야서 5:12)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길 결심을”(모로나이사서 6:3)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생활이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5:26)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받으며, 그의 사랑을 흡족히 취[하는 것입니다.]”(야곱서 3:2) 니파이는 자신의 죄악으로 영혼이 비탄에 젖어 있을 때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의뢰하여 왔는지 아노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나니”(니파이후서 4:19~20)

우리는 엘마의 다음 권고를 기억합니다. “네 모든 행위로 주께 드리는 것이 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 참으로 네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네 마음의 사랑을 영원히 주께 두도록 하라.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엘마서 37:36~37)

힐라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 내보낼 때, ……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 …… 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 내리지 못하리니.”(힐라맨서 5:12)

니파이는 주께서 “그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사 참으로 나의 육체가 소멸되기에 이르게 하셨도다.”(니파이후서 4:21)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자신을 불사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습니다.]”(니파이후서 25:25) 그들이 “겪는 여하한 고난도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됩니다.]”(엘마서 31:38) 그들은 또한 “예수의 팔에 안[깁니다.]”(몰몬서 5:11) 니파이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니, 이는 그가 나의 영혼을 …… 구속하셨음이라.”(니파이후서 33:6)라고 했으며, 리하이이는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였느니라.”(니파이후서 1:15)라고 말했습니다. ……

…… 위대한 지도자인 몰몬은 사랑하는 아들 모로나이에게 [쓴]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 그리고 내가 쓴 것이 너를 비통하게 하여 너를 억눌러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우리 조상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신 일과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

또 그 보좌가 하늘 높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기까지 그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시고 또 거하시기를 원하노라.”(모로나이서 9:25~26)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는 이 영감 어린 권고에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 주시고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¹³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벤슨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일은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1편) 구주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 지상에 그러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분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성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편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언급된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더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다.
- 더욱더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3편에 있는 가르침들이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려 노력할 때 구주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관련 성구

마가복음 8:34; 빌립보서 4:13; 요한1서 3:23~24; 니파이후서 25:23, 26; 모사이야서 3:19; 엘마서 7:11~13; 모로나이서 7:48

학습을 위한 도움말

“구주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는] ……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 22쪽) 예를 들어,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데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더욱더 구주와 같이 되는 데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주

1. 예를 들어,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성도의 벗, 1991년 8월호, 5쪽; “그리스도를 생각함”, 성도의 벗, 1989년 6월호, 3쪽; “주님의 발자취 따라”, 성도의 벗, 1989년 2월호, 3쪽 참조.
2. “그리스도를 생각함”, 성도의 벗, 1989년 6월호, 3쪽.
3. “그리스도를 생각함”, 성도의 벗, 1989년 6월호, 3~4쪽.
4. Conference Report, Apr. 1967, 58.
5. “인생은 영원하다”, 성도의 벗, 1972년 4월호, 13쪽.
6. Conference Report, Apr. 1966, 128.
7.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 성도의 벗, 1986년 10월호, 5쪽.
8. “그리스도를 생각함”, 성도의 벗, 1989년 6월호, 3쪽
9.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328.
10. “거룩한 책임”,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6쪽.
11. Conference Report, Oct. 1986, 59, 60-62, 63; 또는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59, 60~63쪽.
12. “인생은 영원하다”, 13쪽.
13.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91~92쪽.